



4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4호

(루계 제 750 호)

차례

태양절의 꽃바구니	4
주체의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더 빛나게 형상하자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하늘이 준 상봉	7
영광이 있으라!	9
영원한 수령님 평양	10
주체문학의 대강	10
명승지의 참의미	10
노래가사의 참의미를 깨우쳐주시여	11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여	12
백두산위인전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재보	13
태동하는 봄날에	19

비날론은 수령님의 기쁨	32
비날론과 산삼이야기	33
비날론이 쏟아진다	34
세계유모아.....	35
열매 주렁지는 땅	36
비날론.....	37
문학전선에서 첩단돌과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게 하는것은	
작가들이 지닌 시대적임무.....	38
나는 조국의 해병	40
소원에 대한 생각	41
길이길이 전하여라	42
비날론꽃보라	43
복순이 이불	43
비날론과 그 리용	44
바통.....	45
궁지.....	57
시적탐구가 새로울 때	58
나라에 큰 변이 나더니.....	60
한생과 하루	61
《래일구》여 !.....	71

돌아잡시다	71
동봉땅의 밤	72
들꽃중대 처녀들	72
소박한 정서속에 담긴 약동하는 삶의 숨결	73
초소의 봄비	75
경구, 격언	75
키낮은 사과나무	76
로신의 리발값	76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77
조선속담	78
김창흡과 시초 《갈역잡영》	79

태 양 절 의 꽃 바 구 니

한 원 회

하늘가득 타오르는 아침노을
기쁨가득 밝아온 태양절
우리모두 꽃다발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오르니

아, 어버이수령님 동상앞에
벌써 승엄히도 놓여있구나
우리 장군님 드리신
꽃바구니 꽃바구니

세상의 아름다움 다 안은 꽃송이들
세상의 꽃향기 다 지닌 꽃송이들
붉은 땀기에 아로새긴
존귀하신 어버이장군님의 존함

눈시울 뜨거이 뜨거이 안겨오누나
어버이수령님 물려주신 조국땅에
어버이수령님 원대한 리상을
하나하나 꽃피우신 그 지성
한송이 한송이에 담아 엮으신
꽃바구니만 같아
꽃바구니만 같아

끝모를 걱정을 자아내누나
황홀히도 피워엮은 꽃송이들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 오를 때에도
우리의 주체철이 성공했을 때에도
수령님 보셨더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느냐고
우리가 환하도록 지으시던
그 웃음만 같아
그 미소만 같아

주체의 쇠물이 폭포쳐흐를 때에도

CNC 최첨단기계들 은빛제품을 쏟아낼 때에도
수령님 보셨더라면...
수령님 보셨더라면...
심중엔 그 하나 생각뿐이신듯
언제 어디서나 외우고외우시던
다함없는 그 충정이 꽃으로 피였는가
영원한 고결함이 어리어 눈부시구나

어버이수령님의 평생소원을
자신의 제일소원으로 안으시고
찬바람 찬눈을 다 녹이시며
선군승리 봄을 불러 강행군 천만리
강성대국 봄을 불러 선군장정 천만리
한뫼 바쳐 가고가신 장군님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시련속에서
인민의 행복, 조국의 부강을 가꾸어
수령님의 한없는 기쁨을 꽃피워
이 아침 삼가 드리셨구나
태양절의 꽃바구니
기쁨넘친 온 나라의 모습같은
우리 장군님의 꽃바구니

아, 천세만세 높이 모셔갈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이제 이 4월의 꽃바구니
래년에 한번 더 드리시고
다음해에 또 한번 드리시면
2012년의 태양절

천만군민의 천만감격이 파도쳐 설레일
그날이 그날이 벌써 보여오누나
세계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이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쳐오누나!

주체의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더 빛나게 형상하자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나게 될 우리의 강성대국.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해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벅찬 시기에 우리는 또다시 4월의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게 된다.

태양절, 이날이 있어 오늘 우리들의 행복과 기쁨, 영광이 끝없이 넘쳐나고 내 나라는 **김일성조전, 김정일조국**으로 나날이 더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그 어느때보다 더 빛나게 형상해낼 높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부문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빛나게 형상하는데서 참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더우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선군문학은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형상한 문학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수령영생위업실현에 이바지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인 《붉은 산줄기》, 《천지》와 같이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반영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그 이후시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빛나게 창조한 수많은 큰 형식, 작은 형식의 소설작품들과 혁명전설들 그리고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서정시 《우리 사는 세월의 하루하루에》, 《길이 빛나라 태양의 영상이며》,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등 우수한 작품들의 성과적창작은 이를 웅변적으로 확증해준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문학작품들은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사상감정을 깊이 심어 주고있으며 그이를 더 높이 모시고 따를 오직 한 마음을 키워주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그러나 작가들은 지난 시기에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만족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는 크지만 조금도 자만할 근거가 없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는 아직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우리 작가들은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기수로서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수령님과 백두산위인들의 위대성을 더 빛나게 창조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만을 안아와야 한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서의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창조에서 우리가 계속 힘있게 들어쥐고나아가야 할 문제는 우선 모든 작품들에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생동하게 잘 그려내는것이다.

여기서 우리 작가들은 창작하는 수령형상작품들마다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대로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깊이있게 반영되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하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강조되게 하기 위해 창작적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서 탁월한 정치가, 전략가, 령도의 예술가,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님의 품모를 더 잘 그려내기 위해 언제나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작가들은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창조에서 또한 수령형상을 당과 대중과의 련관속에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특히 수령형상작품들에서 우리 수령님의 인간적 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줄수 있는 가슴뜨거운 사실들을 인간학적으로 인상깊게 반영해나가면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여기에 깊은 창작적주목을 돌려야 한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빛나게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형상작품의 철학적 깊이를 보장하는것이다.

작품이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으로 되자면 철학적깊이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다른 이여의 작품들에서보다 수령형상작품들에서 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작가들은 수령형상작품들에서 사적자료를 소개전달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언제나 작품의 종자를 잘 골라잡고 가꾸며 새로운 발견이 깃들어있고 그 발견한 생활의 진리가 심오하게 구현된 성과작들을 매번 창작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편의 수령형상작품을 창작해내도 그것이 보는 사람들마다에게 깊은 감동과 사색할수 있는 형상적여운을 안겨주는 명작들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의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빛나게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등판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식을 가지였다.》

《대원들의 생신하고 튼튼한 모습을 정겹게 바라보는 내 눈앞에는 가지가지의 회억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이 무장대오의 결성을 위하여 우리의 동지들이 길은 얼마나 걸었고 모임은 얼마나 가졌고 연설은 얼마나 하였고 준령은 얼마나 넘었으며 그 과정에 가슴아픈 희생은 얼마나 당하였던가. 반일인민유격대는 수많은 동지들의 눈물겨운 로고와 피어린 투쟁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진 우리 혁명의 고귀한 산아였다.》

《1932년의 봄은 항일대전의 총성속에서 무르익어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바와 같이 작품에서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뜨겁게 발현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우리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수령의 숭고한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그려내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관조적으로 그려내는것을 비롯하여 수령의 체험세계와 심리적결곡과정을 진지하게 파고들지 못하는 현상등을 작품창작에서 철저히 경계해나가야 한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마음고생을 겪어오시였다. 작가들이 우리 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하는데서 이 깊은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수령님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할수 없다. 따라서 작가들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내면세계를 깊이 추구해들어감으로써 작품의 감화력을 끝없이 높여나가도록 해야 한다.

주체의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해내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문학작품의 형태적특성을 옹게 살려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작가들은 수령형상소설작품일수록 생활이 더 풍만하게, 생동하게 담겨지게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문학작품의 형태적특성을 살려 어버이수령님의 형상을 창조해내는데서 시가문학의 품위를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기간 우리 수령님을 형상하는 시가작품들을 그 특성에 맞게 창조하는데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칭송하는 시가작품일수록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주도적인 감정이 깊은 서정을 통하여 더 절절하게 울려나오도록 하는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세월

이 흘러도 우리 수령님을 꿈결에도 못 잊고 그 위대한 위인적풍모에 끝없이 스스로 매혹되도록 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주체의 태양의 숭고한 모습을 더 빛나게 형상해내기 위해서는 자질을 끝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수령형상은 아무 작가나 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인의 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되고 높은 창작적자질을 지닌 작가들만이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사업이다.

작가들은 언제나 문학적자질과 재능이 없는 당에 도움을 줄수 없고 당의 문예로선을 제대로 관철할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잠자는 시간을 내놓고 끝없이 사색하고 자기의 창작적기량을 높여나감으로써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 잘 형상해내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한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 이는 반만년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있어보지 못한 커다란 경사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크나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될것이다.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 커다란 흥분과 창작적열정을 안고 그가 소설가이든 시인이든 또 아동문학작가이든 그 누구라 할것없이 시대와 인민이 간절히 바라고 력사가 요구하는 우리 수령님을 형상한 보다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냄으로써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일대 새로운 전환을 안아와야 한다.

모두다 뜻깊은 4월의 태양절을 맞으며 누구나 분발하여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형상창조를 비롯하여 백두산위인들의 혁명업적을 노래하는 명작들을 보다 많이 창작해나감으로써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선군시대 작가들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나가자.

리 현 순

하늘이 준 상봉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60년전에 죽은 누이가 동생앞에 나타난 기적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있다.

동생이 한살때 잃은 누이를 60이 되어 만난 남매의 감격적인 상봉은 말그대로 《하늘이 준 상봉》이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전설로 되어 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20년전 항일혁명투사 김철호동지가 서거하였을 때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고인을 추모하여 깊은 추억에 잠기셨다가 문득 자식들에게 물으시였다.

《너희들한테 누이가 있었지?》

느닷없는 물으심에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형제의 심증을 헤아려보시고 혼자말처럼 읊어주시였다.

《너희들은 어렸으니까 잘 모를수 있지. 집에 누이사진이 있겠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사진이라도 보고싶구나.》

형제는 이번에도 이렇다할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들은 누이의 사진을 본 기억이 없었다.

언젠가 어린시절에 어머니한테서 자기들에게 손우누이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뿐이었다.

그리고 후날 철이 들어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적후전선에서 최고사령부를 찾아온 아버지 최현에게 어버이수령님께서 딸의 희생을 두고 몹시 가슴아파하시며 위로하시였다는 사실을 안 이들이였다.

형이 갑자르던 끝에 말씀드렸다.

《사진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이야기하시기를 전쟁때 두번씩이나 폭격을 맞았는데 그때 집에 있던 사진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몹시 아쉬워하시면서 너희 누이가 어렸을 때 **김정일**동지와 군사놀이를 하면서 같이 놀았다고, **김정일**동지가 기관총수를 하던 부사수가 되군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의 말씀 마디마디에는 애뜻한 정이 스며여있었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후 형제는 누이사진을 찾으려고 사방에 수소문을 하며 무진애를 썼다.

누이가 잘못된 때로부터 어언 40년세월이 지나고보니 사진을 찾기가 조련치 않았다.

누이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설사 누이사진이 앞에 있다 해도 형제는 알아볼수조차 없었다.

년년이 세월은 흘러 만나본 기억조차 없는 누이

에 대한 생각은 점차 희미해지면서 망각의 락엽에 묻히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 누이의 사진을 찾으실 때 그이앞에 내놓지 못한 형제의 가슴에 맺혔던 자책의 응어리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것 같은 대국상을 당한 이후 저도 모르게 사라지고말았다.

되돌아설줄 모르는 세월은 살같이 앞으로만 흘러갔다.

누이에 대한 생각이나 사진에 대한 생각을 까맣게 잊고있던 어느날이었다.

한 일군이 동생을 찾아왔다.

그 일군은 만나자바람으로 이렇게 물었다.

《집에 누이사진이 있습니까?》

동생은 첫 순간 그 일군의 말뜻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50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입에 누이라는 말조차 별로 올려본적이 없는 그였다.

만나본 기억도 없고 사진을 본 기억도 없으니 그럴수밖에 없었지만 동생은 이 순간 자기 어머니 장례식에 오신 수령님께서 누이사진을 찾으시던 생각이 부지중 떠올랐다.

《왜 그러십니까?》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되묻는것은 실례였으나 왜 사진을 찾을가 하는 의문이 앞서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최동무 누이의 사진을 찾으십니까.》

《예?》

동생은 당황했다.

모탁불이라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으실 때도 내놓지 못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시는데도 누이의 사진을 내놓을수 없는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내가 왜 그동안 누이사진을 찾지 않았을까?)

아무리 숲속에서 바늘찾는 격이라 해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동생은 심한 자책과 함께 장군님께서 누이사진을 왜 찾으실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 자책과 의문도 흐르는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말았다.

세월은 빨리도 흘렀고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았다.

동생은 중임을 맡게 되면서부터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깡그리 가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누이사진을 찾으시던 때로

부터 스무해가 되던 어느날이었다.

동생은 위대한 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이렇게 물으시었다.

《동무네 집에 누이사진이 있소?》

동생은 이 순간 어머니장례식때 수령님께서 누이사진을 찾으시던 일이며 10년전 어느날 한 일군이 찾아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누이사진을 찾으신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수령님께서 누이사진을 찾으시었고 장군님께서도 저의 누이사진을 찾으신다는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죄스러워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빙그레 웃으시었다.

《내가 동무누이사진을 찾은것은 그때 전선시찰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다 동무아버지를 보았기때문이요. 그때 차안에서 깜빡 잠들었는데 동무아버지가 내앞에 나타나는데 아니겠소. 최현동지는 나에게 지수경례를 하더니 <최고사령관동지!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것이였소. 펄쩍 놀라 눈을 떠보니 꿈이였소. 동무아버지모습이 너무도 생동해 꿈이 아닌것 같기도 하고...

동무아버지가 나를 찾아와서 왜 죄송스럽다고 했을가 하는 생각이 잠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소. 동무아버지가 하던 말이 너무도 귀가에 쟁쟁해 나는 당중앙위원회청사에 돌아와서도 의문을 버리지 못했소.

오늘 어떻게 되어 최현동지가 꿈에 나타났고 그가 왜 나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을 했을가 하는 생각을 하며 일력을 보니 그날이 바로 동무어머니가 돌아간 날이더라 말이요.

동무어머니가 서거한 날이어서 동무아버지가 비몽사몽간에 나타났던것 같소. 그런데 동무아버지가 나한테 왜 죄송스럽다고 했을가 하는 의문은 좀처럼 풀길이 없었소. 수령님께서 동무어머니 장례식에 가셨던 생각이 나서 그때 일을 알아보니 그날 수령님께서 동무누이사진을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했더구만.

그래서 과업을 주어 동무네 집으로 사람을 보냈던거요. 그사이 동무가 혹시 찾았나 해서...》

동생은 이때에야 10년전에 한 일군이 자기 집에 불쑥 나타나 누이사진을 왜 찾았는지 알수 있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으니 벌써 그 일도 까마득한 오래전 일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추억깊은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동무아버지가 나한테 죄송스럽다고 한건 수령님께서 동무어머니 장례식때 동무누이사진을 보고싶어하시었는데 사진을 내놓지 못했으니까

최현동지가 나한테 죄송스럽다고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구만.》

10년째 풀지 못했던 의문이 풀렸으나 동생은 죄스러움이 점점 커만 갔다.

형제들도 잊어버린지 오래 되는 누이를 두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어이하야 그토록 못 잊어하시였고 장군님께서도 추억하시는것일가.

부모님들이 모두 가고 형들도 다 가서 이제는 집안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는 죄책감이 더 컸다.

자신의 불찰로 아버지수령님께 아쉬움을 끼쳐드렸고 장군님께 오늘까지 걱정을 끼친다는 자책으로 가슴이 조여들었다.

주사야몽이라고 낮에 있는 일이 꿈에 나타난다고 하였으니 장군님께서 얼마나 마음쓰셨으면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차안에서 잠시 드신 쪽잠에서마저 이미 세상을 떠난지 오래 되는 전사의 모습을 보셨을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책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는 동생에게 힘을 주시듯 말씀하시었다.

《내 동무누이사진을 찾았소.》

《예?!》

동생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장군님께서 어떻게 누이사진을 찾으셨을가.

《내 일군들한테 과업을 주어 동무누이사진을 찾으라고 했는데 무척 애를 써서야 겨우 찾았소.

동무누이사진을 찾은 후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아버지수령님을 뵈을 때 내 마음속으로 보고를 드렸소.

《수령님! 최현동지의 딸사진을 찾았습니다.》

수령님께서 생전에 동무누이사진을 못 보시고 가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서말이요. 수령님께서 보셨으면 기뻐하셨을텐데...》

장군님의 어조엔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수령님 생전에 기쁨을 한가지라도 더 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한껏 어렸이었다.

《동무어머니가 돌아가신지 벌써 20년이 되누만. 비록 늦게나마 동무누이사진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누이사진이 두장인데 한장은 우리 어머니가 여러명의 투사들과 동무누이를 데리고 찍으신 사진이고 다른 한장은 수령님께서 동무누이와 여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요. 그 사진들을 동무에게 보내주겠소.》

《장군님!-》

그는 뚫어오르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며칠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랑어린 그 귀중한 사진을 금빛나는 액틀에 넣어 최현동지의 아들에게 보내주시었다.

그날 아들은 누이사진을 가져온 당중앙위원회 일군을 통해 비로소 사진을 찾은 사연을 알게 되었다.

장군님으로부터 사진을 찾을 과업을 받은 일군

영 광 이 있 으 라 !

박 현 철

그날은 봄이 와도
해빛이 없던 저 하늘에서
식민지노예의 검은구름을 밀어버리며
해방의 서광이 비쳐든 날이었다
아, 1932년 4월 25일!

아버님 물려주신 두자루의 권총으로
항일성전의 총대대오를 일으켜세우신
절세의 애국령장 우리 수령님
침략자 일제와의 무장투쟁을 선언하시며
우리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고
안도의 밀림에서 력사의 닦을 올린 날이여

얼마나 먼길을 걸어왔던가
아직은 청소한 첫 무장대오를 거느리시고
백만의 일제와 정면으로 맞서시여
눈보라 혈전만리
피바다 혈전만리
진두에서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

빼앗긴 내 나라 내 조국을 찾아주시려
넘나드신 산야마다 붉은 피를 뿌리시며
낮설은 광야에 전우들 묻으시며
이 땅우에 조국해방의 새봄 안아왔거니

수령님 창건하신

그날의 첫 무장대오가 있었기에
인민은 해방된 조국땅에서
자유의 봄노래를 부를수 있었더라
그 노래 또다시 빼앗으려고
전쟁의 불구름 몰아온 미제를 쳐부시고
전승의 새봄도 안아올수 있었더라

아, 정녕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수놓으며
강철의 대오로 자라난 불패의 강군이여
저 멀리 안도의 밀림에서 오늘까지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백두산혁명강군이여

오늘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아래
무적필승의 강국으로 이 행성에 우뚝 솟아
선군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치며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을 담보해가거니

영광이 있으라!
승리만이 있으라!
어버이수령님 창건하시고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진두에서 이끄시는
선군혁명의 주력군이여
천만년 승리와 영광만을 길이 떨치라!

은 사진이 있을만 한 기관들과 항일투사들의 집은
물론 해방직후 수령님과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들
을 다 찾아다녔으나 그 어디서도 사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어느 항일
투사의 집에 찾아가보라고 이르시였다.

사실 그 일군은 그 집에도 이미 가서 많은 사진들
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왔었다.

장군님께서 찾아가보라는 분부를 받고 그는 다
시 그 집으로 갔다.

사진을 한장한장 번지며 눈여겨보던 일군은 자
그마한 사진 두장을 골라냈다.

일군은 사진이 작고 또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머리를 긁어거리며 기연가미연가하다가 그 사진들
을 장군님께 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기쁨에 넘
쳐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 사진이요! 이 어린이가 최현동지의
딸이란 말이요! 수령님께서 보고싶어하시던 그
애, 최현동지의 딸이요.》

일군은 신비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어떻게 장군님께서 아셨을까?

《나는 그때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의 흥분이 되살아난듯 일군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였다.

희귀한 보물과도 같은 뜻깊은 누이사진을 부여
안고 동생은 목매여 말하였다.

《누님! 수령님과 장군님의 덕으로 60년만에 누
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녕 하늘이 준 상봉이였다.

그 하늘은 수령님이시고 장군님이시였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은 말한다.

《수령님께서 보고싶어하시니 세상에 없던 사
진도 나타났다. 그이께서 바라시는것은 장군님 제
시여 무엇이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실지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전설로 생겨난것은 후세의 사람들한테도
길이길이 전해야 할 이야기이고 력사의 귀중한 재
부로 천년만년 사적을 전하고싶은 인민들의 념원
때문이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의 모든 형상요소는 생명유기체와 같이 긴밀히 련관되어있고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체의 생리에 따라 썩트고 자라나며 움직여나간다. 문학의 생리란 형상을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서로 조화시키고 살아숨쉬게 하며 생활을 그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재현하는 원리를 말한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 예술적허구는 수령의 위대성을 실지 있는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형상하는 방향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력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실을 추리하여 전면적으로 되살리는 방향에서 실현되여야 하며 작품을 인간학적으로 세련시켜 예술적인 감화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혁명일화

명 승 지 의 참 의 미

예로부터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이름난 곳을 명승지라고 일러왔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으로 선군시대에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욱 훌륭히 꾸려진 우리 나라의 수많은 명승지들가운데는 황해금강으로 불리우는 장수산도 있다.

주체92(2003)년 6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수산을 찾으시였다. 장수산의 굽이굽이에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며 명소와 명승지들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여기에 사람들이 올라오는가고 물으시였다.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장수산의 극치를 이루는 굽이의 넓은 공지에 꾸려진 휴식터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많이 올라오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다가는데 추석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올

라와 즐긴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명승지라고 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명승지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여러곳에 명승지를 잘 꾸려놓은것은 명절날이나 쉬는 날에 인민들이 마음껏 즐기며 놀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명승지라고 할 수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에서 일군들은 명승지라는 말의 진의미를 똑똑히 깨달았다.

경치가 좋아서만 명승지가 아니라 인민들이 그 경치를 마음껏 즐겨야 진짜 명승지라는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의하여 마련된 오늘의 명승지의 참의미가 있다.

선군시대에 와서 명승지라는 말은 인민에 대한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는 대명사로 되였다.

가 사

영원한 수령님 평양

권 오 준

《사향가》 부르며 그려보신 곳
한평생 사랑 다해 가꾸신 평양
아 수령님심장 뿜는 평양아

탄생의 환희도 여기에 설레고
영생의 노래도 여기에 울리네

아 수령님심장 뿜는 평양아

이 땅에 찬란한 태양의 력사는
수령님숨결로 고동치리라
아 수령님심장 뿜는 평양아

노래가사의 참의미를 깨우쳐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곳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만경대!

그 이름 불러보면 볼수록 한없이 그리운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이 뜨겁게 안겨오고 누구나 찾고싶은 유서깊은 곳이다.

사람들은 주체의 붉은 태양이 솟고 혁명의 새 아침이 밝아온 혁명의 고향 만경대를 언제나 잊지 못하며 늘 마음속에 안고 살고있다.

우리는 만경대를 두고 말할 때 유서깊은 혁명의 고향집은 물론 씨름터, 학습터, 군사놀이터 등과 함께 만경봉에 대해서도 저절로 생각하게 된다.

산천경개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인 만경대에 자리잡고있는 만경봉에 올라서면 일만경치가 환하게 다 보인다고 하여 그 이름 지은 여기에 올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제일봉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담아 조선인민군협주단의 한 작가는 《만경봉은 제일봉》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창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창작된 가사를 두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일부 창작가들이 가사를 두고 머리를 기웃거리며 자기들의 의견을 제기하는 통에 이 가사는 여러날째 론쟁마당에 나서게 되었던것이다.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견해인즉 제일봉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한데가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만경봉이 제일 아름답다는것인지, 아니면 제일 높다라는것인지 표현이 정확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가사를 창작한 작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제일봉이라는 표현을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는 고집이었다.

사실 이 가사에서 제일봉이라는 표현이 없어진다면 작품의 종자가 빠지는것과 같고 결국 가사는 빛을 못 보게 되어있었다.

론쟁중에 작가는 혈압이 올라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없는 속에서도

론쟁은 계속 심각히 진행되었다. ...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63(1974)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사를 보아주시였다. 여러번 가사를 음미하시여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가사를 누가 창작하였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일군으로부터 인민군협주단의 한 작가가 썼다는 것과 그가 《만경봉은 제일봉》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다가 병원으로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사연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중하신 어조로 또다시 물어주시였다. 그것인즉 만경봉을 제일봉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는것이였다.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가사에서 《만경봉은 제일봉》이라고 쓰니 표현의 의미가 명백치 않다고 주장한다고 말씀올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에게 다시금 작가는 어떻게 주장하는가고 물어주시였다. 일군은 작가가 가사에서 제일봉이라는 표현만은 절대로 양보할수 없다고 고집한다고 말씀드렸다.

량측의 주장을 다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벼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작가의 주견대로 노래의 제목과 내용에서 제일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뒤두는것이 좋겠다고, 자신께서도 이 가사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고, 만경봉을 제일봉이라고 표현한것은 가사의 발견이며 그의 사상이라고, 이 작품에서 제일봉이라는 표현을 빼고나면 아무것도 볼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제일봉이라는 표현은 이 노래가사의 핵이며 사상이기도 하다고, 일부 사람들이 제일봉이라는 표현이 명백하지 않다고 한다는데 명백하지 않은것은 작가의 표현이 아니라 제기하는 사람들의 미학판이라고, 만경봉을 제일봉이라고 표현한 작가의 의도를 잘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의 참의미, 4.15의 참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태양이 높이 솟아오른 만경봉을 세계제일봉이라고 노래하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한것이라고, 가사를 고치지 말고 그대로 곡을 붙여 형상해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정녕 옳은 말씀이시였다.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헤아리시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수령님의 뜻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이 땅위에 강성대국의 승리를 안아 올 굳은 맹세를 다질 때마다 사람들은 수령님의 동상건립에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 본다.

해방후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려는것은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었다.

이러한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분은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주체37(1948)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미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이 자라나고있는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실것을 받기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그 위치를 확정하시기 위하여 만경대혁명학원에 나오시였다.

학원 본관앞쪽의 나지막한 언덕에서 주위를 둘러보시는 김정숙동지의 안팎에는 이제 멀지 않아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게 된다는 기쁨이 한껏 어리어있었다.

감회깊은 눈길로 오래도록 사방을 둘러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동상을 모실 자리를 잡아주시면서 운동장에서 바라보면 교사중심이여서 학원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정면으로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를 수 있으니 여기가 좋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모신다면 원아들이 아침에 기상해서 운동장에 모여 아침체조를 할 때부터 저녁점점때까지 언제나 장군님을 뵈올수 있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장군님과 함께 있고싶어하는 아이들의 소원을 생각해서라도 **김일성**장군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는 여기가 제일 합당할것이라고 하시며 조각가를 가까이 부르시어 동상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날 기쁨에 넘쳐있는 조각가를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던 김정숙동지께서는 새 교사 준공식날에 장군님의 동상제막식도 함께 하겠는데 빨리 초안을 완성하여 동상창작에 들어가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이렇듯 다심한 보살피심속에서 그해 10월 드디어 만경대혁명학원 새 교사 준공식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혁명가유가족들과 유자녀들,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정중히 모셔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충정을 지니시고 이 땅위에 수령동상건립의 새 역사를 펼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업적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림 정 호

...

혁명의 높은 뜻을 가슴마다 새기며
온 세상의 마음들이 기쁨안고 달려오네
만경봉은 제일봉 우리들의 희망봉
혁명의 새아침이 여기서 밝아왔네
아 만경봉은 제일봉 세상에 제일봉

...

홍 설 주

그제서야 일군도 머리를 끄덕이며 노래가사의 제일봉이라는 표현의 참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투철한 정책적안목과 뛰어난 분석력,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빛나는 예지에 다시금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리하여 그후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 세계 진보적인류가 희망차게 즐겨부르는 《만경봉은 제일봉》이라는 노래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백두산위인전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재보

—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전 15권)에 대하여 —

박 춘 택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위인칭송의 전설도 많은 우리 나라, 만민이 부르는 선군태양찬가 높이 울려퍼지는 이 강산은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품모와 업적을 칭송하는 전설의 화원을 이루고있다.

조선의 현대역사와 더불어 창조되어 전해지는 혁명전설은 백두산3대장군의 기록한 혁명생애와 영광스러운 혁명활동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옮겨놓은 생동한 혁명실록인 동시에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 고결한 인간적품모를 격조높이 레찬한 수령송가이다.

전설은 인민들속에서 창조되어 전해져내려오는 구전문학의 한 형태이다. 이 세상에 문자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향과 념원을 신기한 자연현상이나 특이한 생활세계에 담아 환상적으로 묘사한 가지가지의 전설들을 창조하며 살아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에도 인민의 슬기와 재능, 기지가 넘치는 전설들이 수없이 전해내려오고있다. 그러나 종래의 전설들은 옛사람들의 소박한 동경의 세계를 담은것으로서 자기들을 《지상락원》에로 인도해줄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숭상,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아름다운것과 추악한것, 지혜로운것과 몽매한것 등 사회와 인간생활의 이모저모를 반영하였을뿐 온갖 예속을 박차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들의 참다운 계급적의지와 념원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오직 인간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보람찬 삶의 길,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준 위인의 출현만이 새로운 주제의 전설, 혁명전설을 창조케 하였다.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절세의 위인들인 백두산3대장군을 맞이하고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백두산위인들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면서 위인흠모와 위인칭송의 혁명전설들을 창조하며 전하고있는것이다.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한 혁명전설들을 발굴정리하여 수록한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전

15권)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혁명전설집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은 해방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들을 묶은 백두산전설편,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전국각지에서 나타난 신기한 자연조화와 관련하여 전해진 설화들을 묶은 추모설화편,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과 혁명활동을 반영한 전설들을 묶은 백두광명성전설편,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애와 혁명활동을 형상한 전설들을 묶은 백두산녀장수전설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 깃든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과 숭고한 인간적품모, 만경대가문에 대한 전설들과 금수산지구의 옛 전설들을 묶은 금수산기념궁전전설편으로 구성되어있다.

백두산전설편에 수록된 전설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에 대한 우리 인민의 환희와 신출귀몰하는 령활한 전법으로 왜놈군사들을 통쾌하게 쳐부시는 천출명장의 전설적위인상을 보여주고있으며 수령님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슬기를 한몸에 체현하신 천하무적의 령장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해방전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들이 수없이 창조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을 형상한 수많은 전설이 창조되어 백두산전설군을 이룬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에 넘치고 열광적이였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천하대장수 김일성장군님께서 하늘의 뜻을 안고 조종의 산 백두산 성산에 내려오셨으니 조선이 독립될 날은 불을 보듯 환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전설 《백두에 내린 령장》, 일제통치시기 항간에서 많이 나돈 백두산의 정기를 타고나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아흔아홉가지 축지법을 쓰시

며 왜놈들을 혼비백산케 하신다는 전설 《아흔아홉가지 축지법》, **김일성**장군님의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신출귀몰하는 천변만화의 활동방식과 령활한 전술을 보여주는 전설 《하늘로 올랐나, 땅으로 찾았나》…

전설들에는 일제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시며 멸망의 구렁텅이에 쓸어넣으시는 천출명장 빨찌산대장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당시 우리 인민들의 진정에 넘친 존경과 흠모의 뜨거운 마음이 반영되어있다.

백두산전설에 관통되어있는 고결한 사상감정은 위대한 수령을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다. 이 고결한 사상감정을 지닌 인민만이 그 어떤 민족적멸시와 수모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민족의 영예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머리를 수그리지 않는 혁명적절제와 기상을 펼칠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민족이 높은 공지를 가지고 자부심에 넘쳐 역사를 창조할수 있는가. 어떤 인민을 가리켜 진실로 존엄있고 공지높은 인민이라고 서슴없이 말할수 있는가.

민족적공지는 원한다고 하여 저절로 생겨나는것도 아니며 나라가 크다고 하여 또는 력사가 오래다고 하여 지니게 되는것도 아니다.

오직 절출한 수령, 탁월한 령도자를 모신 인민만이 위대한 인민, 공지높은 인민으로 될수 있으며 가장 높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은 바로 그러한 수령을 모신데 있다.

바로 백두산전설들에는 력사의 위대한 전환기, 민족재생의 길에 들어서던 첫시기부터 우리 인민이 찾은 진리, 나라와 민족을 한품에 안고 그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나라도 민족도 존재할수 없으며 그 어떤 영광과 공지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생활의 진리, 투쟁의 진리로 체득한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형상되어있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에 수록된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후 전국각지에서 나타난 신기한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전해진 추모설화들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수령영생의 숭고한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지자 삼시에 삼천리강토는 눈물의 바다로 변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과 인류는 크나큰 슬픔에 잠겨 통곡하였다. 민심이 천심이라 그 비통한 나날에 산천도 무심할수 없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전례없이 련이어 생겨났다.

옛 신화나 전설속에서나 들어오던 뜻밖의 자연현상이 실지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열두줄기의 폭포가 쏟아졌는가 하면 만경대와 만수대언덕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곳들에 백조들이 날아와 치량한 울음을 터뜨렸고 청청하늘에서 번개가 쳤으며 우뢰가 울고 폭우가 쏟아졌다. 또한 계절을 초월하여 꽃이 피고 단풍이 졌다.

전례없이 련이어 나타난 신기한 자연현상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갖가지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낳았다.

만경대고향집과 금수산의사당사이에 칠색령통한 무지개가 비끼고 사연깊은 고향집옆 느티나무에 난데없는 흰 비둘기들이 수없이 날아와 슬피 울었는가 하면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구내에서는 밤새인 부엉이가 사무실에 대낮에 날아들어와 무려 10시간동안이나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서 머리를 숙이고있었다는 설화 《만경대에서 일어난 신기한 조화》.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시자 만경대에 날마다 수천마리의 백로가 날아온 신기한 현상에 대한 이야기 《만경대에 날아온 수천마리의 백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사리원시 상매산 언덕에서 주체83(1994)년 8월에 목란꽃이 다시 피였다는 이야기 《다시 피여난 국화》…

추모설화의 기본사상주제는 위대한 수령님은 천출위인이시며 비록 수령님은 서거하셨으나 그 위대한 업적과 고결한 성품, 높은 덕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온 누리에 길이 남아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신념이다. 사상주제는 다음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견결히 고수하여오신 혁명의 불은기를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높이 들고 나아가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의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덕성, 인간적품모는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에서도 감동깊게 형상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기나긴 혁명투쟁의 자욱자욱을 가장 헌신적인 사랑과 복무의 력사로 그처럼 아름답고 광휘롭게 수놓으시였다. 이 력사적인 로정에서 어버이수령님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위인의 숭고한 인민적품모가 빛나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위인상을 칭송한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은 우선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

도풍모, 위대한 정치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신기한 수첩》은 이 주제에서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전설이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애용하시던 여러가지 소박한 필수품가운데는 자그마한 밤색수첩도 들어있다. 수수하고 평범한 수첩이다. 그러나 수령님의 그 수첩이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신기한 수첩》으로 알려져 여러가지 전설을 낳고있다.

그 밤색뚜껑의 자그마한 수첩에는 세상만사가 다 적혀있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군사와 관련한 자료가 들어있는것은 물론 여러가지 통계수자들과 력사와 지리, 생물학을 비롯하여 어느 농장의 농사작황과 경험도 적혀있고 산골마을에 사는 개별적학생의 취미와 소질, 지어는 신발문수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문제들이 죄다 적혀있다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대와 인민들뿐아니라 외국의 인사들에게서까지 《신기한 수첩》이라고 불리우고있는것이다. 외국의 인사들은 그 수첩을 《혁명의 대백과사전》이라고 하기도 한다.

더욱 신기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수첩을 보시며 가르치심을 주시면 어느것 하나 실현되지 않은것이 없고 언제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승리수첩》이라고 하였다.

인류지성의 절정에서 빛을 뿌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 해박한 지식과 다방면적인 식견, 지구를 움직이는 지레대의 위력을 떨치는 탁월한 령도력이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속에서 우리 나라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보통 수수한 밤색의 자그마한 수첩을 두고 《신기한 수첩》, 《승리수첩》, 《보물수첩》, 《혁명의 대백과사전》이라는 전설이 태어나게 하였다.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언제한번 편히 쉬신 날이 없었고 언제한번 마음편히 주무신적이 없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를 뜨거운 마음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또한 전설 《로천사무실》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 전설은 인민의 운명과 행복을 위하여, 인류의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수령님의 위대한 헌신의 세계와 뜨거운 그 사랑과 은정을 잊지 못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뜨거운 마음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신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간절한 념원을 반영한것이다.

전설들은 또한 한평생 이민위천의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께서 지니신 사랑과 믿음의 철학을 빛나게 확증하고있다.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였고 모든 사람들을 재생의 길, 빛나는 삶의 새 세계에로 이끌어주시고 내세워주신 영원한 은인이시였으며 혁명적의리,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의 빛나는 모범으로 혁명의 길에서 땀아지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과의 관계를 최상의 경지로 끌어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은 《언감자국수》와 같은 전설이 태어나게 하였다. 전설은 평북지방의 보통음식도 천만가지 신비함을 느끼게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인민을 위해 바치신 그 위업으로 하여 민족이 천세만세 받들어 모실 불세출의 위인이심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칭송한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은 또한 수령님의 검박하고 소박한 생활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수령님에 대한 독자들의 절절한 그리움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한평생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이끄시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이신 수령님께서서는 일신의 신고를 달게 여기시며 인민앞에 언제나 검박하신 생활을 이어가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인민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였으며 인민들과 똑같이 평범하고 검박하게 생활하신 수령님의 인민적풍모를 칭송하는 여러가지 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어느 사람들과 같은 생활비를 타시였다는 전설 《수령님의 생활비》, 금수산의사당 구내를 포장하려던 자재로 어느 한 산간학교의 길을 포장하도록 하시였다는 《중지당한 구내길보수공사》, 수령님께서 어느 사람들이 신는 보통실내화를 신으시였다는 《수령님의 실내화》 등이 바로 천출위인으로서의 비범한 자질과 함께 인민적인 검박성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인민을 하늘로 여기신 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인간은 위인을 흠모한다.

사상도 리념도 위업도 제도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꽃피우시고 기쁨도 눈물도 정도 애도 동지와 인민과 함께 나누시면서 한평생을 빛내여오신 위대한 인간의 영상을 가슴에 새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수령님을 흠모하며 절세의 위인상에 대한 수많은 전설을 창조하고 전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과 세계의 인류가 창조하고 전하는 이 칭송의

전설들에는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인의 위대한 사상과 신념, 불굴의 정력과 열정, 태양의 뜨거운 정과 열, 그 모든것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게 빛나고있으며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다음으로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 백두광명성 전설편에 수록된 전설들은 선군령장이시며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위인상을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전설들에는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존경심, 절대적인 매혹과 신뢰가 깃들어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수많은 전설들이 창조되고있다.

초소에 가면 경애하는 장군님 최전연고지에 오르신 그날 꿈인듯 내리던 비는 몇고 구름사이로 눈부신 해빛이 쏟아져내렸다는 전설이 있고 북방의 기계공장을 찾아가면 위대한 장군님 환한 미소 지으시자 꽃보라인양 송이송이 흰눈 내리며 황홀한 은빛세계 펼쳐놓았다고 이야기하는 로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다. 이러한 전설들은 백두산과 구월산에도, 인민군부대와 공장, 농촌, 학교 그 어디에서나 꽃피고있다.

선군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열렬히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마음과 지향이 담겨진 무수한 전설들, 오늘의 격동하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창조되고 전해지고있는 선군전설들은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파정에 있었던 사실들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느해 설날을 며칠 앞둔 날의 이른새벽 그날도 밤늦도록 집무를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전연초소의 병사들이 보고싶으시여 아직 어두운 새벽시간에 최전연부대의 인민군병사들을 만나시고 뜨거운 사랑을 부여주시였으며 해가 뜨기 전에 평양에 도착하시여 계획하셨던대로 아침 첫 시간에 국가적인 중요회의에 참석하시였다는 그이의 선군강행군을 보여주는 전설 《위인과 백두산 룡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사색하고 또 사색하시며 흐르는 하루하루를 백날, 천날맛잡이로, 시간을 앞당겨 한시간을 백시간, 천시간맛잡이로 일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한대한 열정과 정력적인 혁명활동에 대한 전설 《축시법과 이상한 시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우리 식대로 원만히 해결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며 온 나라에 감자꽃을 활짝 피워놓았으니 철늦도록 피여있는 랑림땅의 감자꽃바다야말로 절세의 위인께 드리는 자연이 마련한 감사의 꽃다발이라는 내용을 담은 전설 《자연이 엮은 감자꽃다발》.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씨야방문으로 온 세상을 들썩하게 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시자 태성호의 룡이 하늘로 올라간것은 이 감격적인 소식을 하늘 나라에도 알리자고 날아올라간것이라는 전설 《하늘로 올라간 룡》...

온 나라 어디서나 꽃피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전설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신비로운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광폭정치로 만민의 가슴을 덥혀주는 덕망을 지니시고 력사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감동깊게 보여주고있다.

혁명전설은 민족의 통일념원을 담고 남녘땅에서도 수많이 생겨나 널리 퍼져가고있다.

지금 남녘동포들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해주시고 자주통일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격찬하고 위인흠모의 열기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 무수한 위인전설이 남녘땅에 널리 퍼지고있다.

남녘인민들이 전해가는 전설들중에는 제5차 범민족대회가 진행되던 주체83(1994)년 8월 15일 새벽 서울 상공에 신기한 장수별이 나타난 사실을 두고 남조선인민들이 이것은 나라에 대통운이 틀조짐이며 단군민족의 하늘장수이신 **김정일**장군님만을 위하고 우러러 받드는 우리 겨레의 군상과도 같은 이 천지조화는 멀지 않아 어둠을 쫓는 장수별의 밝은 빛을 받아 통일조국의 새아침이 기필코 밝아올것이라는것을 하늘이 먼저 알려준것이라는 전설 《단군민족의 하늘장수》도 있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에 의하여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추대되신 선거구번호 《666》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길수라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장군님은 21세기의 태양이라고 우러르면서 통일의 구성으로, 민족의 구세주로 높이 모시는 남녘민심을 반영한 전설 《666》도 있으며 주체73(1984)년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수해를 입었을 때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해같은 은정이 깃들어있는 구호물자가

수재민들에게 안겨진 때로부터 **김정일**장군님은 우리들을 구원해준 구세주, 하늘님이라고 하면서 남녘의 거리와 마을들에서 그날의 감격에 대해 전하고있는 전설 《북향문》도 있다.

전설 《하늘재》에 형상된것처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던 곳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이 어려있는 뜻깊은 고장인 수안보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이복을 노려보는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대낮에 버젓이 판문점을 다녀가셨은즉 이제 구름을 타고 수안보에도 오실것이라고 확신하고있으며 그들은 오늘도 **김정일**장군님께서 오실 큰 길을 닦고 하늘재마루에 《**김일성**장군통일개척비》와 《**김정일**장군통일실현비》를 세울 그날을 일구월심 기다리고있다. 이 전설은 수안보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남녘의 민심을 반영하고있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은 금수산기념궁전 전설들에서 감명깊게 형상되고있다.

위인의 영생은 위인만이 빛내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여 우리 수령님 영생하시며 장군님 계시여 이 땅우에 영원한 태양의 력사가 흐르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만년 무궁토록 빛나실 우리 수령님의 환하신 모습과 함께 자신의 온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영원한 태양을 받아들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충정과 도덕의리의 숭고한 세계를 가슴후덕게 새겨안았다.

아버이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영원히 수령님의 한품속에 살게 해주신 도덕의리의 최고화신, **김일성**민족의 만대의 은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절감한 우리 군대와 인민들속에서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에 대한 전설들이 창조되었다.

전설 《학울타리》, 《별정문》, 《금수산기념궁전의 돌》, 《오석산에 떠오른 별》 등은 금수산기념궁전이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러지던 나날에 생긴 신비한 이야기들이다. 전설들에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결심을 안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열렬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마음을 반영하고있다.

수령의 영생은 수령의 후계자와 인민의 도덕의리에 의해 담보된다. 도덕의리는 수령과 인민을 영원

히 하나로 결합시키는 혈연적紐대이다. 서거한 수령과 그 후계자의 관계는 도덕의리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며 수령에 대한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충실성은 다름아닌 도덕의리로써 표현된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속에 아버지수령님의 영생의 력사가 흐른다는 영생의 진리와 온 나라가 크나큰 슬픔속에 잠겨있을 때 수령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길이 모실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 불면불휴의 심혈로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관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 백두산녀장수전설편에 수록된 전설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인간적품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고인 열렬한 흠모심을 반영하고있다.

전설 《천출룡마라고 내린 녀장수》는 백두산장군봉마루에 서서 왜놈들의 동태를 손금보듯 살피시다가 축지법을 써서 백두산으로 기여드는 수백명의 왜놈들을 일본땅에 내던졌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백두산녀장수의 비범한 품모를 보여주고있으며 전설 《동틀 날은 멀지 않았다》는 백두산대장군님의 령을 받고 북청에 나와 벌리신 김정숙동지의 지하혁명활동을 형상하고있으며 전설 《신기한 사진》은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되시여 혁명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신파지구에서의 눈부신 혁명활동을 반영하고있다.

그리고 《신기한 작식법》, 《은수저》, 《금로수》, 《백리향》 등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신 김정숙동지의 지성에 대한 전설들은 수령결사옹위의 투철한 신념을 지니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백두산녀장수전설편에는 백두산녀장수께서 총한방을 쏘서 다섯마리의 기러기를 떨구자 반일부대의 두령 왕사령과 그의 부하들이 백두산녀장수님은 총으로 도술을 부리는 천지신명을 타고난 위인이시라고 감탄하고 그 자리에 말뚝처럼 굳어지고말았다는 《도술부리는 총》과 같이 백두산녀장수의 비범한 사격술을 보여주는 전설들도 있다.

이처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형상한 전설들은 오직 하나 혁명위해 온 심신을 불길처럼 태우시였으며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하는것을 삶의 절대적인 좌우명으로 삼

으시고 수령결사옹위의 친위전사로 한생을 빛나게 사신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생애와 위대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을 형상한 혁명전설은 전설문학의 고유한 특징을 원만히 갖추고있으면서도 종래의 전설유산에 비하여 새로운 혁신적면모를 갖추고있다.

그 혁신성은 무엇보다도 화폭의 중심에 노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을 모신것이다.

수령을 형상한것은 혁명전설의 주되는 특징으로 되며 이것은 오랜 력사와 기원을 가진 인류의 전설창조력사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혁명전설의 특징은 다음으로 지난날 영웅호걸과 명장, 위인들에 대한 전설은 한 인물에 대해 불과 몇편, 그것도 당대가 아니라 후세에 가서 그들의 공적과 위훈이 전해지면서 후대들에 의해 점차적으로 생겨난것들이지만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는 전설들은 위인의 생존시 당대에 벌써 동시대인들에 의하여 수많은 창조되어 웅근 하나의 전설군을 이루고 널리 퍼지고있는것이다.

혁명전설의 특징은 또한 백두산위인들의 혁명활동과정에 실지 있었던 사실에 기초하고있는것이다. 혁명전설의 모든 편들이 다 실지 있는 사실을 그대로 펼쳐보인것처럼 진실하게 여겨짐으로써 감화력이 매우 크다.

판문점의 안개전설도 그렇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전연 대덕산초소에 찾아가시였던 날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들어 그이의 신변을 《호위》해드렸다는 전설도, 패속정을 타시고 어느 한 해군부대를 찾으시였을 때 바다로 빠져나가던 썰물이 난데없이 《밀물》로 되어 다시 밀려들어 장군님을 부두에 안전하게 모시게 하였다는 전설도 선군장정의 나날에 실지 있었던 일들이다.

이것은 백두산위인들의 혁명활동행적에는 보통인간으로서로는 도저히 상상에 가닿지 않는 비범성과 천리혜안의 선견지명, 예지가 결음마다에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기에 실화 그자체가 전설로 전해지고있는것이 많다는 사정과도 관련되는것이다.

혁명전설의 특징은 또한 창조범위에 있어서도 옛전설과 구별된다는것이다.

옛전설은 민족단위로 창조되었다면 혁명전설은 민족단위를 벗어나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도 창조되어 전승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옛전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미학적요구를 완벽하게 구현한 혁명전설이 창조됨으로써 비로소 인류의 전설문학은 오래동안 물려오던 허황한 환상의 틀에서 벗

어나 주체시대, 선군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설형식을 찾게 되었으며 문학사적인 진보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다.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위인칭송의 전설도 많은 것이다. 지니신 자질과 품모가 위대하고 령도가 위대하며 쌓아올리신 공적이 하도 위대하여 전설적위인으로 칭송받으시는 백두산위인들.

혁명전설에는 자나깨나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존경심, 절대적인 매혹과 신뢰가 깃들어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누구나 위대한 장군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믿고 따르며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날과 달을 보내고있다. 이러한 절절한 심정이 위대한 현실과 더불어 위인칭송의 하많은 전설을 낳고있다.

전설속에 탄생하시고 전설속에 성장하시여 전설속에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탁월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전설적위인이시다.

백두산위인들을 칭송하는 혁명전설은 민족적 긍지의 발현이고 거족적이며 전인민적흥모와 매혹, 칭송의 표현인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며 사상교양과 서사문학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과 견인력은 비할바없이 크다. 그것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똘어넘치는 환희와 걱정의 발현이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분출이며 민족적이며 인민적인 사고방식과 사상감정의 표현이다. 거기에 재현된 민족적이고 인민적인 정서, 감정, 인민적예지, 기지 그리고 구수한 이야기식흥미, 통속성으로 하여 혁명전설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견인력, 감화력은 아주 폭이 넓으며 침투력이 강하다. 뿐만아니라 혁명전설을 대하는 사람들의 전폭적이며 무조건적인 공감으로 하여 문학의 주체성과 민족성의 구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전설은 생활과 더불어 널리 전파되며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한다.

백두산위인전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재보이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칭송한 혁명전설들을 집대성한 전설집 《백두산3대장군전설전집》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가장 절출한 위인들을 높이 모신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새겨주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키며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천만군민을 언제나 크게 고무할것이다.



강 현 만

1

서천하늘을 녹이던 저녁해가 지평선너머로 사라지자 거무스레한 어둠의 나래는 봄의 대지를 서서히 덮어버렸다. 만물이 고운 꿈을 꾸다는 포근한 봄밤이 시작되었다.

밤은 이 땅의 모든것을 잠재운다고 하였지만 민족의 흥분만은 잠재우지 못했다. 남북련석회의 개최를 눈앞에 둔 평양의 거리에는 땅거미가 질었으나 기쁨과 감격이 엉켜돌아가고 눈물과 웃음, 노래와 구호, 환희와 엄숙함이 엇갈리던 한낮의 분위기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백두가 소리치니 한나가 화답하던 때라 그럴만도 하였다.

또랑목소리로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삼천리...》 하는 노래를 합창하며 소고채를 휘둘러대던 학생가창대의 한무리가 어둠이 깔린 해방산앞도로를 따라 평천리쪽으로 멀어져갈 그무렵이었다.

집무실창가로 흘러드는 격양된 민족의 흥분을 감수하시며 련석회의 보고문을 검토하시던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서기 김종항을 찾으시였다.

《인민위원회청사로 가서 강량옥선생을 여기로 모셔오오.》

《알겠습니다.》

종항은 답변을 올리면서 집무실벽면의 시계를 얼핏 쳐다보았다. 오늘도 또 밤을 새우실 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만을 붙들고 걱정방아를 찢던 그였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보고문과 관련해서? 남조선그리스도교대표들과의 사업때문에? 집무실밖을 나서는 종항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해볼만도 했다. 강량옥으로 말하면 장군님의 창덕학교시절의 스승인데다가 해방후에는 북조선그리스도교련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에 북조선인민회의 서기장을 겸하고있어 장군님과 친분관계가 보통 깊지 않았다. 그만큼 장군님께서서

강량옥을 믿고 존경하시였으며 사업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상론하실 때가 드문했던것이다.

잠시후 강량옥을 앞세우고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선 종항은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인사를 나누신 후 직관 본론으로 들어가시였다.

《강선생,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자고 찾았습시다.》

《무슨 부탁인데...》

《저— 선생이 매일 러현으로 나가 38도선을 넘어오는 김구선생일행을 마중하는 일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매일 저녁쯤 김구선생이 서울을 출발할것이라고 합니다.》

《네—에?! 제... 제가 김구를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내가 여러 각도에서 짚어보면서 결심한 문제인데... 내가 선생에게 하는 가장 힘든 부탁인것 같습니다.》

《...》

강량옥의 벌어진 입은 굳어지고 너부죽한 얼굴은 해쓱해졌다.

장군님께서 주시는 과업이라면 쌍수를 들고나서던 강량옥이 이러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두해전인 1946년에 있는 일이다.

그때로 말하면 립정주석이라는 호신부를 내흔들며 서울에 《개선》하여 반공의 등지를 콕잡아게른 김구가 미제의 장단에 맞춰 리승만, 김규식과 어깨를 같이하고 《조선을 다스릴 3대거두》라는 《3인무》를 펼치면서 평양에 테로단을 무시로 들이밀 때였다.

그무렵 강량옥의 집은 모란봉기슭에 있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반동들이 북조선간부들을 겨냥한 테로분자들을 자꾸 들이미는데 대처하여 년초에 벌써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강선생, 아무래도 선생네 댁을 해방산기슭으로 옮겨와야 할가봅니다. 외파로 있는게 어쩐지 께름합니다.》

했으나 강량옥은 고집스레 나왔다.

《장군님, 새 조국 건설로 바쁜 이때 언제 이사를 째고 부산을 피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할 일이 많은데... 놈들이 아무리 양심을 먹었다 해도 여태 기도나 드리며 살아온 이 강량옥과 무슨 척을 졌다고, 또 제가 무슨 큰 간부라고 테로를 하려들겠습니까.》

역시 강량옥은 살생을 금하는것을 엄한 계율로 여기는 신자의 심리가 모든 사고를 관통하고있는 사람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못내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정 그렇다면 토지개혁이나 끝내고 시간을 봐서 5월쯤 사택을 우리 집근처로 옮겨옵시다.》라고 하시면서 경위대장 강상호에게 강량옥의 집주변에 밤마다 순찰을 꼭꼭 파견하라는 지시도 주시었다.

그런데 그해 5월에 접어들어 집이사를 오늘 한다, 태일 한다 하던 때에 그만 일이 터졌다. 한밤중에 강량옥의 사택이 김구가 들이민 테로단에 의해 기슭을 당했던것이다. 총탄이 날아들고 수류탄이 터지는 통에 아래방에 있던 강량옥은 팔에 부상을 당하고 밤늦게까지 그의 집에서 사업토의를 하다가 옷방침대에 누웠던 그리스도교 목사 강병석이 창자가 파열되어 쓰러지는 참상이 빚어졌다. 더욱 억이 막힌것은 강량옥의 아들딸이 무장악당들의 총탄에 맞아 숨이 진것이었다.

그날 밤, 집무실에서 북조선소비조합조직과 관련한 원칙을 작성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격하시여 책상을 팡— 내리치시었다. 그리고는 경위대를 비상소집시켜 무장악당들을 체포해들이는 한편 불행을 당한 강량옥의 가정을 잘 위로해주도록 온갖 대책을 다 취하시었다.

사건현장을 수습하던 김종항으로부터 강병석 목사가 수류탄파편을 들쓰고 절명직전에 처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특별병원 의사들을 불러 당부하시었다.

《강병석목사를 어떻게 하나 살려내야 하오. 참 성실하고 량심적이고 애국적인 목사였는데 일이 이렇게 번져지다니, 정말...》

병원으로 후송된 강병석은 10여일만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숨을 쉬니 산목숨이지 그는 이미 저승사자와 손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목사의 가족친척들은 가망의 바줄을 늦추고 파들거리는 시계바늘만 쳐다보고있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바쁜 속에서도 거의 매주에 한번씩 병원으로 가시여 생의 욕망마저 단념해버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목사를 위해 할수 있는것은 다하시었다. 지성이면 돌우에도 쫓

이 피여난다고 장군님의 사랑이 하도 꼭진하여 목사의 생명은 2년이 된 이때까지도 꺼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이들전에도 장군님께서는 련석회의장소인 모란봉극장을 돌아보시던 그길로 병원으로 가시여 침상에 누워있는 강병석의 손을 꼭 잡으시고 《그때 반동들의 테로를 맞지 않았더라면 목사님도 이번 남북련석회의대표로 참가하여 많은 일을 하실수 있었을건데 정말 큰 랑패를 보았습니다.》하고 가슴아파하시었다. ...

김구라는 소리에 대경실색한 강량옥을 바라보시며 한동안 아무 말쑈도 없으시던 장군님께서는 책상우에 놓인 담배갑을 집으시었다. 그리고는 한대를 골라드시었다.

《마음을 농치는겸 한대 태우십시오.》

여느때같으면 사양했을 강량옥이었지만 말없이 받아들였다.

《강선생, 사실 김구가 선생의 귀한 아들딸을 테로한건 용서할수 없는 일입니다. 말은 바른대로 김구야말로 선생네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난 그저께 병원에 가서 반신불수에 두눈까지 실명한 폐인이 되어 침상에 누워있는 강병석목사를 보면서 억이 막혀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으기 격하게 울리는 장군님의 음성에 강량옥은 머리를 푹 떨구면서 후— 하고 담배연기를 내 불었다. 푸릿한 연기는 그의 심사처럼 방향없이 이리저리 떠돌다가 사방으로 흩어져버린다.

장군님께서는 속이 좋지 않으시여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방안에는 천만근의 무게를 안고 울리는 장군님의 발걸음소리와 가슴을 누르느라 애쓰는 강량옥의 거센 숨소리만 울렸다.

종항은 그제서야 그곳이 자기가 있을 자리가 못된다는것을 의식하고 서슴서슴하며 문을 열고 대기실로 나갔다.

잠시후 일어불었던 집무실안의 공기를 흔들며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울리었다.

《강선생도 전번 인민회의때 통일전선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좋은 토론을 했습니까. 그러니 참읍시다. 더 큰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감정을 눌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구가 반공분자이긴 해도 민족적량심만은 버리지 않았고 또 우리의 련석회의제에 응해나선 이상 그를 진심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련석회의과정을 통해 김구는 우리의 진심을 느낄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난 그가 38도선을 넘어서면서부터 우리의 진심을 알게끔 하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가 평생 무겁게 지고다니던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도 다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련석회의장소에 들어설게 아닙니까.

우리가 김구의 지난날을 백지화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강선생이 려현에 나가 고상한 품성과 아량을 보이면서 그를 따듯이 맞아준다면 그 이상 진심이 또 어데 있겠습니까.》

강량옥은 입귀를 쉴룩거리며 떠듬거리었다.

《장군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선생. 그럼 오늘 밤엔 댁에 들어가 폭 쉬시고 래일 아침부터 준비를 좀 해서 저녁때쯤 승용차를 가지고 려현으로 나가주십시오. 아까 내무국에도 38도선을 넘는 김구일행에 다른 일이 없도록 조직사업을 하라고 말했는데 런계를 잘 가지십시오.》

그리고 70이 넘는 김구선생이 흑시 로상에서 찬바람을 맞고 앉을수 있으니 유능한 의사도 한명 따라보내겠습니다. 떠날 때 김종항동무와 리종산동무도 데리고가주십시오.》

《아니, 그럼 장군님의 서기와 부관까지?!》

강량옥은 또다시 눈이 커졌다.

《강선생, 그 동무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일을 더 책임적으로 잘할겁니다. … 내가 이제 그 동무들에게 별도로 특별과업을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량옥이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 집무실에서 나오자 대기실에서 뒤송송해서 생각의 채바퀴를 굴리던 종항이 벌떡 일어섰다.

《어떻게 됐습니까?》

강량옥은 신중한 기색을 띤 얼굴을 쑥 돌리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그러니까…》

종항은 땀 굳어졌다. 그러는 그에게 강량옥은 무슨 말인가 하려는듯 주춤거리다가 뚜격뚜격 소리만 남기고 청사밖으로 나갔다.

종항은 조용히 집무실문고리를 잡았다.

집무탁을 마주하고 련석회의조직준비위원회에서 보내온 문건을 보시던 그이께서는 머리를 드시었다.

《무슨 일이 있소?》

《아…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왔으면 앉을게지 왜 그러오?》

종항은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말 씀을렸다.

《장군님, 저—강량옥서기장을 정말로?...》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하시었다.

《이것 보오, 종항동무. 지금 온 민족이 힘을 합쳐 민족분렬의 위기를 타개하자고 하는데 구태여 개인감정을 앞세울 필요가 뭐요? 그런 웅졸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서는 이번 련석회의를 성공해내기가 어려울뿐아니라 민족대단결도 이룩할 수 없소. … 물론 강선생을 려현으로 내보내는데

외형적으로 보면 원쑤진 두사람을 외나무다리우에 맞세우는 일같기도 하고 더우기 강선생의 립장에서 보면 접수하기가 힘든것만은 사실이요. 그래서 나도 고심이 많았던거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것이 좋소. 민족의 단합을 위해서도 그렇고 김구선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은 눈길로 잠시 벽면에 걸린, 하나의 지맥으로 이어진 길다란 조선지도를 응시하시었다.

장군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다시 울리었다.

《오늘 오전 김구선생이 평양으로 가겠다는 성명문을 낸 후 측근들에게 〈이제 평양 가서 만일 강량옥이 지난날에 대해 책을 잡는다면 할 말이 없지 않는가.〉 하고 안절부절했다고 하오. 그런 김구선생의 심중이 지금 얼마나 무겁겠소. 그런 죄의식에 놀리워 련석회의마당에 와서도 강량옥선생의 눈치나 흘끔흘끔 살피면서 가세절음을 해가지고서야 우리의 무슨 문제를 제대로 합의해내겠소. 그래서 난 김구선생이 려현에서 가슴속 그 죄의식을 죄다 털어버리게 하자는거요. 두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리해하고 사죄하고 포용한 다음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의마당에 들어서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요.》

긴장되었던 종항의 얼굴에 꽃이 피어났다.

《장군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는 더수기를 굵적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또다시 손짓하시었다.

《앉소. 래일 아침 종산동무랑 함께 불러서 특별과업을 하나 주자고 했됐는데 말이 난김에 말합시다.》

나는 이번 련석회의가 끝날 때까지 종항동무를 김구선생의 비서로, 종산동무를 김구선생의 호위부관으로 일하게 하자고 하오.》

《네—에?!》

《아, 왜 그리 놀라오? 곁에 내 일을 거들어줄 사람이 없을가봐?! 그저 내 말대로 김구선생을 잘 보좌하시오. 련석회의성과를 위해서라면 뭘 마다하겠소.》

종항은 일순 속이 울컥하며 눈시울이 뜨거워났다. 민족대단합을 정치의 기저에 놓으시고 아픔에우는 사람은 물론 남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까지 박아넣은 죄많은 인생들까지 다 품어안으시는 장군님! 민족대단합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장군님! 아—

그 시각 종항의 온몸을 휩싼것은 걱정만이 아니었다. 무거운 책임감이 두어깨를 지그시 눌렀고 뒤미처 꽤 해낼수 있겠는가 하는 근심과 걱정이 머리속에서 배회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럼 그리 알고 종산동무랑 강선생을 모

시고 러현으로 나갈 차비나 잘하오.

참, 그리고 래일 아침 일찍부터 편석회의장소랑 다시 한번 돌아보겠는데 그 조직사업까지는 마저 해주오.》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지시하시고나서 다시 집무탁 문건우에 시선을 박으시였다.

2

이튿날 오전.

아침부터 종향을 데리고 평양 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신 장군님께서 집무실에 들어서실 때였다.

청사접수실에서 한 일군이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결으로 달려와 뭐라고 말씀드렸다.

《아, 애국미헌납운동선구자 김제원농민이 왔소?》

장군님께서 웃으시자 접수대기실에서 하얀 무명바지저고리에 연회색두루마기를 걸친 로인이 반색을 하며 나왔다. 거무스레한 땅처럼 별에 그슬린 그의 얼굴이 벋글거리기 시작하였다.

《장군님, 그간 귀체만강하셨습니다. 제 재령사는 김제원이올시다.》

로인은 허리를 푹 꺾었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는 김제원의 거울진손을 잡으시고 안부를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옷차림새를 훑어보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렇게 조선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까지 차려입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허, 난 로인님이 오셨다길래 혹시 지난 인민회의 때처럼 신식양복에 개화장까지 짚고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허허허...》

《아니, 장군님. 또 그때 일을...》

로인은 손을 뻗어 내저으며 허연 이를 드러내고 고개를 주억거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일이 생각나 소리내어 웃으시였다.

한해전 북조선인민회의 제1차회의를 앞두고 대의원으로 선출된 김제원이 장군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였다.

그때 김제원은 공단조끼를 받친 신식세루양복에 표나는 넥타이를 척 매고 장군님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머리에 중절모까지 썼는데 손에는 번쩍거리는 자개박이손잡이가 달린 개화장을 들고 발에는 매생이같은 새까만 구두를 신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벼락개명을 하고 나타난 김제원을 보시고 《아니?! 이게 애국미헌납운동선구자농민이 옳긴 옳습니까. 허, 이거 로인님이 그새 하이칼라신사가 됐습니다.》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김제원은 비죽비죽 웃으며 손에 들고있던 개화장을 슬그머니 등뒤로 가져갔다. 그리고는 양복앞섶을 손끝으로 톡톡 치면서 《글쎄말입니다. 저도 난생처음 이런걸 걸쳐보았는데 영 개관입니다. 어찌나 거치장스러운지, 쫓쫓.》 하고 혀를 내둘렀다. 세상에 드문 괴짜였다.

《그것 보십시오. 농민대의원이야 농민의 본새대로 농민복을 입어야지요. 그게 격에 맞는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도지사나 군수를 찜찜먹을 모양을 했으니 누가 로인님을 농민출신 대의원으로 보겠습니까. 얼굴은 모범농민이 분명한데 차림새는 꼭 세도군입니다, 허허.》

장군님께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자 김제원은 반백의 상고머리를 내리 굽으며 허아래소리로 웅얼거리였다.

《집에 팔년이 평양에 가셔도 창피스레 거름냄새를 피우겠는가고 하두 성화를 먹이는데다 동네 좌상령감이 대의원이란 정승대감벼슬이나 같은 건데 무명바지저고리같은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왜 왜거리고 게다가 동잡이들이 해방덕에 개명한 농민의 모습을 시위하는것도 꽤찮은 일이라고 자꾸 꼬드기는 통에...》

《허, 정승대감이라... 로인님, 대의원은 벼슬아치나 판로배가 아닙니다. 인민의 심부름군입니다. 그리고 진짜개명이야 사상으로 하는거지 그런 옷이나 바퀴입었다고 되는데 아닙니다. 아, 조선바지저고리가 어떻다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한데.》

...

이렇게 되어 그때 김제원은 그길로 백화점에 나가 깨끗한 조선옷을 사입고 인민회의에 참가했던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다시 한번 김제원의 차림새를 훑어보시며 환히 웃으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손을 잡으시며 《무슨 긴요한 용건이 있어 오셨겠는데 자, 어서 방으로 올라갑시다.》 라고 하시였다.

집무실에 들어서신 장군님께서는 로인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찾아온 용건을 물으시였다.

김제원은 밤나비날개같은 눈섭을 झुक거리며 속에 있는것을 술술 쏟아놓기 시작하였다.

《장군님, 제 이번에 재령군농민대표로 뽑혀 한뎛새전에 평양에 올라왔습니다. 와서야 장군님께서 소집하신 이번 편석회의가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중대한 회의라는걸 자상히 알았습니다. 헌데 글쎄 이 미련한 놈이 그저 빈손으로 훌쩍 올라왔으니 그게 어디 지각이 있는 행동입니까? 그래서 회의참가자들에게 한끼라도 나무리벌 쌀밥맛을 보여주고싶어 그그저께 재령엘 다시 내려갔다가 쌀을 서른뎛가마니 싣고 오늘 새벽에야 올라왔습니다. 그걸 장군님께 드리려고... 쌀

실은 달구지들은 농민대표들이 든 서문려판마당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다간 로인님네 창고가 바 타나겠습니까. 지금이야 식량이 바른 봄철인데 어 데서 그 많은 쌀을 구했습니까?》

로인은 맴시나게 비다들은 교수염을 손수건으로 꼭 찍더니 손세까지 써가며 마을사람들에게 이번 남북련석회의의 중대성을 말해줬더니 너나없이 쌀 가마니를 메어 내오더라는것, 거기에다 자기네 집에 여윌곡으로 있던 다섯가마니를 합치니 서른 댓가마니 잘되더라는것 등 쌀을 마련하던 때 일을 자초지종 다 말씀올렸다.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더니 《로인님이 쌀을 가지고온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역시 애국미헌남운동선구자가 생각하는 품이 다릅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제 로인님이 가지고온 쌀은 남조선대표들의 숙소에 가져가도록 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이시였다.

《아니, 쌀을 전부 남조선대표들에게요?!》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그들이 나무리별 쌀밥맛을 보면 좋아할것입니다. 아마 황해도태생인 김구선생의 경우에는 감회가 깊어 생각이 많을것입니다.》

로인은 장군님의 마지막말씀에 와들 놀랐다.

《네-에?! 그럼 우리가 타도를 맥였던 그 반공 분자 김구도 왔습니까?》

《래일 오후쯤에는 평양에 도착할것입니다. 물론 그가 지난날엔 못된짓을 많이 해서 타도대상이 되 었던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통일정부를 세우자는 우리의 제의에 공감해나선만큼 그와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 로인님의 생각엔 안될것 같습니까?》

눈이 땡그래졌던 김제원은 어쭙게 웃었다. 그러나 난색은 감추지 못했다.

《글쎄 장군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련하겠습니까만 이 늙은것이 속이 꺾물쭈해서 그런지...》

《그건 뭘 녀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장군님께서는 무척 흥미가 동하신듯 로인에게로 다가왔으시였다. 장군님과 김제원사이의 대화는 김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지를 쳐나갔다.

《장군님의 말씀은 천만지당하지요. 헌데 워낙 황고집쟁이인데다가 저만 똑 제일인체 하는 김 구 그 량반의 성미를 바로잡아주시자면...》

이번에는 장군님께서 놀라시였다.

《아니, 로인님이 김구선생에 대해 어떻게 그리도 잘 아십니까?》

《제 이래뵈두 그 량반을 물어다닌적이 있었습 니다.》

《그게 언제적인데?》

장군님께서 로인의 말에 발을 달아주시자 그는

주름살이 석삼자로 건너간 미간을 쪼프리였다.

《그때가 동학란이 터진 해였으니까 1894년 가을이 맞겠습니까.》 하고 말꼭지를 댔 김제원은 요점을 잡아가며 그때 일을 말씀올렸다.

그 시절 김제원은 여라문살나는 소년이었다. 황해도 해주근방의 수양산기슭에서 살고있었다. 그때 삼남일대에서 농민폭동(《갑오농민전쟁》)이 일자 황해도지방에서도 농민봉기군이 조직되었는데 남달리 조속하여 뼈대가 굵었던 김제원은 만형의 뒤를 따라 농민봉기군에 들어가 소년군사가 되었다.

그가 속한 봉기군이 수양산의 깊은 계곡에 들어가 무장을 갖추고있던 가을 어느날이었다.

허리춤에 묵직한 환도를 찬 키가 봉산수수대같은 한 청년이 도포자락을 펴리며 무장한 네댓명의 도사들과 함께 봉기군들앞에 나타나 열변을 토 했다.

말인즉 부패무능한 조정의 벼슬아치들은 농민폭 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청나라군대를 끌어들이는 놀음을 했다는것, 그러자 왜나라오랑캐들도 때를 만난듯이 조선에 있는 저들의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거의 1만명의 병력을 출동시켰다는 것, 벌써 해주성안에 왜군이 득실댄다는것... 이렇게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통탄하며 가슴을 두드리던 청년은 시퍼런 환도를 쭉 뽑아들고 기염을 내 뿔었다.

《아는가, 그대들이여! 반만년의 력사국이 당하는 이 오욕을 참을길 없어 속세를 떠났던 교인들도 <척양척왜>, <보국안민>의 창기를 들고 일떠 섰거니 이 땅에 태를 묻은 남아라면 로소를 가리지 말고 떨쳐나서자! 해주성에 기여든 왜나라오랑 캐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자!》

《와!-와!-》

여기저기에서 봉기군들이 호응해나섰다.

그 청년이 바로 그 시절 모험심으로 가득찬 김제원의 가슴을 세차게 휘저어놓은 동학(천도교)접주 김구였다.

며칠후 김구를 대장으로 하는 농민봉기군과 교인들로 구성된 700여명의 해주성공격부대가 무어졌다. 김구는 김제원의 만형 김제식을 선봉장으로 임명하였고 제일 나이가 어린 김제원을 자기의련락병으로 삼았다.

해주성공격작전에 진입하기 전부터 농민봉기군상층부와 김구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기 시작했다. 봉기군상층부에서 왜군을 꼼짝 못하게 하자면 야간기습으로 공격하는것이 좋을것 같다는 안을 냈는데 김구가 단박에 일축해버렸던것이다.

《제집마당에서 싸우는데 뭇때문에 도적고양이모양을 해가지고 밤중에 쳐들어가겠는가. 배달민족의 기상도 시위하는겸 대낮에 들이치자.》

결국 김구의 주장대로 해주성공격작전이 벌어졌다. 무려 4시간에 걸치는 피어린 싸움끝에 김구네 부대는 수백명의 사상자만 내고 다시금 수양산으로 퇴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시계와 사계가 확 트인 견고한 성벽에 의지하여 보총과 기관총, 대포와 같은 신식무기를 가지고 저항하는 왜군을 타승하기에는 백주에 자기를 다 드러낸채 창과 칼, 쇠스랑을 든 김구네 부대가 너무나도 무력했던것이다. 게다가 뽕족한 전술도 없이 주먹홍정을 했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김구는 가슴을 치며 호곡을 했다.

《아,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었어. 쪽발이들의 총구앞에서 까투리새끼들처럼 대가리를 구겨박는 그런 무지렁이같은 농군들을 믿었던 내가 너무도 어리석었어. 아-》

김구가 이렇게 패전의 원인을 농민봉기군에 밀어붙였지만 선봉장 김제식을 비롯한 봉기군의 몇몇 상층부사람들은 부대를 일구어 다시 해주성을 들이치라고 하였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김구를 입진왜란때 유명했던 서산대사와 같은 인물로 크게 믿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김구는 서산대사가 아니었다. 코대만 잔뜩 높아가지고 고집이 소힘줄같은 그는 농민봉기군의 호의마저 다 켜버렸다.

김제식이 넘죽 앞드려 애걸했어도 소용이 없었다.

《제식군, 그러지 말게. 아무리 공리해보아야 우리 힘으로는 안되겠소. 신식총을 든 쪽발이들을 몰아내기엔 우리가 너무 열세하단 말이요. 기회는 후에 보기로 하고 당장은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생업에나 전념하게. 난 뜻을 이루기 위해 탄길을 찾아보려네.》

김구는 이렇게 수양산을 내렸고 농민봉기군은 지리멸렬되어 산산이 흩어졌다.

그때 김구는 진눈까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산자드락길로 죽지부러진 독수리모양 축 처져내린 도포자락을 끄으며 구슬픈 소리로 《남아이십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하는 남이장군의 시구를 씹으며 사라졌다.

그후 왜군의 《토벌》에 만형마저 다 잃은 김제원은 장돌뱅이노릇을 하면서 해주, 안악, 사리원 등지를 떠돌다가 재령땅에 주저앉았다. ...

김제원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웃으시었다.

《그러고보니 로인님은 애국농민이기 전에 유명한 애국지사였습니다.》

《장군님, 제가 무슨? 사실이야 저만 똑 제일인체 하면서 소고집, 닭고집을 제멋대로 산 김구 그 량반을 따라다니다가 량패만 보았는데.》

《아니, 그저 그렇게만 들을 소리가 아닙니다. 량패는 보았지만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런 의미에서 오늘 로인님은 나로 하여금 김구선생을 더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로인은 사기가 나서 김구에 대한 이야기를 보냈다.

《하여간 김구 그 량반이 군사에는 미립이 떨어진 편이지만 담이 큰것만은 사실입니다. 민비살해 사건이 터진 이듬해에는 안악치하포나루터에 있는 주막집에서 쓰시다라고 하던지 요시끼라고 하던지 악질 일본헌병놈을 맞다들자 다짜고짜 먹다시를 쥐여 돌려메치고는 부엌에 있던 참대꼬챙이로 그 놈의 털가슴을 들이찔렀지요.》

《그 일본헌병의 이름이 쓰지다 료스께입니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로인의 말을 정정해주시었다.

《그러니 장군님께서도 그 사실을...》 하고 눈을 슬벅이던 김제원은 《하여간 그때 그 소문이 굉장했지요. 그 일루 해서 김구는 인천감옥에도 불들려갔고...》 하며 이야기를 마감하였다.

《그것 보십시오. 제 민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런 일을 추동한것이 바로 민족적량심이라는것입니다. 나는 김구선생의 이런 점을 중시하여 그와도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로인님이 김구선생을 비롯한 남조선대표들이 들 숙소에 쌀을 가져다주어야겠습니까, 그만두어야겠습니까?》

김제원이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장군님, 이젠 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말씀대로 쌀을 김구선생이랑 들 숙소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또 로인님한테서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제 어찌 신세로 됩니까, 다 나라를 위한 일인데. ... 참 장군님, 제 이번 기회에 김구 그 량반을 만나 혼시질을 좀 해야겠습니다. 일없겠습니까?》

《왕년의 련락병이 자기 상관이었던 사람에게?! 그것 참 볼만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여튼 그건 로인님이 좋을대로 하십시오. 너무 달구지는 마시고... 하하하... 자, 그럼 건강한 몸으로 회의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제원을 문밖까지 배려주시면서 김종항에게 서문려관까지 모셔다드리라고 이르시었다.

3

강량육일행은 련현에서 옹근 하루반을 꼬박기다렸다. 했으나 서울을 출발했다던 김구는 평구워먹은 소식이였다.

(어제가 19일이었으니 련석회의를 시작했겠구나. 그런데 왜 김구는 여적... 번덕 또한 보통이 아

나라더니 그 령감의 마음이 흑시?!)

종항이 이런 집념에 빠져 희뵤히 밝아오는 동녘을 바라보며 려현려관 앞마당에서 슌스스적 걸음을 옮기는데 땀발이 번지르르한 가라말을 탄 내무국 려락군관이 급히 들어섰다.

려락군관은 강랑옥에게로 가서 금방 38도선을 넘은 김구일행이 곧 온다고 알려주었다.

뒤미처 자동차소리가 소란스럽게 울리더니 새벽이슬을 흠뻑 들쭉 김구일행이 후줄근해가지고 들어섰다. 그렇게도 보무당당히 서울을 출발했던 김구일행이라고 볼 때 도무지 리해가 가지 않는 행색들이었다. 하나같이 소태먹은 우거지상이었는데 축 늘어진 회색두루마기에 중절모를 눈두덩이까지 푹 내려쭉 김구의 인상은 말이 아니었다. 로상에서 무슨 침을 맞은것 같았다.

종항은 급해났다. 그런 형편에서는 화해는커녕 다음일이 어떻게 번져질지 가늠할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역시 강랑옥은 컸다. 그는 반색을 하며 《백범!—》하고 마주오는 김구에게로 다가갔다.

그때에야 김구는 자기를 마중나온 북측간부가 강랑옥이라는것을 알고 눈을 치떴다. 곁에 선 자기의 수행비서가 귀뜸해주었던것이다.

김구의 불편이 썰록거리는것이 확연히 알렸다. 강랑옥에게 내미는 손도 후들후들 떨렸다.

강랑옥과 김구는 용케도 손을 맞잡았다.

《백범, 년로한 몸애 힘든 길을 오시느라 로독이 크겠습니다.》

강랑옥이 부드럽게 인사말을 건넸으나 뒤가 켜져 갑자르던 김구는 속에서 굴리던 생각을 그대로 내뱉었다.

《강목사, 천만뜻밖이요. 날 마중나올줄은 꿈에도 몰랐소. 헛참.》

김구의 동문서답격의 인사말애 가까스로 호전되던 분위기는 다시 도루메기가 되고말았다.

벌애 쇠인 사람처럼 찌뿌둥해진 김구는 두툼한 입술을 삐죽이 내밀고 공연히 《흠, 흠.》하고 빈소리만 냈다.

이때 김구의 수행비서가 김구의 팔을 잡고 한쪽으로 비켜서며 나직이 말했다.

《위원장님, 아무래도 사죄의 말 한마디는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강랑옥의 아들딸문제를 녀두애 두고 하는 말이였다.

김구의 안경속에서 눈알이 번뜩이였다.

《뭇때메? 정치란 원체 그런건데.》

김구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애 북측성원들과 남측일행이 인사를 나눌 때 종항은 김구에게 《김종항입니다.》라고 했을뿐 《제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선생의 비서로 일하라고 보내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끝내 삼켜버리고말았다.

개표리 삼년 묵어도 황모 못된다더니 역시 김구는 김구로구나. 테로왕초, 반공두목, 고집불통, 심술꾸러기… 종항은 불쑥불쑥하는 이 모든것들을 가까스로 누르며 김구의 거동만 살폈다.

외로 비틀어진 김구의 심사는 평양을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완전히 표면화되였다.

김구가 려관마당으로 나설 때 강랑옥이 쫓아가며 말하였다.

《백범, 우리가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왔으니 함께 타고가면서 이야기나 나눕시다.》

그러나 김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고맙소만 강목사, 나도 차를 가지고왔으니 그저 길이나 안내하오.》 말마디들애는 온통 가시친지였다.

종항은 속이 불끈했다. 하지만 김구가 그렇게 나오는 까닭이 심분 리해되어 가슴을 눌렀다. 김구가 려관방에서 잠간 허리를 펴 때 내무국려락군관이 강랑옥에게 하는 말을 다 들었던것이다.

전날인 19일 저녁에야 서울을 출발한 김구일행은 그밤으로 38도선에 이르러 남측검문소를 거친 후 북측초소를 통과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북조선내무국 경비대원들이 버티고선 초소에서는 붉은 신호등을 내걸었다. 보총을 멘 나 어린 경비대원이 《서울2253》이라는 번호를 단 승용차까지 물고 우르르 쓸어드는 김구일행을 향해 호각을 불며 벼락치듯 소리쳤다.

《엇! 다가서지 마시오!》

《우린 저… 서울서 오는 한국독립당…》

김구의 수행비서가 다가가며 사유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자라목이 되어 말뚝처럼 땅애 박혔다.

《다가서지 말것! 응하지 않으면 쏜다!》

경비대원은 차돌을 먹고 자랐는지 전혀 이가 들지 않았다. 벽창호였다.

그통애 김구의 심중에서는 표리뵤힌 통대가리가 이발을 갈았다. 승용차문을 열어제끼고 밖으로 나온 김구는 개화장으로 땅바닥을 팡팡 내리찍었다.

《이놈!— 내가 누군줄 아느냐?! 내가 바로 한국독립당 위원장 백범이다! 당장 길을 내지 못할가!》

벽적거리는 소리에 석줄배기 보초장이 뛰어나왔다. 회색두루마기차림애 검은테가 굵다란 돋보기를 코애 건 우락부락하게 생긴 웬 령감이 발을 탕탕 구르며 호통질하는것이 여간 꼴사납지 않다고 생각한 보초장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맞방망이질을 해댔다.

《한국독립당 위원장 백범?! 우린 백범이고 흑범이고 모릅니다. 말끝마다 한국, 한국 하는데 여기가 뭐 남조선인줄 압니까? 당장 물러서시오!》

김구는 선불맞은 호랑이가 되였다.

《뭐가 어째? 천둥이 뭔지도, 지동이 뭔지도 모르고 덤비는 이 꼭대기에 피도 안 따른 녀석들아, 그대 버르장머리는 어따 뺏개쳤느냐! 이제 립정주석 김구를 대하는 북조선의 본래냐?! 당장 길을 비키지 못할가! 난 김일성장군과 협약이 돼서 여기로 통과하게 된 사람이야!》

《?!》

나어린 경비대원들은 서로 마주보며 굳어졌다. 해방전에 본 산골지주같은 평감의 입에서 장군님의 존함이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것이다. 사실 그때 경비대원들은 상급으로부터 38도선경비를 특별히 강화하라는 임무만 받았지 김구일행을 어떻게 맞아들이라는 그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던것이다. (그것은 후에 박헌영의 줄개로 판명된 내무국 김부국장이라는자의 책동때문이었다.)

경비대원들의 절벽같은 마음이 경사지기 시작하자 김구는 더욱 승이 올랐다.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개인영웅심까지 고쳐치자 뻗돌서하게 서있는 분계선표식말뚝을 그려안고 소영각소리를 냈다.

《아이쿠— 이 나라에 김구를 몰라보는 덜된 녀석들도 있는가! 한생 배달민족을 위해 고군독전하며 로심초사해온 나를!... 그러나 이 녀석들아, 똑똑히 알아둬라. 내 네녀석들한테 문전거절을 당하는 창피를 들쭉지만 돌아갈 땐 기어이 이 말뚝을 뽑아던질것이다!》

자기가 마치 세상만사를 다 주무르는 대단한 애국자인체 하면서 허세를 부리는 김구의 행동을 두고 코방귀를 끼던 경비대원들은 그의 일행을 한동안 억류시켜놓았다. 그러다가 사실이 상급에 보고되고 내무국관판들이 달려와서야 38도선통과를 승인했던것이다.

강랑옥은 38도선에서 상한 기분이 삭지 않아 폴떡거리는 김구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위원장선생, 큰일을 하러 오시는 선생을 몰라본 경비대원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선 제가 대신 사죄합니다. 그러니 이젠 그만 노여움을 푸시오.》

강랑옥은 개인감정을 용의주도하게 누르면서 최대의 아량을 보이였다.

그제서야 김구는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는감이 들었던지 코날이 식어가지고 《그 일이야 뭐 강목사와는 무관한건데...》 하고 뒤말을 얼버무리더니 《음—》 하며 자기 차에 올랐다.

《하, 이거 백범이 동서남북도 모르는 북조선땅에 와서 어딜 혼자 간다고 그러시오. 오늘부터 련석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 김중항동무가 선생의 길안내도 하고 사업을 보좌하는 비서로 일하게 되었은즉 자, 동석하고 면목이나 익히십시오.》 하고 강랑옥은 종항의 등을 떠밀었다.

일행은 평양을 향해 달렸다.

차창밖으로는 새파란 봄의 주단을 짙 펼쳐놓고

울긋불긋한 꽃송이들을 겨끔내기로 뽑아든 산과 들이 그림처럼 흘러갔다. 길녘 논밭들에서 살찐 황소의 잔등에 채찍을 얹으며 《주인된 새땅엔...》 하는 구성진 노래가락을 굴리는 농민들의 흥에 겨운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 모든것에는 무관심한듯 눈을 반쯤 감고 입을 꼭 다물고있던 김구는 금천을 지나 평산땅에 들어서서야 종항에게 한마디 건넸다.

《여기가 어딘가?》

《평산입니다.》

《평산?! 음—》

김구는 쓴입을 찡찡 다시었다.

사실 한때 김구는 리승만과 맞장구를 치며 돌아간적도 있었지만 남북련석회의 참가의사를 표명한후로는 그와 양속이 되었다. 리승만은 수차 김구가 거처한 경교장을 찾아와 북으로 향한 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김구가 서울출발직전에는 전화로 《백범, 종시 가려나? 이제라도 마음을 돌려먹게. 내 초대대통령자리를 백범에게 양보하겠으니 배달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북행을 취소하게. 하지사령관도 여간만 노하지 않았네.》 하고 회유했는데 김구는 《한번 한다고 내가 결심한건 누가 말려도 쓸데 없어! 100마리의 황소로 끌어도 김구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아!》 하고는 송수화기를 내동댕이쳤던것이다.

그러나 김구가 리승만을 비롯한 반대파들의 집요한 꿀발린 권고도 다 췌뿌리고 이렇게 평양을 향해 걸음을 땀것은 북의 정치에 완전히 공감되어서도 아니며 가슴속에 련공결심이 굳어져서도 아니었다.

북조선공산주의자들도 빼개놓고보면 우리와 말이 같고 조상이 같고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 아닌가. 이런 동족이 외국인들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그 얼빠한 38도선이라는 금때문에 지금껏 남남이 되어 살아온것만도 통분한 일인데 서로 만나 말이야 왜 나뉘보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지금 북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정치협상을 하자고 손까지 내밀고있는데... 가서 만나보자. 만나서 정치담판을 해보고 안되면 내 차라리 38도선을 베개삼아 누워버리고말리라. 이것이 그때 김구가 자기의 육체를 맡긴 정신적지주였다.

아직은 대중할수 없는 앞날과 38도선을 넘자바람으로 뜻밖에도 자기가 제일 꺼려하던 강랑옥을 만난 일을 두고 오만가지 생각을 굴리던 김구는 김중항에게 또 물었다.

《김선생, 선생이야 사실대로 말해줄수 있겠지?》

《뭘 말입니까?》

《저—강목사가 날 마중나온건 도대체 무슨 까

닭인가. 혹시 바늘 넣고 토끼 나누는 놀음은 아니겠지?)

《아, 뭔가 위원장 선생은 꼭 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항은 웃으며 김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장군님께서 강랑옥을 러현으로 내보내주신 취지에 대하여 세세히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김일성장군께서 나를 생각해서?! 음—》

김구는 다시 눈을 내리깔았다. 쉽게 믿어지지 않아서 인 것 같았다.

종항은 김구에게 강랑옥의 집이 테로분자들로 부터 습격을 받던 때 일이며 그때 치명상을 당한 강병석목사가 지금도 특별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실 그리고 장군님께서 강병석을 위해 기율이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말해주었다.

《가만, 가만. 강병석이?! 강병석이라면 옛날 길림에 있던 손정도목사와 막역지우였던 평안도의 그 교인이 아닌가?! 나이차이는 좀 있어도. 그때 립정에 독립자금을 희사한...》

김구는 깜짝 놀랄만도 했다. 1919년 상해 립정이 출산 당시 손정도목사는 초대 의장이었고 김구는 경무국장이었는데 손정도와 인연이 깊은 강병석목사가 《애국의연금》을 모아가지고 상해로 갔을 때 김구도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아, 일은 참 공교롭다. 결국은 내가 강랑옥의 지식들뿐 아니라 그 선량한 강병석목사까지?!...

김구는 자리를 고쳐하며 눈을 번쩍 떴다. 드디어 승용차가 평양 시내에 들어섰던 것이다.

4

평양중심부에 자리잡은 창전동숙소는 오후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날 오전 그곳에 러장을 푼 김구일행은 점심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음날 련석회의참가를 위한 준비로 바빠 돌아갔다.

점심때 평양랭면 한그릇을 제격 해치운 김구도 숙소정원의 나무그늘아래에 놓인 의자에 앉아 종항으로부터 련석회의 일정을 간단히 청취하였다.

그때 김구의 수행비서가 쟁걸음으로 다가와 김구에게 손에 든 문건을 내밀었다.

《뭔가?》

《위원장님, 빨리 우리 한독당 대표들의 평양도 착성명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착성명?! 암, 서울출발성명문을 낸바엔 평양도착성명문도 크게 내야지. 김구는 수행비서가 가져온 성명문을 집어들었다. 그사이 몇몇 필진측근들이 초를 잡은 것이었다. 인차 김구앞에 자그마한 원탁도 놓여졌다.

김구는 탁우에 팔굽을 고이고 돌보기를 코에 걸었다.

《민족국가의 자유독립을 위해 수십년간 분주히 노력한 애국적력량의 소산인 우리 한국독립당 대표전원은 통일정부수립과 단일민족국가의 창출을 목적인 남북정치지도자들간의 정치협상을 위해 금일 4월 20일 오전 평양에 도착하였다. ...》

성명문은 첫 문장부터 한독당의 당당한 위세가 진하게 풍겼다.

그러나 왜서인지 김구의 눈에는 그것이 마치 38도선에서 만용을 부리던 자기의 목소리처럼 느껴져 슬며시 눈을 내리깔았다.

실지 그때 김구의 시선은 성명문에 가있었으나 생각은 자꾸 오전에 만나뵈온 김일성장군한테로만 향했다. 이날 오전 김구는 숙소로 도착하자바람으로 례의도 차리고 위세도 시위할겸 종항을 앞세우고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갔었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보통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김구는 종항으로부터 련석회의일정을 료해하면서도, 방금 성명문을 마주하고서도, 지금도 마음속 한쪽에 《김일성》이라는 존함 세글자를 새겨놓고 감탄부호와 함께 의문부호도 연방 떠올리고 있었다.

30대라, 정말 상상박이야. 어쩌면 그렇듯 젊은 나이에 남북정치지도자들의 정치협상이라는 것처럼 복잡하고 방대한 세기적위업을 이룩해낼 구상을 다 했을가. 하긴 그런 인물이니 일제때 군경들이 등지른 보천보도 답새겼고 그래서 그때 중경에 있던 우리 립정이 김일성빨찌산과 항일련합을 하자고 련락원 리충모에게 립정의 명의로 쓴 편지까지 휴대시켜 동북지방에 파견한 적도 있었지.

김일성장군이 우리 한독당대표들이 들 숙소를 평양에서 제일 고급한 이 창전동숙소로 정해주고 어제 저녁 숙식조건이 어떤가 나와봤다는 말도, 간밤에 우리 일행이 38도선에서 발목을 묶이었던 일을 두고 북조선 내무국 고위인물들을 엄하게 신칙했다는 말도 랑설은 아닌 것 같다.

하다면 뭇때메 김일성장군은 북조선사람들이 그리도 미워한다는 이 김구를 후대하는가. 자신의 서기와 부관까지 다 내주면서...

김구는 성명문을 앞에 놓고 오전에 있던 일을 다시 한번 꼼꼼히 상기해보았다.

...

김일성장군님께서 두루마기자락을 펴려이며 마주오는 김구를 알아보시고 두팔을 벌리시었다.

《김구선생, 고향의 몸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위해 먼길을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제 김구선생도 오셔서 이번 련석회의가 더욱 빛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리승만의 〈독축〉과 김성수의 〈한민당〉을 제외하고는 남북의 애국적정당, 사회단체가 다 참가했습니다.》

김구는 장군님의 뜻밖의 환대에 자기를 주체하지 못한채 어쭙게 웃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장군.》

장군님께서는 손을 내저으시며 《아아, 말씀을 낮추십시오. 젊은 사람을 앞에 놓고 장군, 장군 하면 웅색해져서 하고싶던 말도 다 못하겠습니다.》 하고 무릅없이 웃으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개최한 회의는 예비회의인데 김구선생일행이 도착하지 않아 하루 휴회했다고 하시면서 본회의 토의안건에 대해서도 세세히 알려주시었다.

그리고는 김종항과 리종산을 김구앞에 내세우고 《김구선생, 말을 들으니 려현에서 미처 정식 통성을 못했다고 하던데 이 김종항동무가 나의 서기입니다. 이번 회의기간 선생의 개인비서로 데리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저 군복입은 동무는 리종산이라고 빨치산출신인데 나의 부관입니다. 저 동무도 이번기간 선생의 호위부관으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김구가 자기때문에 그만 애매한 강량옥의 아들딸이 숨지고 자기와도 면식이 있는 강병석목사까지 침상에 눕게 되었다는데 대해 얼핏 내비치면서 이제 강량옥에게는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당장 강병석목사한테 병문안을 가겠다고 했을 때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강량옥선생은 다 이해하셨을겁니다. 그러니 그에 대해선 더 마음쓰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강병석목사에게 면회가는 일은 후날로 미루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남북의 대표들이 민족주의운동의 로장이며 영향력이 큰 김구선생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 선생이 강병석목사의 그 정상을 보시면 안색이 밝아질것 같습니다. 절대로 밝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큰일을 하셔야 할 선생이 밝은 모습으로 회의장에 등단하셔야 련석회의도 잘돼나가겠는데 괜히 그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니 회의를 필한 후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

...

생각에 잠겼던 김구는 또 한번 속으로 탄복했다. 군자는 이덕복인이라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확실히 **김일성** 장군은 달라. 그런데 이전에 내가 부딪쳐본 《상해파》나 《이르꾸썬크파》 공산당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놀아뒀던가.

김구는 물 묻은 바가지에 깨알 엉켜붙듯 하는 생각을 밀어버리며 탁우에 놓인 종이장을 다시 펼쳐들었다. 빨리 한독당대표들의 평양도착성명문을 발표하여 남북의 동포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윽하여 김구는 수행비서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

《성명문 기틀은 그냥 두고 일체 미사려구같은 군더더기는 다 그어버리게. 특히 북조선의 실상을 찬미하는듯 한 냄새가 풍기는것들은 죄다 삭제해야겠소. 리승만이나 김성수에게 언질을 잡힐 필요는 없어. 더우기 아직은 우리의 정치담판이 시작되지 않았으니 해박야 좋다, 그르다는 답도 나올게 아닌가. 자고로 물은 건너박야 알고 사람은 지내박야 안다고 하지 않았나.》

5

김구는 장밤을 잠자리에서 뒤척거리었다. 저녁식사후 뜻밖에도 김제원이 창전동숙소를 찾았는데 50여년만에 이루어진 황해도출신들의 상봉은 김구의 가슴에 커다란 파문을 던져놓았던것이다.

두엄이나 주무르며 소달구지나 몰출 아는 농군이 인민회의의 대의원이라면 《국회의원》이라는 말인데 과연 이런 세상도 있는가?! 내가 옛날 무지렁이라고 내버렸던 그 김제원이 인민회의의 대의원이 되어 국사에까지 참여하다니... 그리고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마주앉은 협상마당에 로동자, 농민들도 똑같은 자격을 가진 대표로?!... 내 정치방식에 뭔가 허점이 있는것 같구나! 불쑥 그의 귀전에서 김제원이 하던 말이 메아리를 일으켰다.

《김구선생, 뭉치면 바위가 되고 흩어지면 모래알이 됩니다. 이 건 내 소리가 아니고 **김일성** 장군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김구는 끝내 이부자리를 건너차고 일어났다. 불도 켜지 않은 침실안을 한동안 오락가락하던 그는 창가로 다가섰다. 창너머 봄의 훈향이 진동하는 푸릿한 밤하늘가에서는 등시렇게 부푼 달이 구름장을 헤치느라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뭉치면 바위가 되고 흩어지면 모래알이 된다! 여태 범상하게만 여겨지던 이 말이 왜 이다지도 나를 압박하는가. ... 그랬구나. 내가 립정을 이끌고 장구한 세월 상해와 항주, 중경에서 방랑생활을 하다가 8.15후 슬프게도 렬세한 력량으로 서울에 입성하지 않으면 안된 비극의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었구나!... 이러느라니 문득 머리속에서는 장경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장경수, 그도 해방전에 내가 차버렸지. 그래서 흩어진 모래알이 되었다가 종당에는 총알이 날아오는 편으로 달아났고. ...

김구가 생각의 갈피에서 끄집어낸 장경수는 립정의 쟁쟁한 중진의 한사람이었는데 립정이 중경에 정착하고있던 때 련립정부개각에 대한 김구의 립장에 지지표를 내지 않는것으로 해서 립정밖으로 쫓겨났다. 그후 서울에서 이리저리 떠돌던 장

경수는 해방직후 김성수의 《한국민주당》 추녀 밑에 들어가 한자리하면서 립정의 서울입성을 방해해나섰고 김구를 비방중상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러다가 1947년 12월초에 자기의 경호원인 종로경찰서 경사가 쏜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다. 이때 미군정과 남조선경찰은 이것을 한국독립당의 테로로 광고하면서 김구를 《장경수암살사건》의 배후조종자로 몰아 미군정 군사재판정에까지 끌어낸적이 있었던것이다. (물론 김구의 공명정대한 항변에 풀려나오긴 했지만.)

이날 밤 김구는 김제원과 장경수의 판이한 인생행적을 꼭꼭 짚어보면서 배척으로 일관된 자기의 정치방식의 단점을 의식했고 단합을 기초로 한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방식의 장점을 어렵뜻이나마 리해하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측근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지난날 너무 찌부러진 눈으로 이북의 정책과 현실을 대해왔던것 같소. 정작 와보니 이 백범의 눈에도 생각했던바를 뒤집어엎는 실상이 적지 않게 보이오. 그러니 제군들도 집착했던 관념에서 탈피하고 협상마당에 들어가서도 언행을 삼가하길 바라오.》라는 훈시까지 하였다.

종항은 무등 기뻐다. 갱생의 문어귀에 들어서는 김구를 보았기때문이었다.

하지만 김구는 역시 공산주의에 대한 편견이 웅이처럼 박혀있는 고집불통이었다. 련석회의에 참석하여 장군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다 이러하다면야 내가 왜 공산주의를 반대하겠는가.》하고 바른소리도 하는것 같았지만 북조선의 정치실상을 바닥까지 알고 접어들어야겠다는 생각만은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측근부하들을 몰래 평양주변농촌마을에 파견하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신자인 도산 안창호의 누이동생 안신호를 만나보기도 했으며 북조선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다는것이 진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밤중에 칠골교회당 문고리까지 잡아보았던것이다.

물론 종항으로서는 김구의 그런 행동에 리해가 갔다. 그러나 좋은 말도 세번 하면 싫어진다는 격으로 점점 눈에 거슬리었다. 그런 끝에 정말 골머리를 앓는 일도 생기었다.

그 일은 련석회의의 3일회의가 진행되던 날 낮에 있었다. 그날 오전회의에서 한국독립당을 대표하여 축사까지 한 김구가 득의양양해서 숙소로 돌아올 때였다.

김구는 어느때와 달리 시내구경을 좀 해야겠다며 가루개장마당쪽으로 차를 몰게 하였다. 그런데 승용차가 공설운동장이 보이는 네거리를 막 벗어나려는데 급히 소리쳤다.

《가만, 운전사. 차를 좀 세우게.》

운전사옆좌석에 앉았던 종항이 뒤를 돌아보니

차창을 반쯤 내리운 김구가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건늬길쪽으로 눈총을 겨누고있었다.

무엇때문일까? 혹시 면목이 있는 사람일까? 그러나 그런건 아니었다. 김구의 시선이 박힌 곳에서는 전보대같은 3명의 쏘련군 군인들이 서성대고있었다. 그앞에는 경무원완장을 두른 다부지게 생긴 2명의 인민군병사들이 서있는데 쏘련군 군인들의 신분증을 들고 뭐라뭐라 이야기하고있었다. 쏘련군 군인들이 단속당한 모양이었다.

《김비서, 저게 로쓰께군대지?!》 김구가 물었다. 쏘련군대가 옳은가 하는 말이다.

《맞습니다.》

김구는 한동안 쏘련군인들을 뚫어지게 주시하다가 머리를 끄덕이며 《음—》하고 신음소리 비슷한 소리를 냈다. 입가에서는 알릴락말락한 비웃음이 떠돌았다.

종항은 정신이 편뜩해졌다. 이태전 초 김구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반대》 구호를 내흔들며 《북조선은 쏘련방이나 다름없다.》 하고 목에 피대줄을 세웠다는 사실이 상기되었던것이다.

(그러니 아직도 그때의 심리까?! 쏘련군대가 활개치고있는것이 북조선의 현실이라는걸 눈으로 확인했단 그 뜻이지?! 겉으로는 침발린 소리를 하고 속으로는 탄 장난을 꾸꾸는 흥측한 평감!)

종항의 이런 생각에 기름을 치고 성냥을 그어댄 것과 같은 일은 그다음에 있었다.

김구는 운전사에게 차를 쏘련군인들이 서있는 쪽으로 바투 대라고 이르고는 수행비서에게 사진기를 꺼내라고 지시하였다.

《북조선군과 그앞에 서있는 저 로쓰께들의 모습이 똑똑히 나오게 찍게.》

김구의 지시에 따라 일은 눈깜박할 사이에 진행되었다. 길가던 사람들은 좋은 구경거리를 만났다고 모여들고 경무원앞에 서있던 쏘련군인들은 눈이 켜해졌다. 문제는 문제였다. 그렇다고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할수도 없었고 쏘련군인들에게 빨리 사라지라고 소리칠수도 없었다.

고양이뿔이라도 걸어쥐었다고 생각했던지 김구는 흠뻑해서 아무 말도 없었다. 눈을 반쯤 감고 승용차 뒤좌석에 기대인채 무슨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이때부터 종항의 머리속에서는 저 평감이 속에 탄주머리를 차고있구나 하는 생각이 요동을 쳤다. 그러나 아직 련석회의가 채 끝나지 않았고 남북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도 있으니 좀더 두고보자는쪽이 우세하여 입을 꼭 다물었다.

그날은 련석회의도 끝난 후인 5월 2일, 화창한 봄날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오전부터 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인사들과 함께 경치좋은 쪽섬으로 나가 모임을 하시었는데 모임에서는 당장 박두한 리승만의 《5.10단선》을 어떤 방법으로 저지파탄시키겠는가, 리승만이 끝끝내 미제를 등에 업고 망국단선을 강행하는 경우 통일적인 민주주의정부수립을 위한 전조선적인 민주선거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할 것인가, 북에서와 달리 남에서 간접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적들의 방해책동을 어떻게 물리치겠는가 하는 문제들이 심중히 토의되었다.

그런데 모임이 한창 열점을 띠고있을 때 김구가 자기의 조폭한 성미를 드러내어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었다.

《아니, 아니, 뭘 그렇게 음니암니 자꾸 따질게 있나? 이제는 우리 남북의 정치지도자들이 이렇게 뭉쳤는데 정면으로 완력행사를 해야 하오. 그따위 허재비같은 리승만이 뭐가 두렵고 코큰 양키가 뭘 무섭겠나.》

종항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어이쿠, 저 령감이 또?!...

결에 앉았던 김구식이 듣다못해 김구의 넙적다리를 쿡쿡 찔렀다. 했으나 김구는 제 말이 옳지 않는가고 돋보기속의 눈알을 굴리며 헛기침까지 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김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었다.

《김구선생의 그 투쟁기세만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주먹치기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경적필패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묘한 방책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선생들이 다 민족주의세력들이므로 가능한 한 합법활동을 해야 하느니만치 《5.10단선》 반대투쟁이나 반미통일전선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단체명칭부터 〈독립촉성회〉, 〈통일촉진협의회〉 이런 식으로 내걸고 나서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야 놈들의 정면탄압을 피할수 있고 령량을 보존할수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련공합작의지를 표명하는 경우에도 참가는 못하지만 반대는 안한다는 뜻으로 〈불참가, 불반대〉 구호를 내걸어야 합니다.》

순간에 호응이 일어났다.

《웁습니다, 장군님! 그게 정말 묘안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주의세력들이 활개를 치며 합법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장군님을 우러르는 김구의 느즈러진 눈시울이 가늘게 찢어졌다. 파시 거인이시로구나! 내가 왜 이런분을 이제야 알게 되었는가. 아— 반세기전에만이 나라에 이런 거인이 내렸더라면 절통한 동학란의 피눈물도, 실국에 통탄한 리준의 할복극도, 서글픈 립정의 방랑길도 없었을것이 아닌가. ... 이제

는 됐다, 됐다! 김구는 무릎을 철썩 치더니 정좌하고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장군님, 이 김구는 **김일성**장군님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입니다! 나는 장군님의 공산주의와 끝까지 합작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김구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나도 찬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시원한 강가에 나가서 휴식도 하고 저 원두막에 올라가 장기도 들시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이렇게 되어 이날 쪽섬에서 가진 협의회는 즐거운 야유회로 이어졌다. 점심참에는 장군님을 가운데 모시고 소박한 야외오찬도 벌어졌는데 버드나무 그늘밑 돛자리에 놓인 길다란 상우에는 구미가 도는 어죽과 송어회를 비롯한 물고기료리들이 올랐다.

장군님께서서는 남조선인사들과 축배잔도 쥘어 주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이번에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대동강의 이름난 물고기료리를 대접하고싶어 이렇게 차렸는데 사양 말고 많이 드십시오. 통일위업을 위해 모두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뒤순배 돌아가자 입이 헤퍼진 김구가 장군님곁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장군님, 이 대동강송어맛이 참 별맛입니다. 나도 옛날 일본순경들의 추격을 피해 룡악산 근방에 있는 절간에서 중노릇을 할 때 대동강송어맛을 가끔 보곤 했는데 그 맛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자 장군님께서서는 《아, 중도 사람인데 왜 송어료리의 별미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중들은 비린것을 입에 대지 않는다고들 하던데 그때 목탁을 두드리던 김구선생이 송어맛을 보았다는걸 부처님이 알았더라면 대노했을겁니다.》 하고 부러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좌중에서 웃음통이 터져올랐다.

그런 속에서 김구의 말이 또 걸작이었다.

《장군님말씀이 웁지요. 이 사람이 그때 송어를 잡아먹은것을 누구도 몰랐기망정이지 알았더라면 경을 치고 절간에서 당장 팔겨났을겁니다.》

또 한바탕 폭소가 터져올랐다. 정말 누구나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피가 통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김구는 이번에는 아예 장군님쪽으로 돌아앉아 그이의 손을 꼭 붙잡고 가슴속 진정을 쏟아놓기 시작하였다.

《장군님, 오늘 이렇게 장군님과 함께 들놀이까지 하고보니 정말 생각되는바가 큼니다.

장군님, 내가 이번에 평양에 와서 제일 감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장군님께서서는 흥미진진한 태도를 보이시었다.

《그게 뭐니까?》

《뭘고하니 우선 거리에서 인민군경무원들이 키가 커두룩한 쏘련군 군인들의 증명서를 검열하면서 단속하는 광경이었습시다. 이남같은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서울에선 미국군대가 판을 칩니다. 그 코 크고 눈 푸른 노랑대거리들이 〈헌병〉 완장을 끼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남민중은 물론 〈국군〉 까지 쥐락펴락합니다. 얼마나 상반되는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복은 자주요, 남은 예측이 아니고 뭐니까. 그래서 난 그 장면을 이남사람들에게 보여주자고 사진을 찍어두었습시다.》

결에서 김구의 말을 듣고있던 종항은 한방망이 얻어맞은 사람처럼 뺨뺨해졌다. 아하, 그래서였구나! 그런데 난 속으로 탄 쾅쾅이를 하는 령감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했었지, 헛참.

종항은 당장 김구의 손을 붙들고 자기가 오해했던 그 심정을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장군님앞이라선뜻 그럴수도 없었고 더우기 김구가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장군님, 나는 황철에 가보고서도 내심 감탄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고 제손으로 시벨진 쇠물을 팔팔 뽑아내는데 그게 어디 보통일입니까? 그러나 이남은 영 망태기입니다. 이남에도 체첸소라는게 있는데 접때 가보니 쇠물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참.》

장군님께서 김구선생이 오늘에야 세상을 바로 보고있다고 그의 말을 긍정해주시었다.

홍분한 김구는 쏘고싶던 말을 죄다 쏟아놓을 잡도리였다.

《다음으로 감심한건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좌상으로 존대하는 김월송이 이번 련석회의 개회사를 한 사실인데 말에 의하면 장군님의 제의로 그리된거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민족주의자들을 믿어도 크게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뭐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들인데 계속하십시오.》

《에— 그다음에는 내가 잘 아는 신자 안신호와 농사군 김체원이 다 국사를 론하는 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 립정에 있던 리종익이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을 하는 사실과 민족주의자인 반일부대 두령 량세봉의 자손까지 학원에 데려다 공부시키는것을 비롯해서 하여간 보는것마다, 대하는것마다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했습시다.》

장군님, 터놓고말해서 난 정치를 찾아왔다가 인덕의 기둥을 만났습시다. 인덕으로 배달민족을 묶어세우시는 **김일성** 장군님이라는 기둥을 말입니다.》

장군님께서 웃으시며 김구를 두팔로 꼭 껴안

으시였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어 우리 함께 끝까지 손을 잡고 통일적인 민주정부를 세우는데서 할바를 다합시다.》

시간은 흘러 일행은 뜻깊은 좌석에서 일어섰다.

장군님께서 김구, 김규식을 량옆에 세우고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며 나루배가 정박해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뒤로 일행이 따라섰다. 비단필같은 하얀 물안개가 그물그물 피어오르는 풀썩을 헤치시던 장군님께서 갖가지 꽃들이 향기 풍기는 속에서 봄나비들이 팔랑거리는 란만한 쑥섬의 풍치를 쪽 둘러보시며 명상에 잠겨 말씀하시였다.

《김구선생, 김규식선생, 얼마나 좋은 봄날입니까.》

《네, 참 좋은 봄날입니다.》

《정말 잊지 못할 봄날입니다.》

장군님께서 김구, 김규식의 손을 꼭 잡으신채 다시금 풀썩을 헤치시였다.

섬기슭 물가의 크지 않은 나루배에는 뜻밖에도 강랑옥이 사공로인과 함께 노대를 잡고 서있었다.

《아니?! 강선생이 어떻게...》

《장군님, 이런 배의 노대야 저같은 사람이 잡아야 제격이지요.》

《그것 참 명답입니다. 하하하...》

장군님께서 웃으시니 강랑옥도 웃고 김구도 웃고 김규식도 웃었다.

일행은 쑥섬으로 들어올 때처럼 장군님을 모시고 배에 올랐다. 맑고맑은 대동강물결이 철썩철썩 배전을 감돌며 어리광을 친다. 하늘에서는 밝은 태양이 햇슴같은 구름사이로 눈부신 해발을 줄줄이 늘어놓는다. 어디를 보아도, 누구의 가슴을 들여다보아도 환희에 웃는 봄날이 숨쉬고있었다.

장군님을 한가운데 모시고 쑥섬기슭을 떠난 배는 평천나루쪽으로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배우에서는 걱정외 파도가 일었다.

예로부터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한배에 탔다.》고 말해오지 않았던가. 아아, 드디어 북과 남이 한배에 탔다! 민족자주를 라침판으로 삼고 애국애족, 민족대단결을 추진력으로 하는 배! 통일조선의 령수 **김일성** 장군님을 진두에 모시고 민주번영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배!...

만경봉쪽의 하늘가에서 꾸르릉— 하고 봄우뢰가 울었다. 그랬다. 그 봄날에 전조선적인 중앙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자주의 산아가 30대의 민족의 영웅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서 태동하고있었다.

비날론은 수령님의 기쁨

김 재 원

1

언제부터 너의 이름
내 가슴속에 깃들었더냐
비날론 비날론
2. 8비날론!
새파란 병사시절
사단전우들과 함께
목고채를 메고 흙집을 지고
갈대 무성한 진펄길 달리던 그 나날
내 심장에
조국의 이름처럼 새겨진 그 이름
그 시절 나는 다 몰랐노라
비날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화학의 그 신비한 세계
하나 그것만은 똑똑히 알았노라
경애하는 우리 수령님
돌에서 숨을 찾아낸 한 과학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그 품에서
비날론이여 네가 첫 고고성을 터쳤음을

2

비날론양복을 펼쳐입고
결혼식사진을 찍던 세대들이여!
그 시절 비날론은
우리의 기쁨이고 생활이었지
갓 태어난 아이들은
따스한 비날론숨이불속에서
행복의 단꿈을 꾸었고
한날한시 새 교복을 펼쳐입은 학생들
비날론노래 부르며 교문으로 들어설 때
비날론 너는
온 나라에 비끼는 사랑의 무지개였다
우리 인민의 지혜와 재능
세계를 굽어보는 자주정신
우리 수령님 이 땅에 남기신
따사로운 사랑의 열과 빛이었다

3

말하라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아 번쩍이는 합성탑들이여!
지구의 둘레를 두번 휘감을
은백색배관들이여

너 어떻게 이 통홍벌에
다시 펼쳐질수 있었느냐
말하라 하얀 함박눈마냥 쏟아져내리는
비날론숨폭포여
너 정녕 어디서 쏟아져내리느냐
우리 인민들과 함께
고난의 언덕을 헤쳐온 우리 비날론
원썩들의 악랄한 봉쇄책동으로
불꺼진 비날론지구
이 모든것을 보시며 걸으시는
장군님의 심중 얼마나 아프셨으랴
비날론의 운명을 지키는 결사전
이것은 우리 수령님 남기고 가신
사랑의 유산을 지키는 결사전이였다
사회주의운명을 지키는 수호전이였다

4

폭포치는 비날론이여
너는 세계앞에 증명하였어라
목숨 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
백두령장 따르는 길은 언제나 승리만 있다는 진리
폭포쳐내리는 하얀 비날론은 승리의 숨
그앞에서 누구나 찬탄의 목소리 터친다
비날론이여 너의 새로운 탄생은
온 나라의 대경사
비날론이여
너의 천필에
우리의 신념 물들여
우리 수령님 만세
우리 장군님 만세의 글발 새겨
창공높이 추켜들고
강성대국 그 언덕으로
힘차게 억세계 걸어가리라

5

하얀 비날론숨 가득 싣고
우리 장군님 야전차
평양으로 평양으로 달리리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자신의 천만고생 이것으로 다 푸신듯
온 나라의 경사를 가득 싣고
온 나라의 만세소리도 모두 싣고
수령님께 기쁨의 보고 드리리

수령님앞으로 가까이 가까이 다가가시리
 -어버이수령님
 우리의 로동계급이 생산한
 우리의 새 비날론입니다!...
 마음속으로 뜨거이 아뢰이는

장군님 그 목소리 기쁘게 들으시며
 아 아 우리 수령님 더 밝게 웃으시는듯
 그 미소 강산에 해살처럼 비껴
 비날론 나의 조국은 더 눈부시게 밝아져라

담 시

비날론과 산삼이야기

- 한 과학자의 수기 중에서 -

김 형 준

이것은 반세기전 이야기
 장군님사랑속에 영원할 이야기...

우리 수령님 몸시도 기쁘시였네
 돌에서 숨이 나온단 말이지...
 돌에서 비단이 쏟아진단 말이지...
 얼마나 슬기로운 우리 인민인가
 그의 애국심은 얼마나 장한가

벌써 몇번째로 만나주시고
 그의 발명에 찬사도 아끼지 않으시며
 꼭 돌에서 비단을 뽑아 입는 문제 해결하자고
 내가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그에게 힘을 주고 사랑을 주신 수령님

우리 수령님 가실 곳 만나주실 사람
 얼마나 많고많으시었던가
 그러나 비날론은 국사중 국사이신듯
 비날론은 입는 문제의 운명이신듯
 순간도 잊지 않으시던 어느날이었네

비날론공장건설정형을 알아보시던 수령님
 리승기선생의 안부를 물으시였네
 지금 리승기선생이 잘 있는가고
 우리에게는 비날론도 귀중하지만
 그와 같은 애국자 과학자가 더 귀하다고

일군은 바재이며 말씀드렸네
 밤낮없이 일하던 리승기선생
 지금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라고
 인차 회복되어 다시 일할수 있다고
 어버이수령님께 말씀드렸네

그의 이야기 듣고나신 수령님
 안색을 흐리시며 말씀하셨네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는가고

그와 나는 수령과 전사이기 전에
 나라를 위한 애국의 동지라고...

그날 수령님 그에게 보내주셨네
 강원도인민들이 수령님께 올린 두뿌리의 산삼
 어서 건강을 회복하고 소원을 풀라고
 선생은 나와 함께 나라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는 친서와 함께

돌에서 비단을 뽑으려는 그의 꿈이 죄가 되어
 이역에서 남녘에서 막돌로 버림받던 그
 그 청운의 꿈을 돌밑에 짓뭇아버린 그를
 사선천리 헤쳐 자신의 몸가까이에 불러주시고
 비날론발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

그날 수령님 한 과학자에게 보내주신
 두뿌리의 산삼과 사랑의 친필편지
 그것은 그의 불사약이 되었네
 그것은 비날론의 닳이 되었네
 그것은 비날론의 력사가 되었네

그날 우리 수령님 보내주신 두뿌리의 산삼은
 억만금 들여도 피울수 없고
 천만년 세월에도 피울수 없는
 돌에도 꽃을 피우는 수령님사랑이었네
 돌에 닳과 정을 주어 피운 비날론꽃이었네

그는 온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웨치였네
 우리 수령님 몸소 이롭게해주신 비날론은
 한 과학자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민족의 어버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
 이 땅에 태어난 조선의 꽃입니다!

아 이것은 반세기전 이야기
 장군님사랑속에 영원할 이야기...

비 날 론 이 쏴 아 진 다

홍철진

조선의 푸른 하늘가에 대경사의 환희가 메아리 쳐간다.

소담히 내린 하얀 눈처럼 티없이 깨끗하고 정갈하고 순결한 비날론을 안고 선군조선이 또 한번 젊음을 자랑하고있다.

어제는 우리의 위성이 하늘을 날아 기쁨의 환희를 터쳤고 첨단을 돌파하는 CNC의 열풍으로 어깨가 으쓱해지더니 철갑상어가 바다로 가는 희한한 사변까지 펼쳐져 이 땅에는 기쁨의 샘이 터진 변이 났다.

거기에서다 층층이 기쁨을 주체철로 든든히 기둥까지 받쳐놓았으니 이제는 마음놓고 하늘높이라도 행복의 탑을 쌓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기쁨들에 비날론을 입혀 조선의 부귀영화가 어떤것인지 세상에 보란듯이 자랑하게 되었으니 우리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려온 오늘의 환희인가.

오늘을 위해, 이 비날론기쁨이 조선의 모습으로 되게 하시려 우리 장군님 마음쓰신 해와 달은 얼마이며 겪으신 로고는 그 얼마였던가.

비날론섬유가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금방 오셨던 그 길로 비날론을 찾아 또다시 수천리길을 달려오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보았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우리의 주체섬 비날론앞에서 너무도 기쁘시어 만단시름 다 잊으시고 세상이 한껏 밝아지게 환히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의 영상을.

무게무게 피어난 비날론솜을 높이 드시고 이제는 아버지수령님의 념원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비날론옷감을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고, 비날론이 대량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이며 온 나라의 대경사라고 힘있게 말씀하시던 장군님의 격정에 넘치시던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팡팡 두드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은 결국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는데 있습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온 나라에 사회주의 만세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질수 있으며 강성대국의 대문이 열려 질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 어찌 다 알수 있었으랴.

입가에는 환한 미소를 담고계셨건만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대비할수 없는 가장 고귀한 눈물이 흐르고있었다는것을.

그 눈물은 자나깨나 한시도 잊으신적 없는 아버지수령님께서도 달리는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충정의 세계였다.

수령님과 비날론.

떨레야 떨수 없는 유기체와도 같이 수령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는 우리의 비날론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비날론이었다.

1960년대 수령님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태어난 우리의 비날론.

비날론은 조선사람이 발명한 섬유이고 공장을 설계하고 건설한것도 조선사람이며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로 생산할수 있기때문에 비날론공업이 야말로 완전한 주체공업이라고 말씀하시며 생전에 그렇듯 자주 찾으시여 굴지의 종합적인 대화학기지로 전변시켜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몸소 이름지어주신 《비날론》이란 말만 들어도 우리 인민은 수령님 생각에 눈굽부터 젖어든다.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까지 두르고 살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시며 요람속에 인민을 재우시고 수령님 가고가신 밤길은 얼마이며 그 길에서 맞으신 찬비와 눈바람은 또 얼마였던가.

수령님 맞으셨던 그날의 흰눈이 차마 녹지를 못하고 수령님의 념원으로 굳어진듯싶은 우리의 비날론이다.

수령님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어 양털이나 목화솜보다 더 포근하고 따스한 우리의 비날론이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강그리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 한평생의 한 부분과도 같은 비날론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행복으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이었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걱정을 몰랐던 그 나날엔 복속에서 복을 모르듯이 이 비날론의 무게를 우리 그때 다는 몰랐다.

고난의 찬서리에 이 땅이 얼어붙던 나날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봉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날론도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 어머니들의 잔등에 업힌 아이들의 그 고사리같은 손에 사랑알조차 푹푹히 쥐여주지 못하던 어머니들의 아픈 세월이 이 땅에 흘렀다.

그 아이들을 달래일 사랑알보다 총알이 더 귀했던 피어린 격전의 나날이어서 비날론은 숨죽은채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삭막해졌고 비날론이 다시 일떠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다.

허나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서만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에 계시며 전선에서 전선으로 질주하시면서도 비날론, 너만은 한시도 심장에서 내려놓으신적 없으시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고 반드시 잘살날이 온다, 그때에는 고난을 겪은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리라.

비날론은 이렇게 장군님과 전선길을 함께 달렸다.

비날론은 이렇게 다시 소생되었다.

영영 꺼질뻔 했던 비날론에 피를 주시고 열을 주시고 온넛을 바치시여 안아일으키신 우리 장군님은 진정 비날론의 위대한 은인이시었다.

우리 잊지 못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8월 《삼복철강행군》을 단행하시여 폭양과 폭우를 헤치시며 우리 장군님 걸으셨던 비날론지구의 구내길을.

아직은 비날론이 눈앞에 보이지 않았건만 우리 장군님 마음속에선 이 땅에 펼쳐질 비날론폭포가 태동하고있었다.

비날론의 래일을 그리시며 장군님은 기쁨에 넘쳐 걸으시건만 인민의 마음속에 밝혀오는 그이의 거룩한 자욱자욱은 력사에 류례없는 헌신의 길이였다.

인민이란 두 글자에 자신의 희생을 고이 묻으시고 그 누가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시며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용해시키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었다.

다음해 5월 새로 개건된 비날론중간체생산공정들에서 제품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장군님 비날론지구를 찾아 수천리밤길을 달리실 때 인민은 그 사연을 알지 못한채 행복의 요람에서 잠들고있었다.

우리는 너무도 모르고 살았다.

장군님 바라신 소원의 한끝에 비날론이 있었고 장군님 바쳐가신 헌신의 분과 초에 비날론이 함께 감겨지고있었음을.

비날론은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끝없이 바쳐가시는 사랑의 전부였다.

하기에 지난해 11월 또다시 비날론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일떠세우겠는가 하는 생각밖에 없다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그렇듯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비날론이라고 조용히 입속말로 불러만 봐도 우리 장군님의 천만고생이 떠올라 목이 콕 메이는 우리 인민이다.

우리 장군님의 심장속에 비날론이라는 이름이 조선으로 간직되었다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비날론 그 이름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 먼저 떠오르는 대명사로 간직되어있다.

비날론이 태어나 걸어온 길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에 의해 놓여진 주체의 궤도, 사랑의 자리길이다.

그때문에 비날론은 수령의 력사속에 태어난 위대한 창조물이라고 우리 인민은 긍지높이 이야기하는것이다.

이제 비날론으로 이 땅이 뒤덮일 래일을 그려보라.

누구보다 맵시를 잘 아는 우리의 처녀들이 갖가지 문양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거리에 나선다면 이 땅은 얼마나 밝고 아름다울것인가.

눈발같이 하얀 비날론솜으로 시집가는 딸자식의 이부자리를 욕심대로 꾸며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 풀린 웃음은 그 멋으로 또 장관이다. 경공업 공장들에서 사랑, 파자가 폭포처럼 쏟아질 때 고난의 시기 배불리 먹이지 못한 그 봉창으로 사랑, 파자를 켜 우리 아이들의 두손이 모자란다면 주머니마다 불룩이 가득가득 채워줄 가슴벅찬 래일을 상상해보라.

비날론에서 뻗어갈 천가지, 만가지 기쁨이 우리의 눈앞에 바투 다가선다.

수령님품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장군님의 열과 빛으로 무르익은 행복의 열매인 비날론.

비날론폭포는 곧 사회주의 위대한 승리이다.

우리 인민에겐 만복의 징표이고 원쑤들에겐 공포와 전율의 상징이다.

그대가 이 땅에 사는 공민이라면,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한다면 비날론을 사랑하라.

우리 장군님처럼 뜨겁고 열렬하게 심장을 바쳐 사랑하라.

우리는 비날론의 향유자이며 또한 비날론의 창조자들이다.

자기 손으로 가꾸고 자기 땀으로 걸군 기쁨이어서 주체조선의 환희가 그렇듯 공고하고 그렇듯 확신에 넘친것이다.

온갖 리상이 꽃피나는 조국에 비날론꽃으로 백화만발할 강성대국의 래일이 소리쳐 달려온다.

백두의 젊음이 기상으로 차넘치는 사회주의 내조국이며, 비날론꽃으로 백년을, 천년을 더 젊어지라. 무궁토록 길이 번영하라.

세계유모아

아들의 숙제

아버지; 《내가 어제 네 숙제를 도와주었는데 그래 선생님이 뭐라시더냐?》

아들; 《예, 선생님은 인차 알아맞췄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혼자서 숙제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많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해요!》

열매 주렁지는 땅

김 혜 인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창의고안 한건을 실현해도 사람은 누구라없이 열매를 따는 그 절정을 위하여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 투쟁과 창조의 열매들이 하나, 둘 내 조국땅 위에 주렁지고있다.

그 열매들이 날에날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드넓은 땅야를 채우고있다.

이 희열의 순간을 각일각 체험하며 사는 우리는 선군시대의 행복동이, 행운아들이다.

그날, 그날의 행운은 정말 뜻밖에 찾아들었다.

쌀쌀한 겨울바람이 대기를 짙짙 얼구던 2월의 어느날 아침 2.8비날론연합기업소취재의 길에 올랐던 우리는 뜻밖에도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아버지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가 활짝 열려진 비날론공장정문으로 들어가는 력사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았다.

수직방사직장에 찾아오시여 비날론중간제품시운전에 몸소 참가하셨던 우리 장군님이 아니시었던가.

금방 보고 떠나신 걸음이였건만 폭포처럼 쏟아지는 그 비날론이 다시 보고싶으시여 천금같은 발걸음을 돌려세우신 아버지장군님.

나는 지금 비날론숨앞에 서있다.

눈덩이같이 새하얀 비날론숨을 쏴어보고 또 쏴어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감격의 눈물을 머금으시던 바로 그 자리에 나는 서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절로 핑하니 눈물이 고이고 눈굽이 달아오른다. 아름답게 안아든 비날론숨을 만져보고 쏴어보고 불에 대고 부비여도 본다.

맛도 없고 아무런 냄새도 없는 무미무취의 숨이건만 어이하여 뜨거움에 젖는 이 마음엔 이 비날론숨이 그렇듯 달고 향기로운 열매로 안겨오는것인가.

고난의 그날에 씨앗을 뿌리고 시련속에서 애지중지 피땀흘려 가꾸어온 열매가 아니라면 안아보는 우리 가슴 이렇듯 뜨거울수 있으랴.

장군님! 16년만에 비날론이 다시 쏟아집니다.

사람들의 기억속에마저 희미해지던 비날론이 아버지장군님 덕분에 이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났습니다.

백두령장을 우리러 터치던 비날론로동계급의 불같은 심장의 웨침이 그대로 숨배여있는 주체숨!

비옥한 땅에서 순조롭게 키워낸 열매가 아니다.

령이나 다름없는 빈터우에서 온 세상이 보란듯이 다시 일떠선 사회주의승리의 열매였다. 때로 실패와 좌절의 찬서리가 내렸고 기술신비주의의 회오리가 몰아쳤다.

기초에서부터 생산공정에 이르기까지 선군시대 비날론공업, 비날론정신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총포성없는 대결전장이였다.

진정 《봉쇄》와 《제재》의 눈보라에 넘어질세라 신념의 버팀목을 든든히 세워주고 시련과 고난의 폭풍우에 휘청거릴세라 의지의 걸음으로 굳건히 떠받들어준 선군태양의 따사로운 그 빛발이 없었더라면 어찌 황이 든 나무에 새움이 트고 싱싱한 아지를 활짝 펼칠수 있었으랴.

정녕 그 빛발이다.

우리 인민에게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이고 비단옷을 입히는것이 평생의 소원이라시며 공업도시한복판에 비날론대도시를 보란듯이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대를 이어 꽃피워가시는 사랑의 그 빛발.

오늘은 수령님 남기고 가신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주시려고 초강도강행군이 라는 력사에 류례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며 비날론대국으로 향한 휘황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거늘.

선군의 그 빛발아래 고난속에 황이 든 나무에도 끝끝내 강성부흥의 꽃이 폈다.

마침내 거목으로 자라난 푸르싱싱한 나무는 화학공업의 CNC화라는 최첨단의 굵은 가지를 창공 높이 뻗치고 세계를 발아래 굽어보며 비날론이라는 알찬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렇다.

고생끝에 락이 왔다.

마침내 열매를 딸 시각이 왔다.

비 날 론

김 일 규

오랜 세월 헤어져
애타게 그리던 혈육을 만난듯
목매여 그 이름 불러본다
비날론—

기쁨과 반가움에
두팔 가득 벌려 안아보는 가슴에
포근히 살쫓이
련인처럼 안기건만

바친 피와 땀의 무게로
헌신한 로고와 세월의 무게로
너는 가볍지 않구나
모든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선군시대의 행복의 무게로
무겁게 안아보는 비날론이여

저도 몰래 샘솟는 눈물속에
눈같이 하얀 비날론숨에 얼굴 묻으니
홍벽을 치는 심장의 메아리
아버이수령님—
비날론이 다시 쏟아져나옵니다!

아 오늘을 위한
얼마나 시련에 찬 세월이 흘렀던가
얼마나 고귀한 의리와 충정의 나날이 이어졌던가
우리 장군님 전선길 어느 하루도
마음속에 잊으신적 없는 비날론
조국번영의 결사전에서

끝끝내 안아올린 선군의 꽃이여

내 나서 자라난 세월
비날론은 생활의 웃음이었고
계절 맞춰 새 교복을 받아안을 때
비날론은 온 나라에 피어나던
행복의 꽃이었다

자신이 누려온 행복의 그 이름이건만
고난의 언덕을 넘으며
잊혀지던 그 이름
변이 나는 이 세월
리상이 꽃피는 이 봄언덕에서
크나큰 경사로 안아보는
사랑의 비날론이여

오 비날론
아버이수령님품에서 태어나
우리 장군님 손길아래
너는 선군의 대지에 만발하게 피어난
강성대국의 꽃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웃음

그 꽃을 안고
그 웃음을 터치며
저기 보이는 강성대국을 바라보니
너는 벌써 그 대문안에
만발한 화원을 펼쳤구나

자력갱생의 나무에서 가꾸어낸 승리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일 력사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다.

어제는 성장의 주체철이, 오늘은 주체숨이 그리
고 래일은 또 얼마나 향기롭고 달디단 승리의 열
매들이 우리 인민을 기쁘게 해줄 것인가.

그렇다.

선군의 모든 승리가 인민생활가까이, 더 가까이
로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슴벅찬 환희가 눈앞에 있
다. 향기롭고 더없이 감미로운 그 열매들을 마음
껏 맛보며 소리치며 잘살날이 멀지 않았다.

나는 지금 뜨거운 격정에 사무쳐 하조기에서 폭

포처럼 쏟아져나오는 비날론숨을 넋을 잃고 바라
본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승리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애국애민의 그 사랑이
어려 무심히 바라볼수 없는 비날론— 그 승리의
열매에서 사회주의향기가 한껏 풍기어온다.

그 향기 온 나라 강산에 차넘쳐간다.

아, 열매 주렁지는 땅!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인민을 위한 천만가
지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인민의 나라,
만복의 강산, 사랑하는 내 조국이여!

문화전선에서 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게 하는것은 작가들이 지닌 시대적임무

최길상

지금 우리 작가들은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접하여 한없는 걱정과 신심과 락관에 넘쳐 창작적양양을 일으키고있다.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 통성번영하는 불패의 대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민족사적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온 위대한 항도자 어머니당의 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우리 작가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이번 공동구호에 관통되어있는 기본정신은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한 지난해의 자랑스런 성과에 토대하여 다시한번 최후승리를 위한 대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일대 변혁을 이룩하고 주체 101(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자는데 있다.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우리 대에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번 공동구호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하루빨리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려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확고한 의지가 구현되어있으며 강성대국건설대전전의 새로운 요구가 반영되어있다.

오늘의 대전투는 대고조의 승리로 위대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만방에 과시하기 위한 영예로운 진군이며 혁명적락관주의로 충만된 영웅적군대와 인민의 신심드높은 진군이다.

우리 작가들은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을 문학으로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리상을 실천으로 꽃피운 참된 전사, 제자로서의 영예를 떨치게 될것이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있다.

《주체의 강성대국은 발전된 문화를 가진 문명국이며 첨단돌파의 기상은 문화전선에서도 세차게 내려쳐야 한다.》

공동구호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21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선군시대문학의 첨단경지를 개척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가 리상으로 그려 오던 사회주의완전승리의 그날이 가까와 오는 오늘 우리 문학예술은 마땅히 혁명의 전진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인민들의 높은 문화정서적요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맥박치고있는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공동구호에는 현시기 우리 당의 구상과 의도가 담겨져있고 대고조전선을 지켜선 천만군민앞에 나선 투쟁과업과 방도들이 명백히 제시되어있다. 우리 작가들이 공동구호의 정신과 내용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의 대고조사상과 정책적의도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사업을 전개하고 밀고나갈수 있다.

모든 작가들과 창작지도일군들은 공동구호를 깊이 연구하여 거기에 담겨져있는 기본정신을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전선에서도 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내려치게 하며 새 세기의 혁신적안목과 19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을 발휘할데 대한 당의 사상과 의지를 심장으로 체득하고 창작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이 새 세기의 혁신적안목으로 오늘의 대고조시대의 생활과 인간을 보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의 문예사상과 미학관으로 현실을 보는것이다.

지금 공동구호관철투쟁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은 희세의 실력가형의 령도자이시며 특출한 실천가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진두에 서계시기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공세에서도 반드시 대승리를 거둘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준엄한 년대들마다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과 승리를 이룩하여온 영웅적투쟁을 통하여, 특히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속에서 강성대국건설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사변들을 안아온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거창한 현실이라는것을 뼈와 살로 새겨안았다.

우리 작가들은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대번영의 시기를 주체의 문예판의 견지에서 혁신적으로 보고 대고조시대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새로운 형

상을 창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인공을 내세워도 위대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대고조시대의 새로운 전형들을 적극 형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천만군민들로 하여금 오늘의 최후돌격전에서 시대의 영웅이 되고 선구자가 되는 비결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과 리상도 각오도 결음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무슨 일을 하나 설게하여도 장군님의 리상을 구현할수 있게 대담하게 목표를 세우며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막아서도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강행군길을 생각하며 기적을 창조하며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이러한 혁신적안목에서 시대와 생활을 투시하고 대고조시대의 전형들을 형상하여야 한다.

새 세기의 혁신적안목으로 시대와 현실을 보고 예술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대고조시대의 미학적리상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오늘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선군시대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대고조시대 사람들의 미학적정서적요구에 맞는 시대의 본보기적작품들이 창조되어 첨단의 경지를 개척해나가고있다. 특히 올해 은하수관현악단의 신년경축음악회를 비롯하여 새 세기에 창조형상된 음악예술작품들은 그 형식과 내용에서 새로운 경지로 하여 사람들의 감정정서를 틀어잡고 숭고한 미의 세계에로 이끌어가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미학관이 체현되어있는 본보기적예술작품들에서 새로운 창작적충동과 자극을 받아야 하며 문학작품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내용과 형식을 전면 혁신하기 위한 착상도 하여야 한다. 시대와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착과 공감, 열렬한 긍정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창작적충동을 간직하고 사색하고 탐구하는 작가만이 새 세기의 혁신적안목으로 형상을 창조할수 있다.

문학작품은 작가들의 높은 사상과 열정의 산물이다. 문학창작사업은 불타는 열정과 피타는 노력이 없이는 성공할수 없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창작하여야 한다. 지난 세기 70년대에 《20세기문예부흥》이 이룩될수 있는것은 우리 작가, 예술인들이 당을 믿고 당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높은 열정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창작전투를 긴장하게 벌렸기때문이다.

오늘 대고조시대의 요구로 보나 문학창작의 본

성적요구로 보나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 문학의 전반적실태는 작가들속에서 1970년대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창작하기 위한 전면적공세를 드세차게 벌릴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은 일찌기 우리 문학이 대상해보지 못한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살며 창작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실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새해벽두부터 대고조격전장들을 댈이러 현지도하고계신다. 장군님의 현지도강행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들이 어떻게 헌신분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으로 부르는 고무적기치이며 우리 작가들의 창작을 힘있게 추동하는 정신력의 근본원천이다.

작가는 우리 당의 문예정책을 옹호관철하는 사상전선의 기수이며 문학작품을 통하여 선군혁명위업에 복무하는 혁명가이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힘있는 사상적무기이다. 우리의 선군문학은 작가들의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선군위업에 대한 열렬한 헌신적복무정신에 기초한 높은 창작적열정에 의해서만 발전할수 있다. 작가들의 삶의 보람과 행복은 위대한 령도자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는데 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작가들속에서는 당과 인민앞에 지닌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잊어버리고 시대의 거창한 숨결에 자기 심장의 박동을 맞추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문학전선에서 첨단돌파의 기상이 나래치게 하려면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창작적의욕을 가지고 작품창작에 전념하여야 한다.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자각한 작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실하려는 불타는 열정과 깨듯한 랑심만이 문학전선에서 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할수 있으며 19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을 창작생활에 구현할수 있다.

문학전선에서 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독창성과 창작적주견, 대담성을 적극 발휘하여야 한다. 1970년대의 창조방식과 투쟁기풍은 독창성과 창작적주견, 대담성을 가지고 모든것을 주체의 미학관에서 보고 주체의 문예관의 요구대로 창작하고 생활하는데서 현실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히 대고

조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새로운 관점과 미학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새롭게 창조하기 위하여 피라는 탐구를 하여야 한다.

창작적주견과 대담성은 작가들이 문학작품창작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립장과 자세이다. 창작적주견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제 주견만 옳다고 고집하여서는 안된다. 창작적주견은 당의 의도와 군대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것이어야 하며 생활의 진실과 형상의 논리에 맞는것이어야 한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첨단돌파의 기상이 굽이치게 하기 위해서는 작가들이 새로운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를 깊이 하여야 한다. 사색하기 싫어하고 새것을 탐구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작가는 그 언제 가도 특색있고 깊이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작가의 창작적사색은 반드시 우리의 대고조현실에 대한 주체적관점과 립장에 기초하여야 한다. 오직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서서 대고조시대인간의 생활을 깊이 연구하고 창작적사색을 무르익히며 왕성한 열정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벌릴 때에만 오늘의 대고조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형상을 훌륭히 창작할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대고조시대정신과 동시대인들의 미학정서적요구를 옹계 감수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공동구호를 받아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서는 혁명의 붉은피가 펄펄 끓어번지고있으며 당의 전투적호소에 새 기록, 새 진군 속도창조로 열렬히 화답할 결의에 넘쳐있다. 작가들은 작품형상에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대고조전투를 힘있게 벌려나가는 시대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시대정신의 가장 예민한 촉수이며 대변자인 시문학에서 혁명적대고조의 기상이 맥박치

게 하는데서 선구자적기치를 들어야 한다. 시의 서정이 격정적이고 질풍같이 달리는 대고조의 기상으로 더욱 높이 고동쳐야 하며 시어를 하나 써도 전투적인 어휘들과 격동적인 시대어들을 형상생리에 맞게 적극 탐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총공격전, 총결사전, 최전선, 참전자, 돌파, 격전장과 같은 전투어휘들과 우리의 생활과 저도 모르게 친숙해진 변이 나는, 번개쳐, 최첨단돌파, 대진군, 폭풍쳐, 대혁신... 등 시대어들을 찾아 써야 한다. 대고조시대의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에 있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려는 사상적각오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이며 정치사상적측면에서나 정치도덕적측면에서 선군사상의 요구를 투철하게 체현한 새형의 인간,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지닌 시대의 영웅들을 높이 내세우고 형상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공동구호를 받들고 문학전선에 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것은 우리 당의 의지이고 위대한 대고조시대가 우리 작가들에게 부과하는 영예롭고 책임적인 임무이다.

우리 작가들은 비상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발은 이 땅에 굳건히 딛고 눈은 세계를 보는 만만한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하는 형상이 세상을 뒤흔들어놓고 자주적인류의 지성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며 영향을 주는 명작창작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할것이다.

모두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문학전선에서 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 10월의 경축광장을 명작으로 빛나게 장식하자.

가 사

나는 조국의 해병

황 명 성

해당화 곱게 피는 백사장 지나
함선에 처음 올 땐 애젊은 해병
하지만 바다 지켜 한목숨바친
영웅의 그 뉘트로 가슴 불탔네
라라라 나는야 해병
장군님이 사랑하시는 조국의 해병

고향집뜨락처럼 갑판을 딛고
해숫는 바다에 정을 묻었네
수평선너머 멀리 항해길에서

풍랑도 길들이는 담을 키웠네
라라라 나는야 해병
장군님이 사랑하시는 조국의 해병

군항의 갈매기도 잠든 밤이면
장군님 만나뵈을 꿈을 꾸었네
그 품에 군공높이 안길 그 맹세
수뇌부결사옹위 육탄이 되리
라라라 나는야 해병
장군님이 아시는 조국의 해병

소원에 대한 생각

최 용 호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안고살며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기쁨과 환희, 감격과 걱정, 그것을 그 어디에 비길 수 있으랴.

하지만 소원은 바란다고 하여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하다면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것인가.

나는 얼마전 이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다.

새롭게 일떠선 2.8비날론련합기업소에 대한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다.

집에 들어서니 텔레비죤화면에서는 은하수관현악단에서 형상한 노래 《그이의 리상》이 방영되고있었다.

우리 얼마나 바라고 소원했던가
우리의 손으로 이룩한 내 조국 강성의 꿈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

절절하게 울리는 노래의 선율을 듣느라니 생각이 깊어졌다. 이번 취재길에 들은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떠올라서였다.

우리가 현대화된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고 비날론섬유가 줄줄이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하조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흰눈처럼 하얗고 목화솜처럼 부드럽고 포근한 비날론솜을 살펴보느라니 왜서인지 눈앞이 흐려왔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마저 희미해져가던 비날론, 16년만에 다시 일어난 비날론공업이 아닌가. 그것이 어떻게 다시 일어섰던가. 모든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나날에 일어선것이라면 우리 이다지도 가슴뜨겁고 눈굽이 젖어들지는 않을것이다.

격정에 넘쳐있는 우리에게 공장일군이 말했다.

《기자선생님들도 눈물이 나오는 모양이군요. 하기는 여기에 와 비날론을 보는 사람들모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장일군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뜨거운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이야기...

지난 2월 첫 비날론솜이 쏟아지던 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비날론솜을 손에 드신채 더욱더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그 순간 그이의 심중에서 무엇이 끓고있었는지, 어떤 뜨거운것이 고개치고있었는지...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격정에 넘치시여 동무들! 나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습니다, 이 비날론을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것처럼 사랑하시던 주체의 비날론입니다, 금수산기념궁전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이 비날론솜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로동계급이 만들어낸 새 비날론솜을 수령님께 어서 가지고 갑시다! ...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아, 그 순간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속에 꽂차있었던 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생각이였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태어난 우리의 주체섬유 비날론이였다.

나라없던 그 시절 새로운 합성섬유를 연구하고도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수난속에 헤매이던 리승기선생을 따듯이 품에 안아주시고 불비 쏟아지는 전화의 그 나날에도 연구를 계속하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비날론시험생산이 성공했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대규모비날론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건설을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비날론공업은 창설되였다.

비날론공장준공을 선포하던 그날,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안겨줄수 있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리승기선생에게 오늘은 선생의 소원이 풀리는 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아버지수령님.

하기에 리승기선생은 생전에 이렇게 회상하였다.

...비날론은 어느 한사람의 과학자나 몇사람의 기술자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비날론에는 자식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고싶어하시는 친어버이의 심정그대로인 위대한 수령님의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 깃들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잘살게 하는것을 자신의 평생소원으로 간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바쳐오신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태어난 비날론.

길이길이 전하여라

김 용 엽

하늘에서 내려왔나
땅속에서 솟아났나
그물처럼 뻗은 은백색배판들
CNC동음 정다운 칠판설비들
거창하게 일떠선 선군시대 창조물
아 2.8비날론 대화학섬유생산기지여

해빛밝은 하조장에 들어서니
정말 희한하구나
흰눈처럼 쏟아지는 비날론솜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흰구름인듯
앞을 다투어 땅을 터치는 목화송이바다인듯

한아름 안아보자
우리 장군님 그리도 만족하시여
한웅큼 쥐신채 해빛같이 웃으시던
아 솜아 비날론솜아

얼마나 기다리던 너였으면
얼마나 보고싶던 너였으면
아버이 우리 장군님
금방 오셨다 가신 눈덮인 그 길을

되돌아 한달음에 달려오셨으랴

그이의 체온인듯 따뜻한 솜 안을수록
가슴뜨겁게 울려와라
애국의 그 헌신을 아니 생각하시교
로동자들이 수고했다 치하하시며
수령님 평생소원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자애로운 그 음성이

승고한 그 사랑에 떠받들려
해성처럼 솟아오른것 아니더냐
고난의 나날 숨죽였던 공장
프로그램에 따라 행복의 솜꽃 피우는
내 나라의 자랑
주체의 대비날론생산기지

오 사회주의리상이 만발한 비날론도시여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여라
우리 인민을 만복의 상상봉에 세우시려
천만로고 바치신 수령님과 장군님
하늘같은 그 은덕 대해같은 그 사랑을

~~~~~

정녕 우리 수령님은 주체섬유 비날론공업의 창시자, 개척자이셨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 첫 비날론솜을 손에 드시고 아버지수령님을 그려보시였고 그 솜을 야전차에 실으시고 금수산기념궁전으로 수령님을 찾아가신것 아니던가.

경애하는 장군님 아버지수령님앞에 서시여 이렇게 보고드리시였으리.

수령님! 비날론이 나옵니다. 이제는 수령님의 평생소원이 풀리게 되었습시다!...

비날론은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는것을 자신의 평생념원으로 간직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속에 세상에 태어났고 오늘은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우는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리상으로 여기시고 온갖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정의 세계속에서 16년만에 소리치며 다시 일떠선것이다.

인민의 소원,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념원이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이다.

우리의 소원은 결코 그 어떤 자연적인 혜택이나 신비로운 조화에 의해 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민의 소원을 풀어주는것을 제일 큰 리상으로 간직하신분,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소원에 제일로 충실하신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는것이다.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대, 리상이 실현되는 시대에 살고있다. 그 소원, 그 리상을 실현 해주시는분은 우리의 선군태양 **김정일**장군님이시다. ...

끝없이 깊어만지는 나의 생각을 이어주며 노래가 울리고있었다.

총대를 높이 들고서 온 세상 굽어보며  
찬란한 미래를 맞이한 선군의 내 조국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  
장군님 꽃피우신 그 리상  
아 내 조국땅에 현실로 펼쳐진다

# 비날론꽃보라

최 정 용

환희로 물결치는 이 가슴에  
우리 생활의 밝은 앞날 그려주며  
송이송이 축복의 꽃보라 되어  
비날론이 우리의 주체숨이 내리는 이 아침

우리 어찌 눈굽을 적시며  
비날론구내를 걷고 또 걷는것인가  
하얀 비날론숨 손에 드시고  
기쁘시여 진정 기쁘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장군님미소로  
한껏 밝아진 비날론 드넓은 구내길을

우리 장군님 강철의 의지에 받들려  
온갖 시련 다 이겨내고  
수령님의 귀중한 유산인 비날론공장을  
현대화된 새 모습으로 일떠세우신  
금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벅차오르나니

알수 없었다  
사회주의진리성을 믿지 못하는자들은  
심장의 박동도 숨결도 같이해가는

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혼연일체  
그 불패의 진리성과 위력을

력사의 반동들의 악랄한 궤변을 불태워버리며  
원썹들의 고립압살책동 짓부셔버리며  
건설공법과 공칭능력으로는 설명할수 없는  
거창한 창조의 세계를 우리 펼쳐놓았거니

이 세상 그 무엇인들  
이 아름다움에 비길수 있으랴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에  
장군님믿음에 충정으로 불타는 우리의 심장에  
이 땅우에 이루어놓은 저 행복의 창조물에

아 꽃보라 날린다  
위인칭송의 노래 담아시고  
만복의 웃음꽃으로 천만심장 흔들며  
밝아오는 강성대국에  
비날론꽃보라 날린다  
사회주의승리의 꽃보라 날린다

# 복순이 이불

럼 형 미

비날론공장의 혁신자처녀  
복순이네 집에 경사났구나  
동네 녀인들 돌보기며 바느실을 들고  
잔치이불 꾸미러 모여드네

비날론숨 참말 곱기도 해라  
하북하북 포근포근  
흰구름같은 이부자리  
복순이 신랑이 좋아하는 하겠다

한뼘한뼘 누벼가는  
녀인들의 웃음속에  
송이송이 덧쌓이는 목화솜인가  
비날론햇숨은 봉긋봉긋 부풀어오르는데

흐려지는 돌보기 닦아끼며

복순이 할머니 하는 말  
—옛날같으면 골무를 끼구두  
이부자리 꾸미기가 보통이었나  
무겁구 질긴 떡솜에  
돛바늘이 부러져 손끝에 피가 났지...

순간 물속처럼 조용해지는 방안  
녀인들은 사뿐히 천 연한 바늘  
그지없이 부드러운 비날론솜  
새삼스레 감촉하며  
뜨거운 생각 실실이 누벼가네

예로부터 딸자식을 낳으면  
시집보낼 걱정도 함께 낳는  
우리 녀인들이건만  
언제 한번 험한 길 걸으며



이불숨을 두고 마음쏜 일 있던가

비날론공장을 세워주시려

우리 수령님 걸으신 통홍벌의 진창길  
고난속에 사라졌던 그 이름 되찾으시려  
우리 장군님 걸고걸으신 로고의 길  
한뫼한뫼 눈물속에 어려오네

아 행복에도 낮과 밤이 따로 있던가  
환희로운 대고조의 시대

땀젖는 로동의 한낮으로도 만족한 우리 삶  
밤이면 밤대로 고운 꿈 한껏 꾸라고  
그리도 다심히 보살펴주는 품이어

천만년 영원할 행복의 약속이런듯  
우리 장군님 안겨주신 비날론숨으로  
백년가약 잔치이불 세자리나 꾸미는  
복순이는 정말 복둥이로다  
선군령장 어버이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모두가 복둥이로다!

## 상 식

# 비 날 론 과 그 리 용

비날론은 폴리비닐알콜로 만든 면을 대신할수 있는 좋은 합성섬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날론공업은 완전한 우리의 주체적공업입니다.》

비날론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회석과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주체적인 화학섬유이다.

일찌기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상에 처음 나온 비날론의 이름을 학명 그대로 폴리비닐알콜계섬유라고 부르고있을 때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귀중한 과학기술적재부를 어찌 다른 나라 말로 부르겠는가 하고 하시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명날이할 때 날실, 들실이라고 말하던것을 유래로 하여 우리 맛이 나게 《비날론》이라고 부르자고 긍지높이 선언하시였다.

비날론은 주체28(1939)년에 우리 나라 과학자 리승기 [1905—주체85(1996)년] 박사가 처음으로 연구해낸것이다.

비날론은 방적방식에 따라 짧은 섬유(스프), 긴 섬유(인견사), 띠섬유 등으로 나누며 제조방법에 따라 습식방사비날론, 건식방사비날론, 세기에 따라 보통비날론, 고강력비날론, 초고강력비날론 등으로 나눈다.

비날론은 흰색을 띠며 윤기나고 밀도가 1.26~1.32g/cm<sup>3</sup>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섬유들중에서 세기가 비교적 큰 편이며 젖은상태세기는 마른상태세기의 80%정도이다.

비날론은 합성섬유중에서 흡습성이 제일 좋으며 열견딜성도 비교적 높고 빨래가 쉽게 된다. 흔히 불에는 잘 타지 않으며 태우면 불쾌한 냄새가 나지만 유독성가스는 발생하지 않는다. 산, 알칼리

에 견디는 성질, 기후견딜성도 매우 좋다. 뿐만아니라 바다물속에서도 썩지 않으며 여러가지 곰팡이에 대하여 안정하다. 열전도성이 낮으며 그로하여 보온성이 좋다.

이 비날론생산은 크게 초산비닐합성, 폴리비닐알콜제조, 방사 및 후처리공정을 거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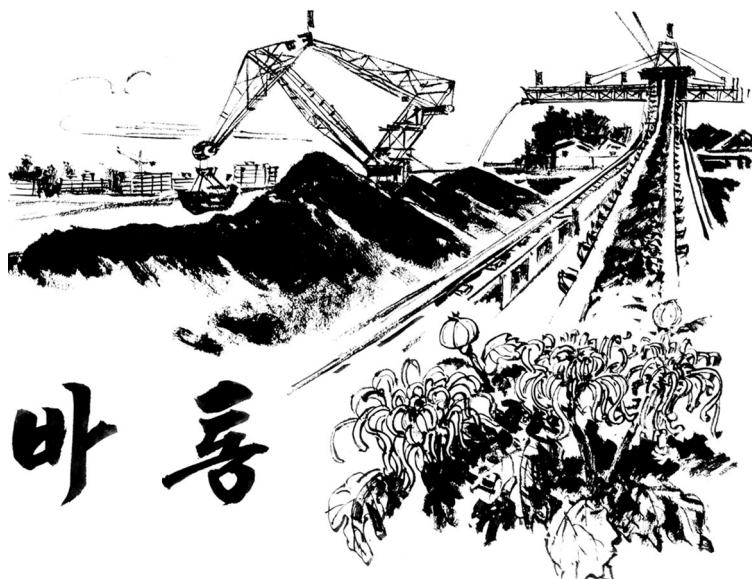
비날론은 흡습성이 좋고 질기기때문에 스포를 만들어 옷감용천을 짜는데 많이 쓴다. 인견사는 천연견사와 성질이 비슷하기때문에 비단옷감을 짜는데도 쓰인다. 또한 비날론은 돛천, 천막, 방수포, 고기그물, 러파포, 다이아 또는 벨트용코드사 등을 만드는 공업용섬유로 널리 쓰이며 합성종이 원료로도 쓰인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 새로 꾸려진 현대적인 생산공정을 따라 비날론이 쏟아져나오고있다.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을 위한 위대한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날 이곳은 새세기의 요구에 맞게 CNC노래 넘치는 첨단화학공업기지로 되게 되었다.

기업소는 생석회, 카바이드, 아세틸렌공정을 비롯한 수십개의 기본공정들과 촉매생산, 급수, 랭동, 증기생산공정을 비롯한 보조적생산공정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공정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비날론을 위하여 움직인다.

기업소에서는 또한 비날론과 카바이드, 가성소다와 염화비닐은 말할것도 없고 물감, 농약, 염산, 액체염소, 표백분, 중조, 염화바리움, 염화칼시움, 초산, 알콜, 가소제, 초산비닐, 폴리비닐알콜을 비롯한 420여종의 화학제품들이 쏟아져나오게 된다.



# 바 통

백 명 길 그림 김 광 석

## 1

도중소탄광관리국 운영과장 장명식은 벌써 몇 번째 아들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있었다.

읽을수록 가슴은 납덩이를 안은듯 무겁다.

《...아버지! 전 얼마 안있어 제대됩니다. 어제 부대에서 저에게 대학추천문건을 주면서 지망하는 대학이름을 적어넣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아버지처럼 한생을 석탄공업부문에서 일할 결심을 하고 석탄공업대학을 지망했습니다. 저의 이 결심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아버지의 얼굴이 금시 보이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것이 무엇인가고 묻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철아! 나에게 세상에서 으뜸가는 귀중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석탄이다. 석탄은 뜨거운 열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만복을 가져다준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도 탄부들을 나라의 보배로 내세워주신단다.〉

아버지! 전 아버지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중대오락회시간이면 첫 프로그 고향자랑입니다.

그때마다 전우들은 탄부의 아들인 저의 이름을 남먼저 불러줍니다.

〈국철동무! 또 한바탕 탄광자랑을 하라구.〉

탄광이라면 텔레비존에서나 보아온 벌방내기인 분대장동지의 말입니다.

이제는 수십, 수백번이나 탄광자랑을 한 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탄광자랑을 보태곤 하였습니다.

〈...탄부들은 누구보다도 해빛을 그리며 사랑합니다.

그러나 석수가 떨어지는 어두운 막장길을 더없이 즐겨 걸습니다. 그것은 탄부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캐내는 석탄으로 사람들에게 해빛처럼 귀한 빛과 열을,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자부하고있기때문입니다.

종일토록 막장에서 석탄을 캐던 탄부들이 저녁 무렵 황혼빛이 만물을 질게 물들일 때 땅우로 나옵니다.

탄부들은 갱입구에서 시려오는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저물어가는 황혼빛을 후덥게 바라봅니다. 그 눈들에는 해빛에 대한 그리움이 한껏 어려있습니다.

이 그리움이란 바로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랑이 있어 탄부들은 자신들의 온넛을 바쳐 석탄을 캐니다. 그래서 전 탄부들이야말로 사랑의 감정이 제일 강렬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합니다.〉

시를 읊는듯 한 저의 이야기에 전우들은 병실이 떠나갈듯 요란한 박수를 보내주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전 이렇게 군사복무의 나날 탄부의 아들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끼며 생활해왔습니다. 아버지도 석탄부문에서 일하려는 이 아들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을 기다려주십시오. ...〉

장명식은 편지를 놓았다.

아들이 돌아온다.

후더운 감정이 가슴 그들먹이 차오른다.

코밑에 숨털이 보시시한 애된 얼굴에 래일에 대한 동경이 가득 실렸던 아들을 떠나보내던 때가 엇그제같은데 어엿한 대장부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다.

아들은 탄부의 아들된 긍지를 한껏 느끼고있다. 그것은 편지의 자자구구에서 력력히 풍겨오고있었다.

장명식은 아들이 초소로 떠날 때 술골탄광에서 350갱 갱장으로 일하고있었다.

그즈음 350갱의 석탄생산은 땅짚고 헤엄치기였다.

명식을 비롯한 탄부들은 사기충천하여 캐고캐도 끝이 없을상싶은 무진장한 탄밭을 깔고앉아 물먹은 담벽 허물어내듯 탄벽을 밀어냈다.

채탄장마다에 미여지게 석탄이 쏟아져 미처 그 운반이 따라서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 때면 갱장이 전차를 타고다니며 운반을 지휘해야 했다. 또 채탄장 심도가 깊어질수록 동발목도 모자랐다. 그때도 명식은 어깨에 두대, 석대의 동발목을 메고 채탄막장으로 들어가 불이 번쩍나게 동발목을 세웠다.

언제 낮이 가고 밤이 오는지 세월의 흐름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

명식은 아들이 초소로 떠난다는 소식도 채탄막장에서 들었다.

어서 아들을 바래주라며 등을 떠미는 채탄공들의 마음에 실려 갱막장을 나서면서 명식은 거울처럼 알른거리리는 알탄 한덩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초소로 떠나는 아들에게 주고싶었다.

탄광마을에 공기처럼 흔한게 있다면 그것은 탄이다. 그 한덩이의 탄은 크지 않다. 초소로 떠나는 아들에게 쥐여주고싶은것이 많고많지만 명식은 굳이 이 탄 한덩이를 끌었다.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탄부아버지로서 주고싶은것이 바로 이 탄이다.

명식은 초모생들이 뺄스에 오를 때 탄가루가 묻은 작업복차림으로 달려왔다.

아들도 아버지를 보았다.

《국철아!》

《아버지! 난 아버지를 못 만나고 초소로 떠나는줄 알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들었다.

명식은 그러는 아들을 품에서 떼어내며 말했다.

《아서라. 군복에 탄가루가 묻겠다.》

《일없어요, 아버지.》 아들은 이러며 아버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명식은 뺄스에 오르려는 아들에게 알탄 한덩이를 주며 말했다.

《아버지가 캔 석탄이다. 이걸 넣고 초소로 떠나거라. 국철아, 석탄은 겹치만 자기를 짱그리 태워 사람들에게만복을 가져다준단다. 그러니 석탄

처럼 자기를 바쳐 조국을 지키거라!》

아들은 아버지가 캔 한덩어리의 탄을 품고, 석탄처럼 성실하게 조국을 지키라는 탄부의 당부를 안고 초소로 떠났던것이다.

이제 그 아들이 군사복무를 영예롭게 마치고 대학추천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장명식은 아들의 귀향길에 어제날 탄부된 긍지를 안고 땀뿜이 나설수가 없게 되었다.

지금 술골탄광의 350갱은 생사존망의 기로우에 놓여있다.

5년전까지도 350갱은 중소탄광관리국적으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던 기준갱이었다.

그런 갱이 다 산 하늘소처럼 비칠비칠 갈지자걸음을 하더니 이제는 제자리걸음도 겨우 하고있다. 거의 정지상태에 들어간 생산실태를 놓고 관리국에서 얼마전 350갱을 료해한데 의하면 그 전망이 암담하였다.

월 수천톤의 석탄을 생산하던 350갱은 완전히 폐갱이 되다싶이 되었다.

원인은 명백했다.

3년분 굴진을 선행하고 6개월분 채탄밭을 마련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지 않고 있는것 털어먹기만 한 후과였다.

장명식은 7년전 전망이 좋은 350갱을 타고왔는데 관리국적으로 진행한 생산경기에서 두번이나 1등의 영예를 지녀 일 잘하는 갱장으로 소문을 났고 그후 관리국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물론 오늘에 와서 350갱이 폐갱이 되다싶이한 책임을 장명식에게 묻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량심을 속일수는 없었다.

빠져린 고뇌가 장명식의 심장에 깃들기 시작했다. 가슴아프게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탄부들의 량심은 대쪽같다. 탄부들은 자기들이 온 열정을 바쳐 캐내는 석탄의 가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그러나 그 대가에 대하여서는 티끌만큼도 생각지 않는다. 그저 자신들이 온 땀을 바쳐 캐내는 석탄이 부강조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긍지감, 그것 하나면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탄부들이다.

명식이기도 어제날에는 그런 탄부들속에 자신을 나란히 세워 살아왔다.

350갱 갱장으로 일할 때도 앉으나서나 석탄, 석탄... 꿈속에서까지도 탄을 찾았다.

탄광을 떠난 후에도 언제나 350갱 일에 대해 신경을 쓰고 관심을 돌려왔다. 그러다가 지금 형편을 듣고보니 마음이 참으로 피로와진것이다.

장명식은 스스로 량심의 빔을 걸머지였다. 그리고 그 책임을 느꼈다. 그리고보니 술골탄부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났다.

그의 눈앞에는 한생을 석탄과 함께 살아온 정학수로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정학수로인은 칠순을 넘긴 나이지만 350깡을 두고 누구보다 마음을 쓰며 오늘도 막장길을 걷는다고 한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아버지는 술골탄광의 첫 개발자의 한사람이다. 350깡의 첫 발파도화선도 정학수로인이 달았다고 한다. 그런 아버지이니 숨겨가는 350깡의 실태가 찢겨져나간 채 살점만큼 아프게 안겨오리라.

장명식은 술골탄부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싶었다. 그 용서도 말로가 아니라 온 육신으로, 피와 땀을 바쳐서 받고싶었다. 술골탄부들을 찾아가자.

그래서 장명식은 늦게나마 350깡복구에 자신이 직접 뛰어들리라 결심다지고서 관리국초급당위원회에 찾아갔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장명식의 제의를 심중히 받아들였다.

장명식은 예순고개를 바라보는 나이다. 그런 그가 일시적인 흥분이나 충동으로 그런 결심을 내렸겠는가. 그는 진정으로 어제날 금지했던 탄부의 본태를 찾고싶어한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술골탄광으로 내려가려는 장명식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당비서는 이렇게 말했다.

《명식동무! 내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사람은 인생의 마감도 출발점에서처럼 살아야 한다고 썼더구만. 그런 의미에서 난 명식동무가 진정으로 돌보이오. 그러니 끝까지 한본새로 살아주기를 바라오.》

장명식은 축축히 젖어드는 눈길로 당비서를 바라보며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비서동지! 믿어주어 고맙습니다.》

장명식은 집으로 돌아와 안해에게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안해 함봉숙은 탄광마을에 살 때도, 시병원의사로 일하는 오늘에도 직장과 주위사람들로부터 말이 없고 성실한 녀성으로 떠받들리고있는 현숙한 녀성이다.

그는 언제 한번 남편의 뜻을 거역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그것은 제대되어 돌아오는 아들일이 명치끝에 매달려있었때문이었다.

《여보! 술골탄광으로 내려가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350깡이 그렇게 된게 어디 당신책임뿐이예요. 이제 국철이가 대학추천을 받고 돌아오는데...》

안해는 간절한 기대가 어린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장명식은 안해의 눈길을 슬며시 피하며 말했다.

《여보! 당신도 아들애의 편지를 보아서 알겠지

만 국철이는 군사복무를 잘해서 당원이 되었고 또 대학추천을 받았소. 그런데 이 아버지 아들앞에 땀땀이 나설 면목이 없구려. 그래 늦게나마 아들앞에 땀땀이 나서고싶어서 이런 결심을 내렸소.》

강렬한 호소가 깃든 명식의 둔중한 목소리는 방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랬다. 장명식은 진정으로 무거운 심증을 안해에게 토로했던것이다.

안해의 눈가에 그들먹이 눈물이 고였다.

《여보! 나도 당신의 심정을 모르는바가 아니예요. 그러나 국철이 일때문에 선뜻 당신의 뜻을 따를수가 없군요. 사실 5년전 술골탄광에서 여기로 올라올 때 정든 사람들과 헤어지는 섭섭한 심정도 없지 않았지만 국철이가 제대되어 오기 전에 탄광을 뜨는걸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국철이는 나나 당신을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로 알고 있는데... 국철이가 제대되어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난 그제 두려웠어요. 그래서... 흠-》

안해는 종시 눈물을 쏟고말았다.

순간 명식의 가슴이 말 못할 심정으로 아릿해왔다.

국철이는 이들부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국철이는 25년전 어머니에게서 젖꼭지를 떼자마자 불행하게도 랑부모를 잃었다. 그에게는 친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되지 못했다. 그러던 국철이 장명식을 친아버지로, 함봉숙을 친어머니로 알고 마음속 그늘 한점없이 지금껏 살아왔다.

지금 안해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만일 자기들이 술골탄광으로 내려가고 국철이가 제대되어 술골로 돌아와 그 어떤 인연으로 지금껏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와 어머니가 친부모가 아님을 알게 될수 있다는 우려심이 짙 차있었다.

그래서 함봉숙은 술골탄광과 애써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것이다.

그러나 장명식의 생각은 달랐다.

국철이는 술골탄광이 자랑하는 영예탄부의 아들이다. 그런 아들에게 친아버지를 찾아주는것은 인간의 도리이다.

장명식은 가슴이 아프지만 어느 뎡가는 국철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려고 마음속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그런데 안해는...

장명식은 마음속 결심을 안해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난 당신의 심정을 리해하오. 하지만 난 소대장동지와 국철이에게 면목이 없게 되었소. 당신 말처럼 350깡일을 두고 누구도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소. 그러나 내 마음속 랑심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구려.》

여보! 국철이도 대학시험을 치르어야 하니 당신은 여기에 남소. 그제 국철이를 위해서도 유익할게요. 추석날도 다가왔는데 국철이 아버지의 묘도 찾아볼겸 래일 술골탄광으로 내려가겠소. 국철이가 돌아오거들랑 시험을 잘 쳐서 꼭 대학에 입

학하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소.》  
 술골탄광으로 떠나던 날 명식은 아들의 편지를 한겹, 두겹 정히 접어 가슴에 품었다.  
 안해는 두눈 가득 눈물을 담고서 떠나는 남편을 바라왔다.  
 두사람의 마음속에는 서로 이해하면서도 선뜻 마음을 합칠수 없는 안타까움이 짙어 있었다.

## 2

장명식이 술골탄광에 찾아간 다음날이 추석날이었다.

장명식은 정학수로인과 함께 술골탄광뒤산 범산령중턱 잠풍한 곳에 안치한 옛 굴진소대장의 묘소를 찾아갔다.

두사람은 정히 술을 부었다. 술을 부으면서 명식은 마음속으로 아뢰었다.

《국철이 아버지! 이렇게 뒤늦게 찾아온 저를 욕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국철이가 당원이 되어 대학추천을 받고 제대되어옵니다.》

국철이는 편지에 아버지처럼 탄부가 되겠다고 석탄공업대학을 지망했습니다. 국철이에게 탄부의 대가 어엿이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책이 큼니다. 소대장동지가 목숨바쳐 구원한 350갱이 폐갱이 되다싶이 되었습니다.

소대장동지! 전 오늘에야 한생을 탄을 켜다고 탄부가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스스로 탄부의 바통을 이어가겠다고 나선 국철이를 위해서도 전 여기 술골에서 350갱을 보란듯이 일떠세우는데 있는 힘껏 바치겠습니다.》

두사람은 묘소앞 보드라운 금잔디밭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 한점 없고 해빛이 따갑게 비쳐드는 쾌청한 가을날이었다.

술골탄광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장명식은 아픈 눈길로 저탄장을 바라보았다. 그 시절 산갈던 저탄장의 석탄은 바닥이 났고 기운차게 석탄을 밀어내던 불도젤의 동음도 들려오지 않는다. 푸른 섬광을 번쩍이며 석탄을 가득 싣고 갱밖으로 나오는 전차도 보이지 않는다.

장명식은 정든 고장에 다시 찾아온 감개에 앞서 자책과 회오의 감정이 몸과 마음을 주체할수 없게 꿈만드는것 같았다.

그러는 명식에게 정학수로인이 물었다.

《국철이가 제대되어 대학으로 온다지?》

《예, 아버지처럼 석탄부대에서 일하겠다고 석탄공업대학을 지망했습니다.》

명식은 애써 회심의 빛을 지으며 말했다.

《허, 세월도 빠르지. 국철이가 돌아온다니 우

린 늙긴 늙었어. 이제 다음세대에게 탄부의 바통을 넘겨줄 때가 됐네그러.》

정학수로인은 흰서리가 수북이 내린 머리를 몇 번이나 뒤로 넘기며 석잡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 세월의 흐름은 멈출수 없듯이 이제는 다음세대 탄부들이 술골탄광을 떠메고나가야 한다. 그들이 국철이 세대다.

《명식이, 우리 힘을 합쳐 350갱을 기어이 살려내자구.》

정학수로인은 명식의 두손을 꼭 잡고 꼭진하게 말했다.

술골탄부들은 장명식을 잠간 나들이 갔다온 제집식구인양 반갑게 맞아주었다.

모두가 그를 옛 갱장으로 가식없이 불러주었다.

천연암반도 딱 주무르듯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탄부들이다. 석탄을 다루는 탄부들의 인정미가 아예 정반대로 무른 감알같다. 그 인정, 그 사랑을 온 폐부로 느끼며 명식은 350갱복구굴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탄광에서는 350갱복구굴진을 위한 돌격대를 못하고 주야간전투를 벌리고있었다. 강성대국건설의 총돌격전을 위한 100일전투의 소용돌이가 바로 여기 350갱복구굴진장에서 세 차게 고평치고있었다.

온 탄광의 이목이 350갱복구굴진장에 쏠렸다. 350갱을 복구하는가, 못하는가에 술골탄광의 석탄생산을 추켜세우는가, 못 세우는가가 결정적으로 달려있었던것이다.

명식은 정학수로인과 함께 동발목을 실은 광차를 밀며 막장으로 들어갔다.

《여보게, 국철이 어머니 자네 뜻을 지지했나?》

《!...》

정학수로인도 더 묻지 않았다. 두사람은 묵묵히 광차를 밀어나갔다. 그러던 정학수로인이 먼저 말을 뱉었다.

《이사람 명식이! 봉숙이도 자네를 이해할거네. 그러니 너무 마음쓰지 말게. 자네야 탄부가 아닌가. 우리 탄부들은 막장에 들어와 석탄냄새를 맡아야 사는 보람을 느끼지.》

정학수로인은 년장자답게, 오랜 탄부답게 틀지게 말했다.

그랬다. 그가 누구든지 탄부라면 탄광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것이 정학수로인의 지론이기도 하였다.

두사람은 복구굴진전투장에 도착했다.

갱복구장은 불도가니마냥 끊어번지고있었다.

돌격대원들은 봉락구간에 동발목으로 방틀을 쌓고 깔개목을 깔고있었다.

《자, 옛 솜씨를 보여주게.》

정학수로인이 명식에게 던지는 말이다.

그 말에 명식은 옛 탄부시절의 열기가 슬그머니

되살아오름을 느꼈다.

장명식은 한때 동발들이기 명수였다. 그 어떤 형태의 동발목도 그의 손에 잡히면 안 들어맞는 동발이 없었다.

《좋습니다.》

장명식은 쥘싸게 허리에 찻던 손도끼를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갈개목에 적합한 동발목을 골라 손도끼로 앞부분을 다스렸다.

명식은 눈집작으로 동발목을 잘라 방틀우에 끼워넣었다.

명식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탄부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물었다.

《야! 아바인 어느 탄광에서 동발을 들었습니까?》

《여, 고수머리! 알고싶은게 많으면 늙기도 빨리 늙어. 어서 함마나 쥐라구.》

정학수로인이 통을 주자 고수머리는 멋적은듯히 죽 웃으며 함마를 휘둘러댔다. 텅, 텅.

《어차, 어차. 다시 한번 어차, 좋아요. 췌기 없이 합격이네.》

명식은 함마수와 호홉을 맞추어 잠간새에 갈개목을 맞추었다.

《아바인 씨름군이면 상씨름군이요, 동발들이기에서는 명수급이예요.》

고수머리가 한바탕 명식을 취울렸다.

돌격대원들도 명식을 둘러싸고 작업장이 들췌하게 웃어댔다.

장명식은 돌격대원들과 어울려 버럭도 나르고 동발도 들이면서 한껏 땀을 뺐었다.

하루일을 마친 장명식은 목욕을 하고 거뜬한 기분에서 싸여 합숙으로 향했다. 그러는 명식을 정학수로인이 자기 집으로 이끌었다.

《우리 집으로 가세. 오늘이 바로 우리 집 대추를 수확하는 날일세.》

정학수로인은 저 먼저 성큼성큼 걸었다.

정학수로인의 집에는 한나무에서 대추 두가마니는 실히 털어내는 아름다리대추나무가 다섯그루나 된다. 그 대추나무는 1970년대말 솔골탄광개발의 첫 발파소리와 함께 심었다고 한다. 그러니 30년이라는 년륜이 새겨져있는셈이다.

예로부터 대추는 흉년이 없다고 한다.

정학수로인은 매해 대추수확을 해서는 350쟁탄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곤 했다. 명식이기도 매 나무의 대추맛을 가려낼만큼 많은 대추를 먹었었다.

정학수로인의 집에서는 대추털기가 한창이었다. 마당은 온통 붉은 대추 천지였다.

로인의 말손자가 가지 많은 나무에 올라 긴 장대로 휘익— 후려칠 때마다 누런 잎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우박처럼 대추알이 떨어져내렸다.

나무밑에서는 온 집안이 다 떨쳐나와 하하, 호

호 웃음바다를 펼치고있다.

이 집의 대추수확은 굉장하다. 명식이기도 잘 익은 대추 한줌을 쥐었다.

장명식의 마음속엔 잊을수 없는 하나의 일이 간직되어있다.

…25년전 가을, 그날도 굴진중대장을 하는 정학수의 집에서는 대추털기가 한창이었다.

장명식은 350쟁입구에서 밤교대를 마치고 나오는 굴진소대장을 만났다.

《소대장동지, 오늘 볼 일이 있어 그러는데 제 밤교대로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명식은 주뭇거리며 사정을 이야기했다. 명식은 오늘 읍거리에 있는 먼 친척벌의 주선으로 처녀를 만나보기로 약속되어있었던것이다.

소대장은 제격 승낙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 명식동문 오늘 처녀선을 본다고 했지, 좋구만. 어서 떠나라구. 명식동무 교대는 내가 맡아하겠네.》

《아니, 소대장동지야 방금 나오는 길이 아닙니까?》

명식은 소대장에게 말했다.

《뛰라나. 명식동무의 첫선을 축하하여 발파소리를 요란하게 울려야지. 자, 걱정말고 어서 떠나라구.》

소대장은 명식의 등을 떠밀고는 다시 막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는 소대장이 얼마나 고맙던지… 굴진소대장은 명식보다 3년전에 솔골탄광개발에 자진하여 탄원한 제대군인이었다.

명식은 소대장에 대한 고마움을 한껏 느끼며 합숙으로 돌아왔다.

합숙친구들은 그 무슨 요란한 레식이라도 차리는듯 명식을 둘러싸고 야단법석했다.

제끼깃양복을 입어라, 넥타이를 매라 하며 성화를 먹이는 친구들의 손에서 겨우 벗어나 읍으로 가던중 명식은 정학수중대장의 집에 들렀다.

집에서는 대추털기가 한창이었다.

정학수중대장은 명식의 차림새를 보며 《그렇게 차리니 미남자탄부로구만. 합격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라구.》 하고 말했다.

이때 밤교대를 마치고 대추털기를 도와주러 왔던 굴진중대의 막내가 잘 익은 대추를 담은 바구니를 들고와 명식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말했다.

《형님! 처녀를 만날 때 맨송맨송하게 말만 하겠어요? 이 대추를 맛보라구 주라요. 그러면서 이 잘 익은 대추처럼 한생을 개가 쏘아지게 살자고 말하면 처녀는 얼굴이 대추알처럼 붉어져 <예, 그러자요.> 할거예요. 하하…》

막내가 처녀홍대를 신통히 내는통에 모두가 유

패하게 웃었다.

《좋아! 대추를 가지고 가라구.》

정학수중대장은 잘 익은 대추를 한보자기 싸서 자전거뿔무늬에 실어주었다.

그렇게 희망과 기대로 가슴을 흥떡이며 떠나는 걸음이 더없이 맹랑하게 끝날줄이야. ...

더우기나 명식은 자신의 그 읊거리행차가 한생에 다시 없는 통분과 후회를 잊달아 안겨주게 되리라고는 더더욱 예상하지 못하였다.

처녀의 집에서는 오빠라는 사람이 문밖에 나와 어정쩡한 어조로 만나야 할 당사자가 급한 일로 출장을 떠났으니 후날 연락하면 다시 좀 와달라고 말하였다.

정말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명식은 맥빠진 걸음으로 자전거를 끌고 몇 메터쯤 걸어오다가 다시 처녀의 집을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처녀네 집 대문이 열리며 한 처녀가 들고 가방을 메고 총알처럼 튀어나오는것이 아닌가. 분명 사진으로 본 그 처녀였다.

명식은 화로를 뒤집어쓴듯 얼굴이 뜨거웠다. 순간에 모멸감으로 온몸이 달아올랐다.

(싫다는게로구나. 집에 있으면서도... 좋아, 싫으면 그만두라지. 어디 처녀가 그 하나뿐이라구. ...)

후에 안 일이지만 그때 처녀네 집에서는 사진속의 총각은 멀끔해 좋은데 직업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했다는것이다.

명식은 올리췌치는 벨통을 겨우 누르고 공원에서 놀고있는 아이들에게 가지고 갔던 대추를 다 나누어주고는 자전거를 끌고 탄광으로 돌아왔다.

솔탄광에서는 실로 뜻밖의 일이 명식을 기다리고있었다.

350갱 60중단에서 뜻밖의 굉장한 물주머니가 터지는 바람에 막장이 물에 잠길 위험이 조성되었다고 한다. 위기일발의 순간 굴진소대장이 육탄이 되어 물구멍을 막고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던것이다.

명식은 가슴을 치며 통탄했다.

아! 나때문에... 나때문에 소대장동지가 희생되었구나. 그걸 막을 위치에는 장명식이 내가 서야 했다. 그런데...

아! 소대장동지, 이 미련한 놈의 시시껄렁한 일때문에... 이런 때엔 전 어찌면 좋습니까?! 소대장동지!

굴진소대장은 두살잡이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장명식의 가슴에는 잊지 못할 회한을 남겨둔채 이렇게 희생되었다.

명식은 아픈 추억의 상념을 겨우 털어버리며 잘 익은 대추를 주섬주섬 주어모았다.

### 3

350갱복구굴진은 눈에 띄게 일자리를 폭폭 내며 심도깊게 전진하고있었다.

장명식은 련사흘째나 막장에서 전투를 벌렸다. 전투원들이 합숙으로 그의 등을 떠밀 때마다 그는 《어서 석탄을 찾아야지.》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일손을 잡군 했다.

탄발이 없는 갯은 숨죽은 갯이다. 따라서 탄을 캐지 못하는 탄부는 목숨을 끊기운 사람이나 같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명식은 어서빨리 탄을 캐고싶었다. 이제 350갱이 복구되고 탄발을 찾게 되면 남먼저 기름진 탄벽에 곡괭이를 힘껏 박고싶었다. 그 곡괭이날에 찍혀 무너진 비계탄무지우에서 네활개를 쭉 펴고 코를 골면서 한잠 푹 자고싶었다. 이런 갈망으로 명식의 가슴은 달대로 달아있었고 시간의 촉박감을 한껏 느끼고있는 상태였다.

그날도 명식은 광차에 한가득 버력을 싣고 전차장으로 밀어가고있었다.

얼음판우에서 미끄러져가는 썰매처럼 레루우를 잘 굴러가던 광차바퀴가 이음목에서 덜컥 탈선이 되었다.

젠장, 이럴 땐 맹랑하기 그지없다. 만적재된 광차를 혼자힘으로 레루에 태운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할수없이 버력을 부려야만 한다. 버력을 부리고난 명식은 지레대를 찾아쥐고나서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아 전차장쪽을 바라보았다.

마침 전차장쪽에서 안전등빛이 비쳐왔다.

전차운전공 아니면 자재조달원일것이다.

명식은 다가오는 안전등빛에 대고 도움을 청했다.

《좀 도와주요.》

그리고는 지레대를 광차바퀴에 들이밀었다.

《자, 힘을 맞추십시오. 하나, 둘, 영차.》

도와주려온 사람은 다행히도 힘꼴이나 쓸 젊은이로 보였다.

두사람은 몇번 신고한 끝에 광차를 레루우에 올려래웠다.

《동무, 수고했소.》

명식은 허리를 펴며 인사말을 던졌다.

그러던 명식은 안전등빛에 비쳐진 젊은이의 모습이 별로 낮익어보인다는데 생각이 미쳐 찬찬히 바라보았다.

젊은이도 굳어진듯 명식이를 바라본다.

드디어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두눈길이 안전등빛아래서 평곳 부딪쳤다. 아들 국철이었다.

《아버지!》

국철이는 아버지의 품에 와락 안겨들었다.

명식은 한순간 꿈을 꾸는것만 같아 품에 안겨든 아들을 밀어내며 다시 보았다.

분명 아들의 모습이다.

《너 국철이구나?!》

명식은 아들애를 힘껏 포옹했다.

그동안 아들은 몰라보게 변했다. 키도 구척이고 몸도 박달나무처럼 단단하다. 아, 얼마나 그립던 아들의 모습인가. 힘들어 맥을 놓았다가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고나면 동발 하나라도 더 들이려고 힘쓴 명식이다.

명식은 대견한 눈길로 아들의 모습을 몇번이고 어루쓸어보았다.

《그래, 대학시험은 잘 치르었느냐?》

《...》

국철이는 물기 머금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볼 뿐 대답이 없다.

묻고싶은게 많았다. 명식은 술골탄광에 내려온 후 언제한번 집생각을 잊은적이 없다.

《아버지! 전 대학공부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뭐라구?》

《아버지! 전 아버지와 함께 탄부로 일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명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이 순간에는 왜서인지 기쁨보다도 혹여 하는 불안과 회의의 감정이 앞선다.

문득 집을 떠나올 때 아들의 장래를 두고 눈물을 흘리던 안해의 모습이 떠올랐다.

안해는 대학에 오게 된 아들을 위해 남편의 뜻을 거절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승인하시더냐?》

명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어머니도 꼭 이해하실겁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탄광으로 왔구나.)

명식은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명식의 눈앞에는 남편과 아들이 떠나간 빈집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고있을 안해의 모습이 안겨왔다.

아들을 만난 기쁨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마음은 허전하기 그지없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는지 국철은 다정스레 아버지의 팔소매를 잡아 한옆에 앉혔다. 그리고는 절절하게 말하였다.

《아버지! 전 어머니를 이해합니다. 어머니도 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랬을겁니다. 내가 여기로 떠나올 때 어머니 내 손을 쥐고 꼭 술골탄광으로 가야만 하는가고 절절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제일 어려워할 때 아들인 내가 외면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늘 말씀하셨지요. 탄부는 우리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나라의 보배들이라

고 말입니다. 이젠 아버지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었는데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탄부가 되겠습니다.》

명식은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뜨거운것이 치솟는것을 느꼈다.

눈곱이 화끈 뜨거워졌다.

(아들아, 고맙다. 넌 확실히 내 아들이로구나. 어찌 한피줄로 이어진 사람들만이 부모자식이라 하겠느냐. 넌 꼭 훌륭한 탄부가 될게다. 아들아!)

명식은 아들의 넋직한 잔등을 사랑과 정을 담아 몇번이고 어루쓸었다.

이윽고 국철이 명식의 허리를 다정히 불안아 일으키며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이만하고 저와 함께 가십시오.》

《그래, 오늘은 내가 왔으니 일찍 들어가자.》

장명식과 국철은 험뎀한 심정으로 버럭광차를 밀고 갱밖으로 나왔다.

합숙으로 향하던 명식이와 국철이는 350갱앞에 자리잡은 2층으로 된 갱진료소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진료소에서 안해가 의사로 일했었다.

장명식은 감회깊은 눈길로 진료소를 바라보았다.

진료소 앞마당에는 가을계절의 운치를 돋구며 하얀색, 노란색의 국화꽃들이 소담히 피어있었다.

장명식은 꽃중에서도 국화꽃을 제일 사랑한다. 안해 역시 남편 못지 않게 이 꽃을 사랑했다. 국화꽃처럼 환하고 부드러운 안해의 얼굴이 우렷이 떠오른다.

안해가 진료소의사로 일할 때 언제나 저녁시간이면 이 꽃밭을 가꾸었다. 그러다가 남편이 갱에서 나올 때면 국화꽃송이를 꺾어들고 나는듯이 달려와 안겨주곤 했다. 아, 그때마다 안해의 눈가에 어렸던 행복의 미소...

합숙호실에 들어선 명식은 마치 안해와 아들이 함께 모여사는 집안에 들어서는것만 같은 심정이였다. 아들이 합숙에 짐을 풀어놓은것이였다.

벽 한쪽에 기타가 매달려있고 한생을 병사시절에 살려는 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안겨오는 령장이 달린 군복도 걸려있다.

명식의 시선은 책상우에 멎었다. 책상우에 간소한 음식상이 차려져있는것이다.

《?!》

국철이가 고뿌에 술을 부어 명식에게 내밀며 정색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결에 돌아온것을 기념하여 제가 한잔 드립니다. 아버지가 걸어온 그 길을 이 아들이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맹세를 담은 인사로 받아주시십시오.》

명식은 한없이 더워오르는 마음으로 술 한모금



을 뜨겁게 받아넘겼다.

명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우에 놓인 국화꽃을 들어 향기를 맡았다.

진한 향기, 예나제나 변함이 없는 이 향기...

세월이 흘러가도 잊혀지지 않는 25년 전 350갱이 조업하여 석탄폭포가 쏟아지던 때 국철이는 지금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 아름다운 추억이 넘실넘실 물결을 타고 슬그머니 명식의 마음속에 깃든다.

...

350갱은 드디어 완공되어 범산령이 들쭉하게 자기의 조업을 알렸다.

번쩍번쩍 빛나는 기름진 석탄을 가득 실은 10대의 탄차들이 전차에 끌려 저탄장으로 달릴 때 갱건설자들은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명식의 두볼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이 환희로운 순간 350갱을 구원하고 희생된 굴진소대장을 생각하였다.

(소대장동지! 지금 350갱에서 석탄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명식은 소대장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웨쳤다.

350갱이 조업되어 석탄이 쏟아지는 날이면 만시름 잊고 한잠 푹 자겠다고, 그때면 안해의 병도 씻은듯 나아질것이니 집안 대들보가 들리도록 소대원들을 위해 큰 잔치를 차리겠다고 늘 말하던 소대장이었다.

소대장을 생각하니 어머니를 잃고 큰어머니 손에서 자라고있는 그의 어린 아들 생각이 또 났다.

불행은 쌍으로 겹친다고 소대장이 희생된 후 그 안해도 갓 젖이 떨어진 어린 국철이를 남겨둔채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국철이는 이웃 농촌마을에서 살고있는 큰어머니가 자기가 키우겠다며 데려가고...

명식은 언제나 그것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고있는터였다.

소대장동지는 이 술골땅에 사랑과 정만이 아닌 귀중한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쳤다. 그 땅에서 그 아버지의 넋을 이어가야 할 아들이 여기에 없다고 생각할 때면 명식은 항상 그것이 소대장에게 진 마음의 빛으로 생각되었고 그러느라면 소대장의 아들을 자기가 말아키워야 한다고 자각하곤 하였다.

언젠가 명식은 국철이가 보고싶어 이웃리에 찾아갔었다.

그때 국철의 큰어머니가 되는 녀자에게 명식은 말했다.

《소대장동지는 저에게 형님과도 같은분이었습니다. 후에 꼭 국철이를 제 아들로 키울수 있는 훌륭한 처녀를 색시로 맞아 국철이를 제가 데려다 잘 키우겠습니다.》

이것은 명식의 순간의 도의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랑심에 대고 하는 약속이고 맹세였다.

오늘 350갱조업식을 끝내고보니 또 국철이 생각이 갈마든 명식은 매일 휴식날에 국철이에게 갔다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학수중대장이 명식을 찾았다.

《명식이! 나하고 갈데가 있네.》

《저, 전 오늘 어디 좀 갔다오려고 하는데...》

정학수가 통명스레 명식의 말허리를 잘랐다.

《임자, 나한테 복종하게. 총각이 장가가는 일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또 있다구... 사실은 린산탄광마을에 내 형님벌 되는 탄부가 있는데 그 형님 딸이 아주 괜찮은 처녀야. 의학대학을 나오고 탄광병원의사로 일한다는 말을 내 요즘에 들었네. 거기 가자구.》

명식에겐 뜻밖이었다. 1년전 퇴박맞던 일이 불쑥 생각났다.

《싫습니다. 전 이제 선보려 다니는 일은 그만 두겠습니다.》

정학수도 그때 일이 생각나는지 허허- 하고 선웃음을 웃었다. 그러더니 정색하여 말했다.

《처녀들이 다 그런게 아니야. 아름답고 훌륭한 처녀들이 더 많지. 내 이번 걸음은 장담하네.》

명식은 아무 대답도 않고 머리를 짓수그리고 한참 무슨 생각을 하는가싶더니 버쩍 머리를 추켜들었다.

《중대장동지! 그럼 금산리에 들렀다 갑시다. 제 국철이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응?》

정학수는 금시 놀라는가싶더니 명식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고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래, 국철이의 엄마되기를 꺼려하지 않는 처녀가 필요하지. 나도 찬성일세.》

그날 두사람은 큰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국철이를 곁에 입혀 품에 안고 린산탄광으로 찾아갔다.

정학수와 처녀의 아버지는 청년시절에 함께 석탄을 캔 막역지우라고 한다.

처녀의 아버지는 기골이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큼직큼직한게 한창뎠 호남아로 불리웠을듯싶었다. 앞으새 역시 틀렸다.

국철이를 보자 처녀의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정학수에게 물었다.

《자네 벌써 손주를 봤나?》

그 물음에 명식이 제꺼덕 대답했다.

《제 아들입니다.》

《?!》

《그럼 자넨 상처한 사람인가?》

처녀의 부모들이 놀라서 한절반 엉치를 들썩이며 물었다.

정학수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설명하였다.

《형님! 이 애는 명식동무의 친아들이 아니라 350갱건설중 터진 물주머니를 막고 희생된 영예탄부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도 불치병을 만나 그만 세상을 떠났구요. 그래 이 애의 큰어머니가 말아키웠는데 이 명식동무가 자기의 옛 소대장의 아들을 말아키우겠다고 나서질 않았겠소. 아버지처럼 훌륭한 탄부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처녀의 부모들은 깨도가 된다는듯 머리를 끄덕였다.

방안에 잠간 정적이 깃들었다. 잠시후 그 침묵을 깨뜨려버리듯 처녀의 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울렸다.

《이 사람 학수, 자네가 사람은 잘 봤네그러. 그게 바로 탄부들의 의리심이고 인정이지. 여보로 친네, 난 찬성이요. 이런 사람이면 댕지 뭘 더 알아보겠소.》

처녀의 아버지는 옆에 앉아있는 로친에게 명령조에 가깝게 말했다.

명식은 숙였던 머리를 들어 처녀의 부모들을 바라보았다. 존경과 고마움이 가슴속에서 뜨겁게 고래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 우리 딸은 생김은 크게 뛰어나지 못해도 탄부가정에서 자라서 탄부를 귀해하는 마음은 남다를걸세. 애 봉숙아, 어서 나오거라.》

아버지의 말이 떨어지자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옷방문이 열리며 길게 기른 머리를 하나로 소담스레 묶어맨 처녀가 살쾅이 내려와앉았다.

《봉숙아! 너도 다 들었겠으니 직방 네 결심을 들어보자.

그래 너도 저 애의 친어머니가 될수 있느냐?》

처녀의 아버지는 엄숙히 딸에게 물었다.

함봉숙은 머리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장판바닥만 문지르고있다.

은연중에 명식이기도 긴장해졌다.

《그래 결심이 섰느냐?》

또다시 아버지의 물음이 울렸다.

봉숙은 머리를 숙인채 자리를 옮겨앉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그 대답을 듣는 명식의 심장이 후두둑 뛰었다. 바로 명식이 꿈속에서도 만나고싶던 처녀가 바로 저 처녀였던것이다. 처녀의 외모도 또 성품도 대뜸 마음에 들었다.

이때 처녀의 아버지가 솔뚜껑같은 투박한 두손바닥을 펴고 국철이를 불렀다.

《국철아! 너도 어머니 선을 보러 왔구나. 잘 왔다. 이 할아버지가 안아줄가.》

정학수가 국철이를 일으켜세워주었다.

국철이는 띠뚝띠뚝 걸어 봉숙의 아버지에게로 안겨들었다.

《에쿠, 이녀석 오줌을 쌌구나. 하하.》

할아버지가 국철이를 높이 안아주며 크게 웃었다.

《하하하, 형님은 벌써 손주의 오줌벼락을 맞았으니 복이 있겠수다. 하하.》

정학수가 곁들어 크게 소리내어 웃는통에 방안사람들모두가 따라웃었다.

순간 명식의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운것이 쿵 치밀어올랐다. 아! 고마운 사람들!

함봉숙이 아버지에게서 국철이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다. 국철이는 낮가림도 하지 않고 봉숙의 품에 안겨들어 캐드득거렸다.

(봉숙동무! 고맙소. 나이 서른이 넘도록 내 일생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오늘이요. 그리고 동무가 안고있는 국철이를 두고 누가 부모없는 아이라고 하겠소. 정말 그 모습을 영원히 심장에 새기겠소.)

《자, 약혼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자구.》

함봉숙의 아버지가 일행을 이끌고 집마당으로 나왔다.

집마당에는 하얀색, 노란색의 국화꽃이 무리져 피어있었다. 그 국화꽃을 배경으로 온 가족이 한장 찰칵, 명식이와 봉숙이 국철이를 안고 또 한장 찰칵 영원히 기념이 되게 사진을 찍었던것이다. 아!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여...

정녕 잠들수 없었다.

명식은 그날밤 안해에게 편지를 썼다.

명식은 안해를 믿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이제 그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안해는 다시 그날 그때처럼 흔연히 웃으며 내앞에 나타나리라.

이 믿음을 부정하기엔 그들사이에 흘러간 세월이 너무도 소중했던것이다.

#### 4

350갱복구굴진전투는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쳐지고있었다.

술골탄부들은 350갱을 단순히 원상복구가 아니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운반계통을 현대화하고 전력계통과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지휘할수 있는 갱막장통화체계를 실현시켰다.

이제 얼마 안있어 현대적인 갱으로 전변된 350갱에서 석탄이 쏟아지게 된다.

100일전투를 멋있게 마감짓게 됐다고 탄부들 너나없이 전례없는 열의로 양양되어있던 어느날 60중단 복구굴진전투장에서 대봉락이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이 통채로 쏟아

저내린듯 했다.

탄광참모부에서는 대붕락구간복구작업을 중단시켰다. 현장에서 참모회의가 진행되었다.

참모회의에서는 두가지 의견이 제기되었다.

몇몇 참모일군들의 견해는 대붕락구간은 무론 탄질점판암이기때문에 그 붕락구간이 수십미터 아니 그 이상일수 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몇천공수를 들여도 붕락구간을 극복할수 없다. 방도라면 하나, 대붕락구간을 에돌아가는것이다.

하지만 탄부들은 그 의견에 반기를 들었다.

땅속의 지질변화는 예측할수 없다. 따라서 붕락구간이 얼마인지는 가늠할수 없다. 참모부의 의견대로 붕락구간을 에돌아가면 갯운반로선에 곡선이 생기며 막대한 자재와 로력이 들것이다. 또 60중단때문에 350갱복구기일이 드려질수 있다.

서로 엇갈린 주장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참모부에서는 대붕락구간에 누구도 얼씬 못하게 하며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떨어주었다.

탄부들은 손땀을 놓고 작업장에서 철수했다.

작업기소리, 함마소리 드높던 작업장에는 일시 정적이 깃들었다.

장명식은 작업장에 홀로 앉아있었다.

작업장에 남아 여기저기 붕락구간을 살펴보고난 참이었다. 붕락구간은 험창하기 그지없었다. 강한 지압으로 동발목이 뭉칭 허리를 잘렸고 그사이에 바위만큼 큰 버럭이 위태롭게 걸려있었다.

(정말 무론탄질점판암이 수십미터이상일가? 그렇다면 굴을 에돌수밖에 없지 않는가. ...)

명식의 속생각은 점차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아구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격언으로 몰아졌다.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해보자.

작업장에는 명식이 혼자뿐이다.

국철이랑 전투원들은 었어진김에 쉬어간다고 휴게실에 들어가 잠간 눈을 붙였을것이다.

명식은 신발끈을 졸라매고 혁띠도 바싹 조였다.

이때 평곳 안전등빛이 비쳐지며 누군가가 다가온다.

《누구요?》

《접니다, 국철입니다.》

명식은 못할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다.

국철이는 이미 아버지의 속내를 알고 찾아온것이였다. 명식은 이렇게 된바에는 아들의 동의를 얻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철아! 아버지 이 갯을 개발한 사람이다. 그러니 누구보다 갯문세를 잘 알지. 그래 저 붕락구간에 들어가보려 한다.》

명식은 울렁이는 가슴을 달래며 우정 꾸며낸 평

온한 말투로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견을 뭉칭 잘라버렸다.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국철은 아버지가 들어가려는 붕락구간이 어떤 곳임을 모르지 않는다. 눈 깜박하는 순간이면 생명을 잃을수 있는 무서운 곳이다. 그런 위험한 길에 절대로 아버지를 들여세울수 없다.

《국철아, 여기 좀 앉자. 내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명식은 국철이와 함께 버럭돌우에 앉았다.

《국철아, 지난 세기 80년대에 있는 일이다.

그때 우리 탄광에서는 당이 제시한 200일전투호소를 심장에 받들고서 새로운 탄발 350갱을 개발하여 조국에 선물하기로 맹세하고 그 개발전투로 불도가니마냥 끓고있었다.

그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막장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레년에 없이 오래동안 내린 장마비로 하여 지하수가 터졌는데 이 60중단에서 폭포같은 물줄기가 터져나왔단다.

그걸 그대로 놔둔다면 막장은 물론 나라에서 보내준 귀중한 설비들이 물에 잠겨 못쓰게 될판이었지.

누구나 안타까워 손에 땀을 쥐였지만 감히 그 물속에 뛰어들념을 못했다. 한초, 한초 시간은 흐르고 물은 그냥 차올랐지.

이때 한 탄부가 동발목을 안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탄부는 미궁같은 물속에 뛰어들어 끝 끝내 물구멍을 막아버렸지... 그리고 다시는 물위에 떠오르지 못했단다.

그후 양수기로 차오른 물을 퍼내고보니 글썄 그 탄부는 동발목과 함께 한몸으로 물구멍을 막은 채... 애, 국철아. 그때 그 탄부는 자기가 그 물속으로 뛰어들면 생명을 잃을수 있다는걸 몰라서 그랬겠니?...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에 영웅적소행을 발휘할수 있는거란다.

국철아! 이 아버지는 량심의 빛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제발 이 길을 막지 말아주렴.》

명식은 간절한 기대가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국철의 눈가에서 물기같은것이 번쩍거렸다.

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탄부의 영웅적소행에 감동되었고 또 아버지의 결심이 가슴뜨거웠다.

하지만 그 위험한 곳으로 아버지 혼자 들여보낼수는 절대로 없다.

《아버지! 저와 함께 들어갑시다.》

명식은 아들의 뜻을 지지할수가 없었다. 국철이는 부모들의 뒤를 이어 탄광을 떠메고나갈 세대

이다.

《안된다!》 명식은 아들을 밀어내며 돌아섰다.

《아버지! 막장을 구원하고 희생된 그 영예탄부가 살아있다면 제약을 막지 않았을겁니다.》

국철이가 명식을 붙잡으며 웨치듯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 뜨거운것이 쇠물처럼 이글거렸다.

명식은 아들의 결심을 꺾을수 없음을 느꼈다.

그래, 대나무에서 대나무가 나오기마련이지. 장한 아들아, 함께 들어가자.

명식은 아들의 단단한 두어깨를 뜨겁게 잡았다.

《함께 들어가자! 이 아버지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마.》

명식은 아들을 이끌고 한메터, 두메터 봉락구간을 극복해나갔다.

얼굴에서는 비지땀이 흘러내렸다.

한치한치 배밀이로 버럭돌을 파헤치며 전진했다.

이때 앞쪽에서 잔버럭들이 쏟아져내렸다. 그건 짐이 온다는 징조이다.

명식은 곁에 있는 아들을 몸으로 덮었다. 다행히도 큰 봉락은 아니었다.

《아버지!》

국철은 자기 몸을 덮은 아버지를 밀어내며 목메여 불렀다.

《일없다, 자 전진하자.》

명식은 아들을 이끌고 또 한메터를 전진했다.

그러던 명식은 어느 한 곳에서 버럭돌을 쥐여들었다.

유심히 들여다보던 명식은 안전등으로 굴벽을 비쳐보았다.

명식의 눈가에 기쁨이 어렸다. 그가 유심히 살펴본 돌은 사질점판암이었던것이다.

《국철아, 됐다. 이제부터는 사질점판암이다. 그러니 10메터의 봉락구간만 극복하면 굴을 예돌지 않아도 될것 같구나.》

《아버지!-》

《국철아!》

부자간은 숨막히는 속에서도 얼굴을 맞대고 비비며 승리자의 희열을 한껏 터치였다.

《국철아! 어서 나가자.》

명식은 국철이를 이끌고 무사히 봉락구간을 빠져나왔다.

봉락구간밖에서 돌격대원들이 명식이와 국철이를 에워쌌다.

국철이가 봉락구간에서 가지고나온 돌을 보이며 말했다.

《동무들! 이것 보오. 우린 갱을 예돌지 않아도 60중단을 극복할수 있소.

자, 이런 암석이면 동발목이 없이도 굴진해들어갈수 있소.》

정학수로인이 수진으로 국철의 얼굴에 내배인 땀방울을 닦아주며 말했다.

《참, 그 사지판에 들어가다니... 명식이! 국철아! 임자들은 진짜탄불세.》

정학수로인은 두사람을 힘껏 껴안았다.

60중단은 일정대로 직선주로방향으로 복구굴진을 진행하게 되었다.

돌격대원들은 제멋대로 갈껌질을 하려는 땅속의 변화를 억센 손아귀에 거머쥔 자신만만한 자세로 대봉락구간을 복구하고 사질점판암에 착암기를 박았다.

그러던 어느날 굴진막장에서 착탄징조가 나타났다. 착탄징조는 석탄밭을 예고해준다.

명식은 진득진득한 착탄덩어리를 두손에 안아쥐었다.

《국철아! 또 한발과 때려라.》

막장엔 또다시 착암기동음이 울려퍼졌다.

착암수들은 번개처럼 18개의 발파구멍을 뚫었다. 발파공들은 재빠르게 화약을 장약하고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쵸, 쵸!

지심을 뒤흔드는 천둥같은 발파소리가 울렸다.

대피호에서는 역대우같은 사나이들이 안절부절을 못하고 서성거렸다.

(젠장! 압축기바람은 오늘따라 왜 굼벵이 한가지야. 단번에 화약내를 밀어내는 법은 없는가?)

조급한 마음들에 엇서기라도 하는것처럼 화약내는 무척 굼뜨게 빠졌다.

조급해진 돌격대원들이 움썹움썹 막장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 틈에 국철이가 먼저 화약내가 채가서지지 않은 막장으로 뛰어들어갔다.

국철이는 돌 한덩이를 집어 들고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돌덩이는 맥없이 부스러졌다.

《석탄이다!》

《만세!》

국철의 웨침소리에 이어 저마끔 터치는 돌격대원들의 함성이 굴간을 짹 채웠다. 얼굴들에는 온통 희열의 빛이 번쩍거린다.

뒤미처 막장에 도착한 명식이 회썩uhn 화약내를 밀어내며 굴벽앞에 서있는 국철에게 물었다.

《국철아, 탄폭이 얼마냐?》

《아버지! 3메터가 넘습니다.》

《뭘라구?》

명식의 심장은 터질듯 뛴뛰었다. 그만하면 대단한 탄폭이다.

《이젠 350갱이 살았구나!》

명식은 석탄무지에 펄썩 주저앉았다.

아, 이날을 얼마나 기다려온 탄부들인가.

명식은 안전등으로 몇번이고 탄밭을 비쳐보았

다. 번쩍거리는 비계탄총이 짝 입을 벌리고있다. 저 탄벽에 힘껏 곡괭이를 박으면 한 광차는 문제 없이 털어낼 기름진 탄발이었다.

어느 책에선가 석탄을 《검은금》이라고 했지... 그래그래, 석탄은 《검은금》이다. 저 번쩍이는 석탄에서 전기가 나오고 비료가 나오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가 창조된다. 그 《검은금》을 탄부들이 캐낸다.

명식은 이 순간 탄부된 공지를 한껏 느꼈다. 탄을 캔다고 탄부가 되는것은 아니다. 탄처럼 자기를 깡그리 태워 조국을 받들 때 그 조국의 번영과 함께 탄부의 영예가 빛나는것이다.

명식은 오늘 비로소 아들앞에 떳떳하게 나설수 있는 탄부의 자격을 되찾았음을 스스로 느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이 아버지인 350갱의 탄발을 새 세대 탄부, 너와 함께 찾은걸 공지로 여긴다.

어서 소리높이 자랑하거라. 《우리 아버지는 탄부다! 나는 탄부의 아들이다!》라고 말이다.)

그랬다. 명식은 다시 탄광에 내려온 길지 않은 나날에 석탄도 찾았고 잃었던 탄부의 랑심도 찾았다. 그 나날에 아들에게 탄부의 바통이 굳세게 이어지고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의 생이 하나로 이어졌다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것이다.

석탄을 놓고 울고웃는 명식이와 국철에게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찾아들었다.

안해가 이사집을 싸들고 탄광으로 내려온것이다.

명식이와 국철이는 막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명식은 안전모에 한줌두줌 소중히 석탄을 퍼담으며 아들에게 말했다.

《국철아! 우리가 캔 석탄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자.》

국철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읽었다.

아버지의 온넋이 이 탄속에 깃들어있다. 그래, 아버지의 넋이자 이 탄이라고 국철은 말하고싶었다. 그 넋의 진가를 잘 알기에 어머니도 늦게나마 자기 자리를 찾아 탄광으로 내려온다. 그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석탄이다.

국철이도 아버지와 함께 한줌한줌 석탄을 퍼담았다.

밖에서는 이해의 첫눈이 소담히 내렸다. 탄광마울은 흰눈으로 단장되었다. 저탄장에도 검은빛이란 찾아볼수없이 온통 흰눈투성이다. 아직은 바닥이 난 저탄장에 며칠 안있으면 산처럼 석탄이 쌓아질것이다.

며칠 있으면 새해다.

우리 조국땅에 변이 난 해의 마감을 명식이네는 새로운 탄발을 찾은 하나의 변으로 뜻깊게 장식한셈이다.

두사람은 솟눈길에 뚜렷한 발자국을 남기며 진로소 앞마당을 께질러 탄부사택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탄광에서는 350갱을 마주한 나지막한 언덕에 새로 지은 탄부살림집 한채를 이들에게 배정해주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들을 기다려 봉숙이가 피워올리는 연기가 뽀얀 운무가 가득한 하늘가로 모록 모록 피어오르고있었다.

국철이는 어머니가 기다리는 집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내짚었다.

명식은 그러는 아들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국철아! 아버지와 함께 들려볼데가 있다.》

명식은 아들을 이끌고 탄광당위원회청사옆에 자리잡은 연혁소개실로 들어섰다.

국철은 탄광으로 내려와 처음으로 이곳을 찾는다.

명식은 기업소가 낳은 영예혁신자들의 사진을 소개한 벽면으로 아들을 이끌어갔다.

《국철아! 내가 얘기한 그 영예탄부가 바로 너의 친아버지다. 바로 저분이다.》

국철이는 아버지의 손길이 가리키는 곳에 눈길을 주었다.

손바닥크기만 한 흑백색사진속의 주인공은 안전모를 단정히 쓰고 희열에 넘쳐 웃고있었다.

굵은 붓으로 쿡 찍어놓은듯 시커먼 눈썹에 코마루가 우뚝한 젊은 탄부의 모습이다.

국철이는 한걸음, 두걸음 사진앞으로 다가갔다. 사진속의 아버지는 장한 일을 하고 온 아들을 반겨 웃고있는듯싶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국철이가 명식에게로 돌아섰다.

《아버지! 전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갱을 구원하고 희생된 영예탄부가 바로 저의 친아버지이며 아버지, 어머니가 젖먹이어린에였던 저를 받아안아 키워주셨다는걸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군대에 입대하는 날 정확수큰아버지가 얘기해주셨습니다.》

명식은 사무쳐오르는 격정이 머리를 한고삐 휘잡아돌리는것 같은감을 느꼈다. 흥분을 견잡을수 없었다. 그는 국철이를 와락 껴안았다.

격정으로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명식은 겨우 말문을 열었다.

《아! 그래서... 그래서 네가 탄광으로 왔구나. 국철아! 고맙다.》

아버지보다 머리 한기장은 더 큰 국철이가 명식의 등을 다정히 어루만졌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놓으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탄광의 앞날은 우리 세대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대로 훌륭히 가꾸어가겠습니다.

# 공 지

## 한 찬 보

눈덮인 1월의 언덕을 넘어  
105땅크부대를 찾으신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전방감시초소에 오르시어  
병사들의 훈련모습 보시여라

멸적의 기세높이  
흰눈 하늘가에 뿌려올리며  
질풍처달리는 땅크를 보니  
전화의 그날 진격의 일선에서 달리던  
나의 땅크를 보는듯싶구나

종구나  
내 청춘이 되살아나  
그날의 젊은 땅크병이 되어  
지금 그 대오와 함께 달리며  
장군님앞에서 사열받는듯

달리자!  
강이 두려우라  
산악이 두려우라  
전쟁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미제를 족치던 그 기세 그 속도로

어서 달리자!  
원썬섬멸을 위해  
놈들이 또다시 내 조국땅을  
한치라도 침범한다면  
이 땅에서 원썬들을 소멸하리

땅크 너는  
용맹의 나래 담력의 샘터다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 그것은  
선군이 우리 가슴에 심어준

불패의 녀  
백두의 기상

산악도 장벽도 뚫고  
원썬격멸의 열기 한껏 내쏘며  
기세 백배 용기 백배  
끝간데없이 아득히 늘어선  
아 무적의 대오 철의 흐름이어

멋이로다  
장관이로다  
너 철의 대하런가  
철의 바다런가  
너야말로 철의 선경이로구나  
장엄한 선군선경이로구나

보라!  
얼마나 통쾌한가  
나래라도 돋혔는가  
육중한 땅크가 뿔뿔 나는듯  
조종간을 틀어잡은 이 마음  
벌써 통일의 그날에 다달은듯

그래서 우리 장군님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 부대는  
싸움에서도 근위부대!  
사상에서도 근위부대!

그 공지 그 신념을 안고  
내 마음 지금 105땅크병들과 함께  
선군령장 장군님따라  
그날의 땅크병으로 진군하고있다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의 한길로!

이것이 친아버지의 생전의 소원이고 아버지가  
저에게 넘겨주려는 바통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나서 국철은 친아버지의 사진앞으로 돌아  
서서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는 술골탄광의 연혁사와 함  
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아버지가 목숨바쳐  
구원한 350명에서 굉장한 탄발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들처럼 꼭 훌륭한 탄  
부가 되겠습니다.》

정녕 세월과 세월이, 세대와 세대가 손을 맞잡  
는 더없이 숭엄한 순간이었다.

밖에서는 높다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  
이 호합지게 내리고있었다.

잠풍하고 푸근한 날씨였다.

아버지와 아들, 탄부와 탄부가 걸어가는 길우에  
따뜻한 훈향이 느껴진다.

래일은 더욱더 좋을거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 따  
뜻하고 정겨운 기운...

# 시적 탐구가 새로울 때

— 서정시 《위대한 스승의 한생》을 두고 —

허수산

시창작에서 시적탐구가 새로울 때 같은 소재, 같은 주제의 작품에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시형상이 창조될 수 있다.

새로운 시적탐구란 생활에서의 새로운 시상의 발견이며 나아가서는 독창적이고 비반복적인 서정세계의 발견이다.

시적탐구는 모든 주제의 시작품창작에서도 필수적이지만 수령형상시가문학창작에서는 더욱 절박한 요구로 제기된다.

수령형상시가문학작품은 그 사상예술적품위가 완벽하여야 한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시형상문제는 무한한 것이다.

지난 기간 우리 시인들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충정의 한마음 안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 고매한 인민적품모에 대한 시가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오늘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우리 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이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그리움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의 전부이며 더 아름답고 위대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소원이 꽃피고있는 장엄한 현실속에서 시인들은 수령님을 더 높이 우러러모시고 형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활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새로운 시형상을 탐구창조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그렇다. 시에는 언제나 시인이 탐구한 새로운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우리의 시들은 어썃비슷해져서는 안된다. 매 시에는 시인이 새롭게 발견한 시세계가 있어야 하며 세상에 대고 시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 시작품에 그 시인만이 탐구한 새로운 서정의 세계가 없다면 도대체 여러 사람들이 시를 창작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서정시 《위대한 스승의 한생》(김일규 작, 《조선문학》잡지 주제97(2008)년 9호)을 우리 시인들은 다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시인들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에 대하여 각 방면에 침투하여 좋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에는 독자들의 인상에 남는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다.

하지만 우에서 지적인 서정시는 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상에 깊이 남는다.

그러면 무엇이 새로운것인가.

그것은 시인이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품모에서, 가장 이채로운 생활에서 시적소재를 찾고 새로운 서정세계를 펼친데 있다.

시적탐구는 새로운 감동적인 시적생활을 찾는 데로부터 시작된다. 말하자면 노래하려는 시적생활이 새로울뿐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수령님의 독서생활, 참으로 이것은 많은 생각과 숭고한 감정을 불러내는 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것처럼 분망하신 나날과 순간에도 독서를 멈추지 않으셨다.

어린시절 만경봉의 잔디밭에 앉으시여 해가 저물도록 책을 읽으셨고 길림육문중학교시절 그리고 것처럼 어려운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도 조국해방전쟁의 나날, 전후복구건설의 나날...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시였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대동강물소리도 숨을 죽이던  
잔디푸른 고향의 솔숲에서  
해지는줄 모르고 책을 읽으시던  
그 어린시절처럼

...

그 추억깊은 어린시절처럼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줄곧 책을 읽으시였다.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 치마폭에 삭정을 싸 꺾어 아궁이에 불을 지펴주시던 그밤에도, 길림의 정향나무아래서도, 때로는 총창이 번뜩이는 감방안에서도, 피어린 항일전의 우등불가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은 읽고 또 읽으시였다. 그러기에 수령님께서서는 언제인가 내가 가장 좋아하고 즐

겨하는 일은 독서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두차례의 혁명전쟁도 해보시고 전후복구건설도 해보시고 사회주의건설도 다해보시었다. 그이의 1분 1초는 것처럼 귀중하시었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깊은 밤에도 이른새벽에도 책을 읽으시었다. 한생을 읽으시었다. 그이께서는 동서고금의 모든 책은 다 읽으시었다.

사실 어버이수령님의 독서생활은 숭고하고 위대한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인들은 이미전에 이에 대하여 명시를 써야 했을것이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이라도 이 생활을 시적소재로 하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생활의 한 측면을 노래한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시인은 늦게나마 이런 생활을 좋은 시로 형상화하였다.

새로운 시적탐구는 새로운 시적착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시인은 착상을 잘하였다. 이런 소재, 생활에 눈길을 돌린것자체가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처럼 감동적이고 숭엄한 생활을 탐구한것은 시인의 세계관이 혁명적이며 시인적인 자세, 립장이 바로서있기때문이다. 새로운 착상은 예리한 정책적안목과 함께 시를 발견하는 시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이 시에서 새로운 시적탐구로 되는것은 무엇인가.

아무리 시에 노래하는 생활이 위대하고 감동적이고 새로운것이라 하여도 그 생활자체는 아직 시가 아니다. 문제는 시인이 그러한 생활, 소재에서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정서세계를 찾아내는가 하는것이 보다 중요하다.

시에서는 위대하고 숭엄한 생활에서 가장 뜻깊은 사상정서를 찾아냈다.

우선 시의 제목에 발견이 있고 깊은 의미가 깃들어있다.

《위대한 스승의 한생》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시인은 무엇을 제기하였는가.

제목에 시인이 제기한 문제가 깃들어있다.

시의 제목은 시의 종자, 시의 심오한 주제사상적문제성을 제기한다.

시인이 제기하는 문제는 새롭고 독창적이고 철학적으로 심오하여야 한다.

시인의 가슴은 뜨겁고 포부는 컸다. 그는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또 다른 한 측면을 칭송하고 싶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어떤분이신가.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 천재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것인가 하는 거대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였다.

원래 우리 수령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천성적으

로 위대한 령도자의 고귀한 품모를 다 지니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은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혁명과 건설의 탁월한 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모든것에 백과전서적인 해박한 지식을 다 가지고계시는 천재중의 천재,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었다.

80여성상 장장 긴 혁명의 나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은 정녕 위대한 생애로 수놓아진 찬란한 한평생이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는 한생을 다 바치시는 수업이 필요없을것이다. 하지만 수령님께서는 한생수업을 다하시었다. 무엇으로? 독서로! 여기에 시적발견이 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였지만  
가장 소박한 인민의 숨결을 다 호흡하신분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였지만  
가장 겸허한 독자가 되신분  
그이의 시간에 세계가 따라서고  
그이의 사색에 미래가 마중오는  
그 고귀한 순간순간에  
책은 언제나 수령님의 길동무였다

...

어버이수령님께서 독서를 통하여 한평생을 수업하신것은 인민의 지혜와 슬기를 존중해서이다.

시에서는 우리 수령님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시였지만 《가장 소박한 인민의 숨결을 다 호흡하신분》 이시였고 《가장 탁월한 수령이시였지만/가장 겸허한 독자가 되신분》 이시였다는것을 말하면서 책은 언제나 수령님의 길동무였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사상을 그이의 독서라는 생활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시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천재성, 그이의 한생의 수업은 무엇이고 어디에 원천을 두고있는가를 깊이있게 천명하였다. 다시말하여 시에서는 무계있고 폭넓은 시적사상을 천명하였다.

바로 이 독특하고 심오한 철학적인 사상은 시인이 제기한 시적생활에 거대한 문제성을 담고 시적해명을 명백하게 준데 있다.

우리 수령님, 위대한 스승의 한생은 인민에게서 배우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한생이라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선생은 인민이였다.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아, 고귀한 인생의 진리  
위대한 혁명의 철리로  
조국과 인류앞에  
사랑과 인정의 세계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펼쳐주신  
위대한 스승의 한생이었건만

우리 수령님은  
책을 보시며  
자신의 한생을 수업하시었다

실로 가슴을 치는 결구이다.

우리 수령님은 고귀한 인생의 진리, 위대한 혁명의 철리로 조국과 인류앞에 사랑과 인정, 지성과 문명의 세계를 펼쳐신 위대한 스승이시였건만 책을 보시며 한생을 수업하시었다는 시적해명은 참으로 깊이있는 시적사상이다.

시인이 제기한 사상주제적문제성은 이렇게 통쾌

하게 해명되었다.

독자들은 시를 덮어놓고 생각한다. 우리 수령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수령님의 한평생은 어떤 한평생이시였는가를 깊이 음미해보며 눈굽을 적신다.

늘 사색하고 사색할 때 새로운 시적탐구가 이루어진다.

앞으로 우리 시인들은 이 시에서 좋은 점을 참고로 하여 시창작에서 자기들의 탐구의 세계를 깊이하고 끝없이 넓혀나가야 할것이다.

시적탐구를 새롭게 하자면 우선 우리 장군님의 의도와 높은 뜻을 알고 현실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현실에서 생활의 본질을 볼줄 알고 무엇이 시적소재로 되고 그 시적소재에서 어떤 새롭고 독창적인 자기의 서정세계를 펼칠것인가를 두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시적사색을 깊이 할 때 같은 소재, 같은 주제의 생활분야에서도 능히 새로운 시적탐구가 비낀 서정시를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 나라에 큰 변이 나더니...

### 리 광 선

나라에 나라에 큰 변이 나더니  
함주땅 동봉리에도 일이 났구나  
그 성미 한뼉 말 못하는 땅과 같던  
오리평마을의 박로인 들에 나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 많으니

일은 일이구나  
타산땀던 신덕마을 장아주머니  
황소같이 키운 돼지 청년분조에 내온것도  
도시물 먹여 키우겠다며  
함흥의 삼촌집에 보냈던 외동딸을  
리학교에 입학시킨것도

일은 일이지  
도예술단에서 데리러 왔어도  
도리질하여 눈이 눈섭우에 붙었다고  
혀차는 소리만 듣던 5분조장 순이  
같은 분조 제대군인총각과  
이 별의 영원한 주인이 되자고  
사랑의 언약을 맺은것이

일이라도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어데 있으랴  
온 한해 온몸에서 기름내만 풍기던  
제대군인 기계화반장이  
기계화반을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

영접보고를 얼마나 잘했는지  
최고사령관동지의 답례를 받은 영광은

세세년년 동해의 랑해로  
남보다 몇몇한 가을 못 맞아  
속상한 눈물로 발고랑을 적시던  
관리위원장의 그 마음 헤아려  
현지지도의 길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  
우정 찾아 들리시고 또 들리시여  
농사일 자자구구 가르쳐주신 땅

그 동봉벌에  
천지개벽을 안아오시려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시며  
계절마다 오시고 또 오시여  
전변의 가을 마련해주신  
아 고마우신 우리 장군님!

나라에 변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  
여기 동봉땅에도 좋은 일 그리도 많은가  
좋은 징조만 안아오는 변속에  
행복이 능금처럼 착실히 익어가는  
축복받은 동봉벌의 래일엔  
또 무슨 일이 우리를 기쁘게 하랴



# 한생과 하루

김 룡 수 그림 김광석

1

모든것이 뜻밖이었다.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기순의 일생에 뜨겁고 참되게 살수 있는 첫 자국을 떼여준 은인파도 같은 그 여자, 숭고하다고도 말할수 있는 그 여자의 운명이 이렇게 이런 장소에서 추억되리라고는 누구도 전혀 생각지 못하였다.

만수대의사당의 어느 한 방.

장내에는 감동과 걱정을 내포하고있는 엄숙한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드디어 주석단 연단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한 일군이 나섰다. 그리고는 정령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국통일상〉을 수여함에 대하여  
...》

바로 그 《조국통일상》수상자들의 이름속에 그 이름도 들어있었다.

김혜심.

장장 50여년이란 세월의 갈피를 헤치고 만사람 앞에, 력사앞에 떠오른 여자.

잊을때야 잊을수 없는 뜨거운 자취를 남기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져버렸던 여자가 오늘 이렇게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전우들과 만났다.

장기순과 강옥녀는 서로의 손을 부둥켜잡았다.

《기순동무, 혜심언니가 〈조국통일상〉을 수여 받았어요. 이게 정말 꿈이 아니지요?》

《그래, 꿈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혜심

동지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하는 모임에 참가하게 될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날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라는것만은 명백해.

옥녀동무, 우리 이렇게 만나는게 몇년만이야?...》

깨끗한 은발에 단아한 몸매를 로년에도 형클어뜨리지 않고있는 장기순이 청진내기 전우인 강옥녀에게 하는 말이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희생된 김혜심에게는 단 한명의 혈육도 없다. 그래서 함께 싸운 전우들이 오늘날모임에 방청으로 초청되었던것이다.

그 나이에 허리도 굽지 않은, 여자치고는 좀 큰 키의 옥녀는 몸에서 바다가지방의 청초한 해감내가 야릇하게 풍기는 강파른 몸매의 늙은이였다.

《그래, 50여년만이야. 기순동무, 그때 그 곱던 모습이 다 사라지고 파파늙은이가 되어 만나고보니 무얼 말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기순동무 혜심언니를 신병훈련때 처음 만났는지?》

옥녀의 물음에 기순은 머리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신병훈련때였어. 난 그때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죽어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일이 사람에겐 꼭 있는 법이거든요.》

옥녀가 다시 기순에게 물었다.

《기순동무! 그때 혜심동지가 자주 부르던 그 노래, 〈구국투쟁가〉 생각나요?》

기순은 머리를 끄덕였다.

둘은 약속이나 한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보아라 피에 젖은 남조선땅을

우리 부모형제가 목숨걸고 싸우는 땅  
일어나라 조국의 아들딸들아  
조국의 운명이 우리 힘에 달렸다  
...

×

장기순이가 김혜심동지를 처음 만난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진명녀  
자중학교에서였다.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방송연  
설을 받들고 노도와 같이 진격하여 전쟁이 일어난  
지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였다.

하늘도 땅도 온통 지글지글한 피약별과 전쟁이  
라는 열파로 뒤번져진 6월의 그날에 이 녀자중학  
교에서는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해나선 청년들로 한  
창 법석판을 이루고있었다.

그때 기순의 나이는 열여덟, 그는 쌍태머리를  
아무 미련없이 자르고 입대를 탄원하였다.

학교는 유럽식건축양식의 일종인 삼각지붕밀  
에 위엄있는 궁륭식창문들을 번적이며 묵중하게  
앉아있었다.

그때 기순은 난생처음 군복이란것을 입어보고  
몹시 흥분되어있었다. 군복에서 나는 솔향기 비슷  
한 물감냄새마저 그에겐 무척 신비롭게만 여겨졌  
다. 더불어 자기가 이제 뛰어들게 될 전쟁의 세계  
라는것이 몹시 두렵게 예상되기도 했다.

그가 방금 옷을 갈아입고 창을 여는데 나이가  
스물을 지나보이는 한 초면의 녀자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며 들어섰다. 그도 기순이와 다를바 없는  
새 군복차림이었다.

《입던 옷이 새것이나 다름없는데 집에 보내야  
하지 않겠나요?》

구면인듯이 그 녀자가 다정하게 기순에게 말을  
건넸다. 그의 군복차림은 구대원처럼 규모있고 단  
정하였다. 얼굴에서는 군인다운 강단이랄가, 강인  
함이 느껴져 첫인상이 무척 어려워보였다.

그런데다 그의 왼쪽눈썹우엔 며칠전에 난듯 한  
생생한 상처자리가 얼핏 보였다. 그것을 가리우려  
고 일부러 내려빚은듯 한 머리칼이 열려진 창문으  
로 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렸다.

찬찬히 보니 그의 오른쪽턱밑에도 옛 상처자욱  
이 희미하게 나있었다.

기순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체적으로 풍겨  
오는 강인함이 바로 저 상처자리에서 오는것이 아  
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김혜심이라고 해요. 함께 싸우자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며 그는 다시 말했다.

《옷을 집에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기순은 금시 시무룩해지며 말했다.

《전 여기에 집이 없어요. ...》

《그럼 어디에 거처하고있었게요?》 그가 물었다.

《둘째오빠와 함께 종로구 채부동 하숙집에... 그  
런데 난 이 옷을 누구에게 줄 사람이 없어요. ...》

금시 떠오르는 동생 생각에 기순은 갈린 목소리  
로 말했다. 그리고 떠들떠들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기보다 두살아래인 하나밖에 없는 녀동생이 마  
울에 있는 미군병영기지에 있던 미군놈에게 겁탈당  
하고 억울하게 죽은 기막힌 사연에 대해서...

《그래 난 그놈, 카톤이란 놈을 복수하려고 군  
대에 나왔어요.》

기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순의 이야기를  
듣는 혜심의 눈가에도 해빛에 뭔가 반짝이는것이  
보였다.

창밖에서는 먼저 군복을 갈아입은 처녀들이 공  
을 가지고 법석 떠들어대는 소음이 여름날의 훗훗  
한 대기를 누르고 들려왔다.

《고향은 어디예요?》

기순을 측은하게 바라보던 그가 주머니에서 동  
그란 분박을 꺼내 펼치면서 물었다.

그때 기순은 군인과 전쟁과 하등의 인연이 없어  
보이는 분박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것을 퍼그나 의  
아쩍게 생각하였다.

《전라북도 줄포면이에요. ...》

열려진 광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에 울적한  
기분이 어느 정도 가셔지는감을 느끼며 기순이  
물었다.

《언니는요?...》

《나도 고향이 이 남반부예요. ... 자, 어서 눈물  
자욱을 닦자요.》

혜심은 얼른 광속에 있던 하얗고 보드라운 분  
침을 꺼내며 기순의 눈가며 두볼을 가볍게 비벼  
주었다.

그리곤 기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얼굴을 바라보  
았다.

《기순동무! 앞으론 더 울지 않게 될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린 꼭 승리하게 되니까요.》

이어 기순의 군모를 바로잡아주던 그가 갑자기  
웃으며 기순에게 《자, 예쁜 처녀. 한번 웃어봐  
요.》 하고 큰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더니 느닷  
없이 감탄조의 목소리로 기순을 놀래웠다.

《아이! 요 쌍뿔이, 꼭 상아빛이구나! 이담 늙  
어서도 이렇게 고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더니 그  
는 더욱 밝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노래 하나 부를게 들어보겠어요?》

《?...》

쌍뿔이 있는 애는

시집 두번 간대요

시집 두번 가며는

...

돌연 기순에게는 유년시절에 그 노래를 불러대고 도망치던 애들을 따라 종주먹 쥐고 달려가던 고향의 바다가 줄포리백사장이 떠올랐다.

서글프게 웃으며 어쭙게 치어드는 기순의 손을 본 그는 노래를 그치며 명랑하게 웃었다. 그 웃음속에는 신선한 그 무엇이 있었다. 그 웃음에 방안공기마저 청신해지는것 같았다.

(좋은 사람 웃는거 보면 안다더니!) 하고 기순은 생각하였다.

이어 마주선채 두손으로 기순의 양어깨를 천천히 내리쫓던 그가 말했다.

《이 나라 절반땅을 미군놈들이 통채로 타고앉아 참화를 입혔는데 동생인들 어떻게 그것을 피할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우린 이제 더 단 하루한시도 노예로는 살수 없어요. 나도 전쟁전에 미국놈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잃고 감옥에 끌려갔다가 이틀전에 인민군대에게 구원되어 어제 군복을 입었어요...

우리 힘을 합쳐 하루빨리 미제놈을 쳐부시고 통일된 나라에서 마음껏 웃으며 살아보지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기순은 사람의 슬픔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사라지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제야 그의 젊은 얼굴에 생긴 상처자욱을 어렴풋이나마 상상해볼수 있었다.

그에게 랑해를 구한 기순은 학교정문밖으로 나갔다. 그가 지나가던 낮모를 처녀에게 옷을 안겨주자 머리가 밤빛인 그 처녀는 의아쩍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기순은 다시 언니처럼 여겨지는 혜심에게로 뛰어갔다. 혜심은 칭찬하듯 소리없이 웃고 서있었다.

이렇게 기순은 군복입은 첫날에 김혜심과 알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신병녀성대대 3중대 1소대에 배치받은 기순은 대렬 맨 앞줄에 서있었다.

그 학교마당에서 신병훈련을 하게 되었던것이다.

김혜심이 소대 대렬보고를 하였다.

그가 처녀들중에 나이가 제일 많기때문에 그런 중임을 맡은줄로 기순은 생각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훈련의 나날이 시작되었다.

대렬훈련, 장애물극복훈련, 사격훈련 등등...

사격훈련이 처음 시작되던 날 소대별로 나뉘어 훈련하던 신병대대는 다시 정렬하였다.

얼굴은 엄하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퍼그나 부드러운 대대장이 구레나룻자리를 문지르고나서 말했다.

《이제부터 3중대 1소대 김혜심동무의 시범사격동작을 보여주겠습니다.》

술한 처녀들이 대대앞에 나와 서있는 혜심을 선

망의 눈길로 지켜보았다.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체격, 칼날같은 눈썹밑에서 빛나고있는 진한 눈동자, 강인함이 느껴지는 입귀가 꼭 다물린 입술...

제시된 목표판은 다섯개였다.

침착하게 자세를 취하고 쏘아사격, 옆드려사격 등 여러가지 동작으로 크게 숨도 돌리지 않고 연방 쏘아갈기는 혜심의 사격술은 모두의 경탄을 자아냈다. 신통히도 그가 쏜 총알은 다 목표판의 중심과녁을 정확히 명중하였던것이다.

그날 그의 시범사격동작을 보고 온 대대가 다 놀랐다. 그 놀람은 기순이가 더하였다. 그날 기순의 시야에 안겨온것은 처음 만났을 때의 혜심 이와는 전혀 판이한 모습이였다.

저보다 퍼그나 어린 기순을 어른처럼 존중해주고 슬픔에 잠긴 그를 부드럽게 위안해주던 혜심의 온순한 용모속에 그렇듯 경탄스런 사격술과 침착하고 절제있는 동작이 배여있으리라고는 상상밖이었던것이다.

그날부터 소대의 사격훈련은 김혜심이 지도하게 되었다.

찌는듯 한 무더위와 정수리를 따갑게 지저대는 퇴약벌아래 옆드려서 조준훈련을 하는것은 남들보다 몸이 실한 기순에게 있어서 조련치 않은 일이였다.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눈두덩에 줄줄 흘러내려 맺히는 땀방울때문에 기순은 종종 사격자세를 헝클어뜨리고 눈을 비벼야 했다. 그러는 기순을 지켜보던 혜심이 다가와 엄한 어조로 말했다.

《기순동무! 조준훈련시에는 최대한 정신을 눈에 집중해야 해요. 명심해요. 총구에서 1미터 편차가 나면 파녁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것을...》

혜심은 기순의 눈을 정면으로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기순이가 용기를 내어 마주본 그 눈엔 자기를 귀엽게 보던 어제날의 눈빛은 보이지 않았다. 기순은 그 눈빛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자신이 아직은 다 가늠할수가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생각은 뻔한데 숙련은 조련치 않았다.

혜심은 밤에도 기순을 훈련장에 불러내곤 하였다.

며칠후 대대에서는 사격판정이 있었다.

그런데 기순의 눈상태가 좋지 않았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얼굴을 자꾸 벽벽 문질러버릇해서인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고 눈안이 깔끄러운게 모래가 들어간것처럼 아려왔던것이다.

기순은 눈을 삼박이며 최대한 눈에 충기를 모아 보느라고 정신을 도사렸으나 목표판 5개중 2개는

맞히지 못하고말았다. 막 울고싶었다. 왜서인지  
혜심의 얼굴부터 쳐다보았다.

얼핏 보매에도 혜심의 얼굴에 락심과 실망의 표  
정이 비낀것이 알렸다.

그날 밤 병실에 찾아온 혜심은 기순의 손에 약  
병을 쥐여주며 말했다.

《기순이! 동문 결막염이 온것 같애. 이 눈약을  
넣고 자요. 눈간수를 잘해야 충도 잘 쏘지.》

《고맙습니다!》

죄스러운 기분에 당황해난 기순은 혜심의 얼굴  
을 마주볼수가 없었다. 그러는 그를 다정히 여겨  
보던 혜심은 말머리를 떼었다.

《기순동무! 내 한마디 할가? 동문 입대하는 첫  
날 미군놈에게 유린당하고 억울하게 죽은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인민군대에 입대한다고 했지.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갈아도 총을 잘 다루지 못  
하면 한을 품은채 적에게 잘못되고말아요.

명심해요! 총은 지난날 억울하게 짓밟혀 살아온  
동무자신과 우리모두의 운명을 뒤바꾸어줄 무기예  
요. 그 총의 주인이 되지 않는 한 동무의 운명은  
달라질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번 사격때에는 기순이가 잘 쏘리라고 믿어  
요. 과녁판을 망탕 보지 말고 불쌍한 동생의 얼굴  
을 떠올려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실수는 하지 않  
을거예요.》

기순은 혜심의 말을 마디마디 명심하였다.

그래서 다음번 사격관정때에는 만점으로 평가되  
었다.

그때 더할나위없이 만족해하고 대견스레 바라보  
던 혜심의 기쁜 얼굴빛...

기순은 신병생활의 첫시작부터 혜심의 지도를  
받으며 누구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 무  
진애를 썼다.

그러나 기순은 아직 열여덟살의 애어린 처녀였  
다. 삶에 대해서는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  
은 나이였다.

청춘시절의 하루하루가 미래의 몇십년을 대신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날의 공간은 인생의 무서운  
공백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리해하기에는 아직 많  
은 체험이 필요했다.

×

류다른 7월의 무더위에 진행된 신병훈련을 끝마  
친 대대성원들은 각기 자기 임명받은 부대로 헤어  
지게 되었다.

여기저기서 승리하고있는 전선소식들이 날아  
들던 때였다.

처녀들이 신병훈련을 받던 한달동안에만도 인민  
군대는 벌써 남조선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고 소백

산줄기와 지리산줄기를 넘어섰던것이다.

전라북도 줄포면 줄포리 바다가의 작은 포구마  
을... 지주놈밭에서 새를 쫓아주고 한술씩 얻어먹  
으며 기순의 유년시절이 흘러가버린 그곳...

산지기머슴이던 아버지의 혼백이 사무친 기순의  
고향도 바로 그때 해방되었다.

1950년 8월초 신병녀성대대에서 김혜심과 기순  
을 비롯한 몇명은 ×군단에 소속된 ××호야전병  
원에 배치받았다.

그때 군단직속 정찰중대원들이 미군놈들에게서  
로획한 자동차 8대를 녀성신병대대에 보내  
주었는데 ××호야전병원을 향한 혜심이네 조에도  
1대가 차례지게 되었다.

그들은 거밋푸릇하게 얼룩덜룩한 그 로획한 차  
를 타고 주력부대의 뒤를 따라 남으로, 남으로 줄  
달음쳐나갔다.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편결하는 위치에 놓여있  
는 속리산입구에 이르렀을 때였다.

조용해보이던 산자드락길에서 어디서 나타났  
는지 괴뢰군복을 입은 몇놈이 저희네 차인줄 알고  
손을 흔들며 차를 세우라고 고아대고있었다.

놈들은 애들이 따쿵총이라고 하는 미국제 단발  
식총을 메고 차를 향해 다가오고있었다.

그때가 기순에게는 첫 전투였다.

긴장과 당황으로 하여 가슴속 어느 구석에 방망  
이가 숨었던 모양 쿵쿵 흉벽을 세차게 두드려대는  
소리가 귀에 들릴 지경이었다.

기순은 침착해지려고 몇번 호흡을 크게 들  
이켰다.

이때 별안간 그의 등뒤에서 기관단총의 새된 련  
발사격소리가 들렸다. 따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몰켜섰던 한무리의 적들이 지나는 달구지바퀴에  
강냉이대 쓰러지듯 너부러졌다.

재차 이어지는 맹렬한 사격소리에 튕선우에 있  
던 놈들도 비탈쪽으로 떨어지는 나무아지들과 함  
께 굴러떨어졌다.

기순이가 돌아보니 기관단총을 쥐고있는 사람  
은 혜심이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어려있는 침착  
한 표정과 옅은 웃음발이 기순의 마음속으로 슬며  
시 옮겨오는것 같았다.

《목표를 겨누고 쏘면서 빨리 밖으로!》 하고 그  
가 나직이 소리쳤다.

그들은 재빠르게 밖으로 뛰쳐나갔다.

전투라기보다 상대적인 우세로 싸움은 끝났다.  
산야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듯 다시 고요가  
깃들었다.

기순이가 첫 전투의 희열로 가슴들먹이며 땀을  
씻고 쏘는데 혜심이가 다가왔다.

《우리 덩지 큰 꼬맹이, 몇놈 잡았게?》

말투를 보니 혜심이도 봉— 떠있었다.

기순은 으쓱하여 《두놈, 두놈을 맞혔어요!》 하고 커다란 장총을 그에게 내밀어보였다.

잠시 그에 눈길을 주었던 혜심은 옆의 처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 총이 맞혔나, 우리 쌍둥이가 잡았지! 처녀가 첫 전투에서 두놈을 제긴건 정말 대단해!》

그렇게 말하는 혜심의 얼굴에는 마치 자기 집 터밭에 뛰어들었던 메돼지를 함께 잡은 동생을 대견히 여기는 랑만적이고 정겨운 표정이 어려있었다.

기순은 그날 첫 전투세례를 겪고나서 혼란때 그리도 엄격하게 요구성을 높이던 혜심에 대해 진정으로 고맙게 생각하였다.

## 2

기순과 옥녀는 모임이 끝나자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의사당구내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꽃나무들로 짝 차있어 하나의 웅근 숲을 방불케 하였다.

추억의 여파에 아직 잠겨있던 두 녀인은 싱그러운 초목의 냄새를 한껏 들이키었다.

《정말 잊지 못할 시절이었지요. 우리가 ××호 야전병원에서 복무하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아마 기순동무와 내가 처음 만난게 1950년 9월 그 야전병원에서였지요.》

옥녀의 말이었다.

《예, 그 야전병원에서 옥녀동무도 처음 만났고 피도 처음 봤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는지 기순의 얼굴에 추연한 표정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옥녀가 기순의 팔굽을 잡으며 성급히 말했다.

《그때 우릴 찢찢매게 했던 그 분대장동무 생각나요?》

갑자기 전네는 말에 기순은 어리병해졌다.

《누구?...》

《아, 그 뇌타박으로 눈을 못 보는채로 담가에 실려왔던 힘장수...》

제격 생각해내지 못하는 기순이가 속상한듯 옥녀는 그의 팔을 흔들었다.

《가만, 가만... 그 우리 둘이 붙잡고 찢찢매다가 혜심동지가 와서야 진정시켰던 그 동무?... 그 동무 이름이...》

《박춘학!...》

《맞아, 그 이름이 맞아요. 그런데 그 동무 생각은 왜 갑자기?...》

《기순동무! 우리 그 동물 만나러 갈가?》

기순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 동무가 살아있어요?》

그 말에 되려 옥녀의 눈이 동그아졌다.

《살아있잖으면 그 동무가 죽었대요?》

기순은 설레설레 급하게 팔을 내저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 동무 소식을 그후론 아예 못 들었길래 하는 말이에요. 그 동무가 어디 있어요?》

《어유, 한생을 군복입고있다가 이제는 집에서 손녀, 손주 동무가 되었지요. 그 동무 전화번호가 내게 있어요. 우리 그 동무 집을 들이치자요.》

《그래, 그래.》

둘은 마음속에 잠재해있던 동심의 웃음을 뿜어내며 공중전화소로 서둘러 다가갔다.

조국해방전쟁의 그 시절 연약한 간호원처녀들을 찢찢매게 했던 거방진 체구의 박춘학분대장은 한생을 총과 함께 산 군인의 자세를 아직도 형클어뜨리지 않은 장신의 사나이였다.

어디에 그때모습이 남아있을가. 두 녀인이 한참을 뜯어봐서야 가운데가 움푹 패인 인상적인 아래턱이며 유명하게 질던 수염자리가 시퍼런것이 눈에 익은 모습으로 안겨왔다.

《혜심동지에게 〈조국통일상〉이 수여되었단 말이지요?》

한참을 아이들처럼 벅적거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난 세 전쟁로병들이 진정을 하고 잠간동안의 침묵이 서리자 박춘학이 의미깊게 하는 말이었다.

《정말 그분은 〈조국통일상〉을 수여받을만하지요. 나의 생은 그분에 의해 이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정말 김혜심간호장을 언제 한번 잊어본적이 없었습니다.》

작열하며 모란봉너머로 사라져가는 저녁노을의 잔광이 셋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있는데 그들의 상념은 한결같이 야전병원으로 거슬러올라가고있었다.

×

×산기슭에 자리잡은 야전병원에 도착한 기순이네는 전쟁이란 피와 피, 생명과 생명의 대결임을 첫날부터 섬찍하도록 인식하게 되었다.

《피... 피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은 존재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 청춘들은 그 귀중한것을 원쑤 미제를 죽이는 성전에 아무런 후회없이 바쳐가고있다.

이들을 위해서라면 나도 피 한방울 아낌이 없으리라. ...》

첫날밤 기순이가 일기장에 적어넣은 글이었다.

병동에 들어오는 부상병들의 봉대가 젖어있는것으로 보아 전선이 여기서 멀지 않았다는것을 짐작할수 있었다.

기순이네는 거의 실천속에서 간호원강습을 받았

다. 길지 않은 나날에 벌써 간호원들은 군의들의 손길이 모자라는 속에서 위험한 상태의 환자를 몇 명이나 살려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기적적인 일만 계속되는것은 아니었다.

어느날 폭풍에 뇌타박으로 눈과 귀를 상한 환자가 담가에 실려왔다.

실신상태에서 깨어난 그는 병동이 떠나갈듯 소리치며 태질하고있었다. 병력서에는 ××사단 3대대 2중대 박춘학이라고 그의 이름이 밝혀있었다.

당황한 기순이가 안절부절못하고있는데 옆에 있던 그또래 간호원이 달려왔다. 그가 바로 청진에서 입대했다는 옥녀라는 처녀였다.

환자는 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있었다. 가끔 경련성발작까지 일었다.

눈결막을 확인함에 앞서 급히 진정제부터 주사해야겠다고 생각한 기순은 부득불 강제적인 방법으로 제압하리라 마음먹었다. 옥녀와 둘이서 환자를 붙잡고 쥔때마다 주사를 놓으려다 환자가 용을 쓰는 통에 하마트면 주사기를 땅에 떨어뜨려 버렸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안돼요!》하는 침착하면서도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전선에 환자후송갔던 혜심이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이 중단된 환자는 자칫하면 신경으로 혈압이 올라 뇌혈관이 튕수 있어요》하고 말하면서 그는 환자를 찬찬히 눈여겨보더니 조심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를 두손으로 얼굴부터 목부위까지 조심히 쓰다듬어주는것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무릇 어머니나 누이들에게서 볼수 있는 친절과 근심의 사려깊은 표정이 비껴있었고 눈에는 더없는 진정이 담겨있었다.

《여보!》

별안간 환자가 곁에 없는 안해를 찾았다.

기순과 옥녀는 뜻밖에 튀어나온 그 부름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혜심분대장은 마치 자신이 환자의 안해인듯이 다정히 환자를 그러안더니 그의 잔등에 손가락으로 《여기 병원》, 《안심할것》, 《주사》 이렇게 써서 언어를 전달하였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환자가 저절로 소매를 걷어올리며 팔을 내밀었던것이다.

그제서야 기순은 그에게 진정제를 놓을수 있었다. 드디어 환자가 조용해지자 혜심이가 기순에게 말했다.

《우리 쌍둥이, 생김은 고운데 행동은 남자같아. 기순동무, 난 녀성이 때로 남자보다 강한건 부드러운움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해. ...》

《?!...》

기순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혜심은 잠든 환자를 지켜보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저 동무는 어제전투에서 땅크를 석대나 까부신 영웅이야. ... 그런데 아까 의식을 차리자 제 안해를 찾던걸 들었지? 나이들면서 가만히 보니 남자들의 영웅심의 기초에 많은 경우 녀성들의 섬세한 인간성과 헌신적인 사랑이 고여있는것 같애. 우린 군인들이지만 녀성이기도 해. 적을 찌르는것도 배워야 했지만 귀중한 동지들을 위해서 녀성으로서의 자기 힘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가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 ...》

그날 기순은 혜심의 또 다른 성격적측면을 봤다고 할가, 다시한번 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강하고 랭정해보이거만 하던 그의 얼굴뒤에 어머니같기도 하고 누이같기도 한 녀성적인 부드러운 측면이 감춰져있다고 생각하니 감탄과 함께 의문도 늘어났다. 도대체 혜심동지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저렇게 어떤 정황에나 막힘이 없을가?...

×

분대장 박춘학은 의식을 차리고나자 담당간호원인 기순에게 혹시 여기에 자기 집사람이 오지 않았는가고 물었다.

기순은 까르르— 웃음부터 터쳤다.

《아이참, 분대장동지두! 여기가 어디라구 아주머니가 오겠습니까?》

하지만 춘학은 머리를 저었다.

《아니요, 날 쓸어주던 손길이 꼭 우리 집사람이였소. 정말이요.》

그제서야 기순은 춘학이 처음 병동에 들어왔을때의 그 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 분대장동지! 그건 말입니다, 우리 혜심간호장동지입니다. 그러구 이건 절대비밀인데 간호장동지가 동지에게 자기 피까지 뽑아 넣어주었습니다.》

《뭘요? 간호장동무가?... 간호원동무, 그 동물 좀 불러줄수 없겠소? 내 부탁이요.》

박춘학은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세우면서까지 기순에게 간절한 어조로 말했다.

기순은 당황하여 황급히 다가가 그를 눕히며 말했다.

《어마나, 이렇게 막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중환자가... 그러다가 간호장동지 눈에 띄우면 어쩔려고... 내 이제 간호장동지 데려오겠으니깐 가만 누워있어야 합니다.》

기순이 다짐조로 지시손가락까지 세워보이며 말하자 춘학은 《그래, 그래. 내 얹전하게 누워있겠소.》하고 성급히 내뱉었다.

잠시후 김혜심간호장이 재빠른 걸음으로 춘학의 침대곁에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혹시 다른 증세라도... 하는 걱정과 불안이 짙게 어려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분대장동무! 몹시 아파요?》

《아닙니다, 간호장동무. 그렇게 아닙니다.》

이 말을 서둘러 하고난 춘학은 잠시 아무말도 않고 혜심을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하였다.

《분대장동무, 왜 그러세요?》

혜심이 몹시 의아쩍어하자 분대장 춘학은 게면 짙은 낮빛으로 시선을 판데 돌리며 황급히 말하였다.

《아닙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간호장동무, 전번에 제가 실례되는 행동을 한게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솔직히 말하면 난 그때 비몽사몽간에 고향의 안해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마 이쪽이나 저쪽이나 하는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이쪽으로 걸음을 옮겨졌었다면 그것은 간호장동무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억대우같은 사나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오자 혜심과 기순은 다같이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혜심은 인차 자기자신을 다잡았는지 춘학의 봉대감은 왼손을 다정히 어루쓸며 말했다.

《분대장동무, 그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고맙군요. 사실은 내 고향도 동무와 같은 경상남도 의령이에요. 같은 고향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전 입대 전 한나산뿔치산에서 싸울 때 피가 있었으면 살렸을 귀중한 전우들을 속수무책으로 잃은 가슴아픈 교훈을 마음속깊이 안고사는 사람입니다. 제 육망대로만 된다면 부상병모두를 다 완쾌시켜서 승냥이 미제원썹놈들과의 싸움에 내세우고싶어요. 그러니 분대장동무, 치료도 전투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대오에 설 일념으로 치료에 전념해주세요.

그것이 절 진짜로 고맙게 여겨주는거예요.》

뜨거운 걱정을 삼키는지 춘학의 목에서 울대뼈가 꿀꺽 오르내리는것이 보였다.

한편 기순과 옥녀는 그때 마음속으로 크게 놀랐다.

아, 혜심동지는 뿔치산출신이였구나.

어떤 정황에서도 당황해하지 않는 침착성,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남자들과도 어깨를 겨룰만 한 강인담대성이 바로 벌써 그 시절에 한나의 산야를 넘나들며 키워지고 다듬어진것이였다.

마음속깊이 존경심이 그들먹이 차올랐다.

기순은 그때부터 더욱 혜심을 친언니처럼 존경하고 따랐다. 그리고 그의 곁에서 떨어질줄 모르고 항상 물어다니며 하나라도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마치도 어른의 곁에 서면 자기의 키가 흠뻑이나 커질것처럼 생각하는 철부지 어린애처럼.

기순은 그의 곁에서 한생을 배우고싶었다. 하지만 기순은 자기가 그때까지도 혜심에 대해서 다 알자면 아직 멀었다는것을 다는 모르고있었다.

### 3

1950년 9월말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명령을 받은 기순이네는 겹겹이 포위한 적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리면서 대구 팔공산등판에 오르게 되였다.

그들의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적들이 온통 갈밭인 그곳에 먼저 예방탄을 미친듯이 쏘아댄통에 누래지기 시작한 갈밭에 산갈은 불길이 바람속도만큼 커지면서 무섭게 황황 타번지였다.

충천하는 불길에 김푸른 밤하늘마저도 시뻘꺠게만 보였다. 무섭게 포효하는 불길이 군복자락들에 날름거렸다.

연약한 몸예 부상병들까지 이끌고 가느라 처녀들은 기운이 빠지고 지칠대로 지쳐있었다.

사방에서 획— 획 소리를 내며 바싹바싹 다가드는 불길은 마치 그들의 생명을 앗으려드는 지옥의 사자들 같았다.

난생처음 이런 경난을 겪어보는 기순이네는 무서운 불의 기세에 한절반 뉘이 빠져나갈것만 같았다. 허겁지겁 발길이 나가는데로 걸음을 재촉하던 그들은 《아!—》하는 새된 비명소리에 화들짝 놀라 멈춰섰다.

뒤쪽에 누군가의 주저앉은 형체가 어렴풋이 안겨온다.

눈물이며 땀범벅과 화염으로 쓰러드는 눈을 비비며 달려가니 옥녀가 발을 부여잡고 주저앉아있었다. 들여다보니 발바닥에서 피가 푹푹 떨어져내린다. 해묵은 갈그루터기에 찢린것이다. 아픔에 못이겨 옥녀의 커다란 눈에서 주르르 눈물이 굴러떨어졌다.

혜심이 서둘러 옥녀의 발에 봉대를 감았다.

그런데 옥녀가 혜심의 팔을 부여잡더니 《간호장동무! 날 두고가요. 난 이젠 더 못 견뎌습니다.》하고 울음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봉대를 감던 혜심의 손이 멈칫 굳어지는가싶더니 다시 껌싸게 마무리를 매듭지었다.

《자, 어서 일어나요.》

옥녀의 어깨밑에 팔을 디밀어 일궈세우며 혜심이 말했다. 그러나 옥녀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아니예요, 날 데리고 가느라하면 간호장동지랑 걸음이 떠집니다. 난 정말 더이상 못 가겠어요. 날 팽개쳐요.》

순간 혜심의 얼굴빛이 엄해지는것이 옆에서 보기에 알렸다.

《옥녀동무! 여기서 주저앉으면 영 못 일어서. 이 전쟁을 이기고 우리 동무들에게 고향바다가 구



경을 시켜준댔지. 그런데 못 가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안돼, 옥녀는 절대로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돼. 옥녀야 장군님슬하에서 살아본 사람 아니야. 그런데 그 삶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수 있어? 안돼, 옥녀동무! 일어서요, 어서! 자, 손잡고 장군님께로 가자요.》

혜심의 말에는 옥녀가 비장한 결심을 품고 일어서게 하는 충분한 힘이 있었다.

《간호장동지!》

옥녀의 불편으로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옥녀는 입술을 웅쳐물더니 기순의 어깨를 짚고 일어섰다. 혜심이가 함께 옥녀를 부축하며 처녀들을 둘러보았다.

《자, 동무들! 이 갈밭만 헤쳐나가면 소백산 줄기를 탈수 있어요. 산에만 붙으면 장군님 계시는 북으로 갈수 있구요. 내가 이제 이 불길속을 뚫고나가서 장군님의 만경대고향집 얘기를 해주겠어요. 자, 힘을 내요. 앞으로!》

그리고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다. 불사신 같은 혜심의 입에서 노래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

보아라 도탄에 든 남조선동포  
억압을 물리치고 피로써 싸우는 땅  
일어나라 조국의 아들딸들아  
통일의 기쁨 나눌 영광의 날 위하여

하나, 둘... 모두가 노래를 따라불렀다.

애 어린 처녀들모두가 불길 천리라도 **김일성**장군님 계시는 북을 향해 가고야말리라는 각오와 의지를 품고 다시 갈밭을 헤가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까 하는데 혜심이 갑자기 약품주머니를 뒤적거렸다. 그러더니 《기순이! 먼저 가요. 내 인차 따라설게.》하는 말을 남기고 누가 미처 붙잡을새도 없이 뒤편 뒤로 돌아섰다. 그리곤 냅다뛰는 것이었다.

《아니?!》

기순이와 옥녀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연송 뒤를 돌아보며 가느라니 어느새 혜심이가 다시 나타났다. 불빛속에 불에 그슬린 그의 눈썹이 보였다.

《아니, 어딜 갔됐습니까?!》 걸음을 다그치면서 기순이가 물었다.

《아까 봉대를 꺼내느라고 이걸 그만 흘렸던것 같애.》하고 혜심은 화광으로 하여 그 분홍빛이 더욱 빨개진 낫익은 분팩을 보이더니 미안쩍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마나, 그속에 무슨 보물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다 큰일날라고... 이 불속에 그게 뭐라고...》

기순이가 눈이 울롱해서 말했다.

그러자 혜심은 《있지, 여기에 청춘을 가꾸는 귀한 보물이 있어!》하고 말하고 옥녀를 부축하며 함께 걸었다.

기순은 놀랐다. 아니, 이 절박한 정황에서 분팩파위를 관심하다니?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또 혜심에게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노래의 장엄함과 분팩을 애용하는 처녀의 마음이 어찌면 그렇게 잘 어울려 한 인간의 성정을 규정지을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 청춘의 아름다움과 삶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 그 《보물팩》 분팩뿐만아니라 그때 아직은 많은것이 미래에 속해있던것들을 그렇듯 귀중하고 가까웁게 느끼던 그였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사랑하는 생의 활력파도 같은 그렇게 소중한 피도 부상당한 전우들에게 서슴없이 넣어주었던것이 아닌가.

경상도 문경고개에서... 충청도 도립병원에서... 락동강과 그 줄기강인 릿강기슭을 거치는 동안만도 얼마나 많은 전우들에게 수혈을 해주었던가...

그날 팔공산 갈밭을 목숨걸고 헤쳐나온 결과 그들은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 새벽녘에는 소백산줄기에 안전하게 붙을수 있었다.

거기서 그들은 잠시 쉬기로 하였다.

고요한 새벽이었다.

치열한 전쟁과는 인연이 없는듯 한 정적과 고요가 산기슭에 감돌고있었다.

모두가 간밤의 일은 지옥의 불가마에 잠시 빠졌다 나온듯 한 기분이였다. 모든것을 체념한듯 한 기분에 사로잡혀 기순은 옷몸을 나무기둥에 기대고 아스라한 나무우듬지가 닿은 파아란 하늘을 정신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얼굴을 깨끗이 씻은 혜심이 소리없이 다가와 기순의 옆에 앉으며 머리를 빗었다. 그리고는 물었다.

《기순이, 힘들지?》

기순은 몸자세를 헝클어뜨리며 설핀 웃음발을 얼굴에 띠웠다.

《예, 간호장동지! 전쟁이 시작돼서 어제가 아마 제 일생에서 제일 힘들었던것 같애요.》

혜심은 기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런 말을 던졌다.

《기순이, 사람이 한생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가 어떤 때라고 생각해?》

말없이 초롱초롱 바라보고만 있는 기순을 보자 혜심은 답답한듯 그의 불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러대며 《웅-》하고 곱게 눈을 흘겼다.

《그야 사람나름이겠지요 뭐...》하고 기순이가 말했다.

《하긴 사람이 한생 그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

라 그런 날이 서로 다를거야. 하지만 나에겐 누구에게 선뜻 말할수 없는 소중한 하루가 있어!》

혜심은 정색해진 얼굴로 하많은 사연을 담은 추연한 시선을 멀리 북쪽하늘가로 보내고있었다. 그 낮빛에 기순이마저도 마음이 경건해지는것만 같았다. 그래서 생각했다.

(우리 간호장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소중한 날이 과연 어떤 날이었을까?...)

기순은 그의 말속에 스며있는 사연을 나름대로 예감해보면서 두손으로 턱을 고이고 다음말을 기다리고있었다.

...혜심의 이야기는 나라가 해방되어 3년되던 해 봄 어느날로 이어졌다.

혜심은 그때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 하나의 열망으로 평양에 갔었다.

고생 많고 곡절도 많았던 자기 가정과 자기의 운명을 돌변시켜준 해방이라는 커다란 사변을 가져다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정중히 인사올리고 앞날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싶은 당돌한 희망이 그의 가슴속에 끓고있었다. 떠나올적에 한나산빨찌산의 동무들과 평양에 가기만 하면 최대의 용감성을 발휘하여 꼭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 그분께서 하시는 귀중한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보물주머니》에 담아가지고와서 전해주겠다는 중대한 약속을 했던것이다.

혜심은 며칠을 헤매었다. 헤매면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생각을 고집하고있는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점차 자신심을 잃게 되었다. 해방된 조선의 복잡다단한 일거리들과 수많은 유명무명의 인사들이 그이의 조언과 손길을 기다리고있는데 한갓 남조선의 빨찌산처녀인 자기가 뭐라고 무언하게도 장군님을 만나뵙겠다고 하는가.

그래서 생각한것이 그이의 고향집이 있는 만경대에도 찾아가보자는것이였다.

대동강을 따라, 이름모를 풀과 봄꽃들이 작은 잎새들을 봄바람에 하느적이는 달구지길을 따라 혜심은 만경대고향집에 당도하였다.

집앞에 이른 혜심은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너무도 수수한 초가집이었던것이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은 남조선의 한 혁명가로부터 자주 전해들으며 마음의 성지로 간직하고 살았던 이곳이였다. 하지만 그 수수함과 소박함이 너무도 상상외로 놀라왔던것이다.

혜심이가 당혹감속에 사립문안에 들어서지 못하고 바재이고있는데 부엌문이 열리며 할머니 한분이 나왔다.

혜심을 보자 할머니는 《체네는 누구를 찾나?》하고 다정히 물어보신다.

《저, **김일성**장군님 고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런데...》

《그럼 먼바루 찾아왔네. 여기가 장군의 고향집이고 난 장군의 할머니네.》

《예?》

그 할머니이시다! 우리 손주가 알면 이제 네놈들을 가만두지 않을거라고 하시며 왜놈들을 전률케 하셨다는 호랑이같은 리보익녀사.

혜심은 놀라움을 누르며 정중히 무릎을 꿇고 조선헌을 올리였다.

리보익할머니께서는 혜심의 손을 잡아일으키며 다정히 물어주시였다.

《원, 절까지야 뭘. 체네는 어디서 왔나?》

《남조선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어 왔습니다.》

《어이구, 정말 먼길을 왔구만. 처녀의 몸으로 용기도 하지. 어서 들어가자구, 어서...》

그날 혜심은 **김일성**장군님의 일가분들을 만나뵈었다.

손님을 맞아주는 가식이 없는 인정미와 소박성에 그지없이 감동된 혜심은 김보현할아버님과 리보익할머니를 비롯한 일가분들앞에서 누구에게도 터놓지 않았던 자기의 인생경력을 다 말씀드리였다.

자기의 고향이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이라는것과 대구사범대학 2학년까지 다니다가 미군이 《해방자》라는 학교당국의 역설에 항거하여 학생시위에 나섰다가 퇴학당한 일이며 그길로 제주도 한나산빨찌산에 찾아가 싸우던 이야기, 그 나날에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언약한 애인을 먼저 잃은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곳 평양에까지 사선을 넘어오게 된 사연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혜심이가 이야기하는 동안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일가분들은 귀담아들어주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였지만 모든것을 숨기지 않고 의탁하고싶은 친근감이 말투며 행동거지에서 력연히 풍기는 일가분들이였다.

그러느라니 점심참이 되였다.

리보익녀사께서 장군님의 삼촌어머니되시는분과 함께 들어온 밥상을 마주하던 혜심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기장밥에 염장무우, 갓 돌아난 산나물무침에 토장국이 전부였던것이다.

《남조선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우리 장군을 만나 뵈러 온 귀한 손님인데 이렇게 소홀히 대접해서 정말 미안하네.》

리보익녀사의 말씀에 혜심은 그만 당황해졌다. 그보다도 **김일성**장군님의 일가분들이 하는 식사가 너무도 수수한데 놀라고 감동하여 눈물이 금시 솟구쳐올랐다.

혜심에게 각근히 권하며 달게 잡수시는 조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냥 울었다.

밥술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끄꼭— 흐느끼는 혜심의 잔등을 다정히 어루쓸며 리보익할머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장부가 울긴 왜 우나... 우리 나라가 통일된 다음 큰 잔치상을 차리자구.》

그날 혜심을 바래우며 리보익할머님은 동구밖까지 걸음을 걸으셨다.

《할머님, 전 돌아가겠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은 만나뵙지 못하였지만 오늘 전 여기 만경대에서 큰 것을 안고 갑니다. 오늘을 잊지 않고 장군님술하에서 살 그날을 위해 목숨바쳐 싸웁니다.》

친손녀를 떠나보내듯 눈가에 따뜻한 미소를 띄우시고 혜심을 바라보던 할머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난 혜심을 오늘 하루 만나봤지만 너장부로 생각하네. 난 체네를 믿네. 인정에 울줄 아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지. 자고로 남을 위해 울줄 아는 사람들치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은 없었だね. 그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구.》

리보익할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올랐다. 줄 줄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념 않고 혜심은 작별의 절을 올리었다.

혜심은 그렇게 떠나왔다.

...

그날의 감동이 사무쳐오는지 혜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기순이, 난 그날을 영원히 잊지 못해. 그날 비록 **김일성**장군님은 만나뵙지 못했지만 장군님을 낳아키운 만경대일가분들의 고매한 덕성에서 장군님의 세계를 받아안았다고 할가.

언젠가 넌 물었던적이 있지? 혜심언니 어떤 사람이예요?

난 죽어도 살아도 **김일성**장군님의 딸로 살려는 사람이야. 만경대에서의 그 하루가 내 맘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난 장군님의 딸로 변함이 없을거야.》

×

기순은 어렸을 때에 동네늙은이에게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모퉁이마다에 보이지 않는 《요술 막대기》 같은것이 숨겨져있어 그 막대기 다칠 때마다 운명이 다른 모양으로 뒤바뀌어진다는 옛말 비슷한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그날이 바로 혜심이와 기순이네를 헤어지게끔 운명의 《막대기》가 움직여진 날이었다. 1950년 10월초.

소백산줄기의 어느 한 산기슭에서 잠시 휴식하

며 운명적인 대화를 나누었던 혜심과 기순이네는 떠나려다가 뜻하지 않은 정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집요하게 추격해오던 괴뢰군놈들과 서로 런계가 취해져 혜심이네 후퇴대렬을 따라잡았는지 한개 중대가량의 적들이 구릉모양의 산기슭에서 불의에 그들을 포위해들어왔던것이다.

너무도 긴박한 정황이었다.

혜심은 침착하게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나서 기순을 찾았다.

《기순동무! 부상병들을 약속된 ×지점까지 후송할 임무를 동무에게 주겠어요. 어서 떠나요. 난 저놈들을 유인한 다음 제격 따라서겠어요.》

기순은 꿈쩍 놀랐다. 기순이가 보기에 이 정황에서 적들을 유인한다는것이 죽음을 의미하기때문이었다. 기순은 무작정 그의 팔소매를 붙잡았다.

《간호장동지! 안됩니다, 적들은 제가 말했습니다. 간호장동지야 우리 동무들을 만경대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놈들을 유인하겠습니다.》

혜심은 엄하게 기순을 제지시켰다.

《기순동무! 동문 병사예요. 상급의 명령에는 무조건 복종밖에 없어요.》

기순의 눈에 핑 눈물이 고였다. 머리를 수그리며 혜심의 가슴에 안겨들었다.

《혜심언니! 그럼 나도 함께 가겠어요.》

혜심은 기순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제품에서 그를 떼여냈다. 그리고 얼굴에 웃음발을 띄우고 주머니에서 분곽을 꺼내들었다.

《기순이! 그러지 마. 난 널 동생처럼 여겨왔어. 자, 이 분곽을 주고 갈테니 날 보듯이 보면서 기다려. 응?》

어린애 달래듯 하는 그의 말에 기순은 그만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언니! 죽지 마, 꼭 돌아오세요.》

《그래, 다시 만나자.》

혜심은 기순의 불을 꼭 누르며 《쌍뿔이있는 애는 두번 시집간대요...》하고 옛노래구절을 외웠다. 기순의 마음을 녹잡히려는 심정이었다.

그리고는 기순의 손에 분곽을 꼭 쥐여주고 일어서 반대편 산기슭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것이 기순이가 본 혜심의 마지막모습이었다.

얼마 안있어 어지러운 총성이 귀박죽을 물어뜯을듯 따갑게 울려왔다.

기순이네와 부상병들은 소리를 죽여가며 혜심을 불렀다.

《혜심언니!—》

《간호장동지!—》

기순은 그렇게 김혜심과 헤어졌다. 그후로는 다시 그의 소식을 들을때야 들을수 없었다.

...

그때로부터 1년후, 1951년 가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청춘의 하루하루를 불같이 태우던 김혜심은 적후 제2전선부대에서 용감히 싸우다 전사하였다.

그때 그의 나이 스물여섯... 아직은 행복할 많은

것이 앞에 남아있는 나이였다.

전사후 그의 품속에서 당원증과 수첩이 나왔다. 수첩의 앞머리에는 남조선 전역의 청년학생들속에서 힘차게 불리워지던 《구국투쟁가》의 가사가 적혀져있었다.

...

일어나라 조국의 아들딸들아  
조국통일 위하여 힘을 합해 싸우자

## 《태일구》여!

진 춘 근

류환선방목길 백오십리는  
새골천물소리 따라서는 길  
염소떼 흐르는 골짜기를 지나지나  
옥돌을 굴리며 맑은 물 노래하네  
장군님 다녀가신 《태일구》가 여기라고

불러보면 볼수록 뜻이 깊은 이름처럼  
사회주의선경의 새 풍치를 펼친 고장  
배부른 염소떼 노래하니  
풀판마다 싸리나무 가득나무 설레이고  
분장합숙 새살림집 번쩍이는 창문들이  
찾아오는 길손들 어서 오라 반겨주네

가슴 뭉클 이다지도 목메이는건  
치즈며 요그르트 케피르향기  
염소젖 향긋한 향기때문이나  
인적없던 이 산촌의 전변을 생각하면  
못 견디게 그리워 장군님영상

나라가 어렵고어렵던 날에  
눈보라 만리 선군길에서  
오늘을 설계하고 펼쳐주신

가 사

장군님 그 로고 안아볼수록  
분장마을 새마을 《태일구》의 방목길은  
걸음걸음 고마움에 눈시울이 젖는 길

염소우리 젓가공공장 문화회관지붕우에  
저 바라 한껏 밝은 아침해살은  
그날에 오시여 환하게 웃으시며  
합격이라고 걸작이라고 치하하시던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더냐

마음 한껏  
가슴 한껏 그 미소 안아보며  
목메여 바라보는 《태일구》의 오늘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넘어  
장군님의 선군길이 안아온 래일

저 멀리 천의산 황봉산 줄기줄기  
푸른 머리 높이 들고 세상에 소리치네  
방목길 백오십리 따라흐르며  
새골천도 흥겨이 노래부르네  
어버이장군님 사랑의 해빛아래  
강성대국 래일이 여기에 왔노라고!

## 돌아갑시다

김 충 기

봄날 아침 훈련길 떠난 땅크들  
산기슭도로에 약속한듯 멈춰섰네  
앞에는 하얗게 방목가는 염소떼  
지휘관은 결심했네 돌아갑시다

명령받은 시간은 분초를 다투어도  
그 어이 놀래우랴 농장의 염소들

산비탈 험한 길로 훈련길 돌리며  
전사들은 대답했네 돌아갑시다

뜨거운 그 사연 알기나 한듯  
염소들 울음소리 멀리멀리 따라오네  
병사들 인민위해 훈련길 에돌아도  
원쑤치는 싸움길은 곧바로만 가리

# 동봉땅의 밤

최 윤 철

휘영청 밝은 하늘에  
총총히 어문 별들을 품고  
달은 방그레 웃고

뜨락의 과일나무가지들도  
바람과 살뜰히 속삭이는  
잠들수 없는 밤  
어버이장군님 다녀가신  
동봉땅의 밤

오실 때마다 우리 장군님  
농장실태 일일이 료해하시며  
밝혀주신 과학농사법으로  
땅을 갈고 지력을 높이며  
벌이 꺼지게 무거운 이삭바다 펼치고  
우리 얼마나 기다렸던가

감자꽃필 때 오시였으면  
금물결 파도칠 때 오시였으면  
오시여 피로도 다 푸시며  
농사일로 마음을 더 쓰지 않으셨으면

아 풍작의 기쁨은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베푸신 사랑마저 다 잊으신듯  
농사를 잘 지었다고 감사도 주셨으니  
그리움과 감사에 목메이는 밤

뜨락을 나서니 나만이 아니구나  
어른들도 아이들도 명절처럼 명절처럼  
장군님 오신 길에 나와 평양하늘 우러러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있구나

한해에도 세번씩 찾아주신  
그 자옥 새겨안고 온 한해 살았기에  
불별도 비바람도 탕해도 이겨내고  
동해안농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나니

기적의 창조자로 불러주신  
그 말씀 되새기며  
평양하늘 우러르는 우리의 심장은  
붉은기의 숨결처럼 높뛰고있어라  
새날의 러명처럼 불타고있어라

## 들꽃중대 처녀들

염 득 복

온갖 꽃 만발한 4월의 봄날  
어버이수령님 계시는 만수대언덕에  
영생축원의 꽃바구니 안고 가니  
들꽃중대 처녀들이 올린 꽃다발  
그윽한 향기를 풍기는구나

그 언제부터였더냐  
어버이수령님 그리워 명절날 기쁜 날  
산에 들에 핀 꽃을 골라  
수령님께 삼가 드리였던 그날부터  
오늘의 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은

그 마음이 하도 고와  
술재령에 핀 꽃은 향기도 그윽하더냐  
그 마음이 하도 귀중해  
술재령에 핀 꽃은 빛갈도 그리 곱더냐  
온 술재령 들꽃 여기에 활짝 핀듯싶구나

기특도 하다 술재령초소의 녀병사들아  
한창 꽃필 좋은 나이 좋은 때  
인적드문 술재령초소에서

손에 총잡고 초소를 지켜선 너희들  
그 모습 그대로 조국이 사랑하는 들꽃

들꽃이라 그저 계절맞아 핀다더냐  
눈내리는 겨울에도 바람세찬 날에도  
뿌리가 얼세라 꽃대가 상할세라  
술재령들꽃 총대처럼 가꾸던 그 모습  
그 모습은 그대로 수령님 우러러 핀 꽃송이

그 마음 너무도 기특하여  
우리 장군님 술재령초소의 녀병사들  
들꽃중대 처녀들이라 불러주시고  
우리 수령님 가장 가까이에  
들꽃처녀로 삶의 뿌리 내리게 하시였거니

아 술재령 술재령초소는  
여기서 산넘어 평넘어 멀리에 있어도  
너희들 마음은 언제나 수령님가까이에  
교대없는 영생축원 호위초소  
영원한 호위초병으로 삶을 빛내이누나

# 소박한 정서 속에 담긴 약동하는 삶의 숨결

—시초 《내 삶의 년륜》을 놓고—

홍영길

조선로동당창건 65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서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교육강국, 인재대국으로 빛내자고 하면서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들을 키워내라!》고 호소하고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시초 《내 삶의 년륜》[윤정길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10호]은 오늘에 와서도 우리에게 일정한 여운을 안겨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다 아는바와 같이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이며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에 관한 주제의 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내는것은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성을 떨치는데 크게 이바지되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로부터 우리 시문단에서는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들인 교육자들의 참다운 형상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설문학을 비롯한 다른 문학예술형태들에 비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성과작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있다.

확실히 교육부문에 대한 작품은 쓰기가 어려운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시인들치고 대다수가 대학교육과정까지 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스승들과 보람찼던 대학시절에 대한 작품을 자부할 만큼 찢찢이 내놓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때문이다.

문단의 실정을 넘두에 두고보면 시초 《내 삶의 년륜》과 같은 작품이 나온것은 환영할만 한 일이다.

이 작품이 반가운것은 무엇보다도 참된 교육자로서의 뚜렷한 모습을 가진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이 창조되고 그에 의하여 개성적인 정서세계가 펼쳐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직접 표현된다.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의미한다.》

서정적주인공의 성격형상은 시인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서 다른 작품들에서 볼수 있는 서정적주인공들과는 다른 특질을 가진것으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자들의 형상은 엄숙하고 다심하며 인정에 넘치고 엄격한 성격의 인물, 다시말하면 《교편》이라는 특수한것으로 하여 《거룩》하게 나타나군 하는 류형적이고 도식적인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교편》을 손상시킨것으로 크든작든 비난을 야기시킨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서정적주인공은 첫 대면에서부터 그지없이 소박하다.

시초의 첫시 《교단에 올라》의 한대목을 보자.

이 아침에도 교단에 오르니  
반겨맞는 정찬 얼굴들  
나는 그들앞에 머리숙여 인사한다  
나의 강의는 이렇게 시작된다

...

인사를 받아다오 제자들이여  
그대들이 나를 스승이라 부를수 있다면  
내 삶은 그대들의 마음속에 깃들리  
제자들이 새겨갈 인생의 나이로  
내 한생의 보람도 흔적도 남으리

...

—시 《교단에 올라》중에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원이 학생들에게 인사를 한다. 그것은 교정의 독특한 규범이며례절이다.

그 누구도 의례적인 그례법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시인은 례사로운 그 순간에 시적계기를 두고 미래의 주인공인 후대—대학생들에게 터치고싶은 자기의 진정을 토로하고있다.

스승이 머리숙여 보내는 그 인사에는 서정적주인공자신만의 부탁이 아니라 애국으로 오늘을 꾸어온 선대들과 조국의 당부가 담겨있는것이다.

이 순간의 서정적주인공은 조국의 미래앞에 자신을 낮출줄 알고 그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희생할줄 아는 소박하면서도 헌신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그처럼 참된 인간미를 지니었기에 서정적주인공은 이른아침 출근전에 거울앞에 서서도 자기의 모습보다 제자들의 모습을 먼저 본다.

...

아, 오늘을 참답게 살아 래일에 후회없을  
내 삶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이 아침에도 나는 봅니다 거울앞에서  
거울에 비낀 내 모습보다도  
나를 닮을 제자들 래일의 그 모습을

—시 《내 모습》 중에서—

우리 민족시가의 전형적인 형식의 하나인 시조의 특성을 잘 살려 대학생들의 성적표에 점수를 올리는 교육자의 모습을 노래한 세번째 시도 이채롭고 품되어 키워낸 졸업생들을 바래워주며 제자들이 《졸업의 교문을 나서는 날은 있어도/스승된 이 마음을 떠난 날은 없》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정도로도 철학적이다.

시인의 감정이 여기에까지 흘러왔을 때 독자들의 마음속에 덧새겨지는것은 서정적주인공의 소박한 성격속에서 비쳐나오는 높은 책임감이다.

자신을 다 바쳐 제자들의 밑거름이 될 책임감에 기초한 자각은 서정적주인공의 공지에 넘친 삶의 숨결이 박동치는 감정정서의 분출을 가져왔다. 그 분출은 시초의 기동시라고 볼수 있는 마지막시 《내 삶의 년륜》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고있는바 이 시는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총적으로 펼쳐보이는 작품으로서 시초에서 서정발전의 령마루를 이루고있다.

푸른 숲을 키우고  
들 가득 옥곡을 가꾸며  
천만이 바친 애국에 받들려 강대한  
내 조국에  
나는 무엇을 바치는가

쇠물을 끓이고  
강하를 막아 언제를 세우며  
사람마다 한생의 공지를 말할 때  
나의 한생은 어떻게 흘렀던가  
내 인생은 무엇으로 빛나던가

...

—시 《내 삶의 년륜》 중에서—

들끓는 건설장도 아니고 바친 노력이 오늘 당장

현실의 위훈으로 나타나는 전투장도 아닌 교정. 사색과 탐구, 강의와 학파토론... 단조롭다고도 할수 있는 교정의 생활속에서 《지식이란 최대의 재부를 얻기 위해/젊은이들 교문으로 들어설 때》, 《지식이란 최대의 재부를 주기 위해》 날마다 교문으로 들어서는 서정적주인공의 한생은 정녕 넓지 않은 교정에만 흐르던가?

아니다!

...

총검이 서리발 뿜는 최전선과  
숲을 이룬 공장 드넓은 전야  
이 땅 그 어디나 제자들 가는 곳마다  
내 삶의 자욱은 이어지고  
그대들의 위훈으로 천만년 더욱 부강할  
조국의 래일로 내 한생은 이어져  
나는 한생에 오늘과 래일을 다 사는 사람

우주를 정복하는 우리 위성의 궤도에도  
원썬을 전몰케 하는 전쟁억제력의 총대에도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태어날  
희한한 창조와 기적의 력사우에도  
제자들의 이름들로 내 삶의 년륜은 이어져  
나는 한생으로 열백생을 사는 사람!

—시 《내 삶의 년륜》 중에서—

그렇다. 교육자—시인의 삶은 비록 소박해도 바친 열정과 노력으로 하여 새 세기 위대한 선군으로 승리하며 번영하는 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이 땅 그 어디서나 박동치며 흐르고있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이 펼친 정서세계에 잠겨 우리는 한껏 공지와 자부심으로 충만된 시인의 숨결을 듣는다.

시적일반화과정을 조화롭게 거친 시인의 감정은 서정적주인공의 독특한 모습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고 서정조직이 짜여있으며 조화로운 운률을 타고 시인의 감정정서가 흐르고있음으로 하여 시초는 사람들에게 정서적여운을 남긴 비교적 성과작의 하나로 될수 있었다.

아쉬운것은 시인이 서정의 폭을 넓히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나 아직도 생활반영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지 못하고 그로 하여 감정으로의 열도가 더 치달아오르지 못한것이다. 역시 교정생활이 주는 생활공간, 체험령역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소박한 정서를 펼쳐면서도 시대정신의 높이에 서서 박동치는 시인의 삶의 희열과 공지를 강렬한 서정으로 뿜어올린 여기에 이 작품이 가지

는 의의가 있으며 서정적주인공의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시인적개성의 한 면모가 있는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시인은 자기 삶의 년륜을 서정화하여 노래한 이 작품으로 작가로서의 자기 삶의 년륜을 또 한 돌기 새기였다고 본다. 한돌기 또 한돌기 새기여 가는 그 년륜들로써 우리 조국의 시문단은 더

욱 다채로와질것이며 올해 무한대한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총진군의 나팔소리가 되고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는 우리 시문학의 위력이 더욱 발휘될것이다.

앞으로 시인이 더욱 분발하여 내놓게 될 작품들을 독자들은 기대한다.

## 초소의 봄비

### 리 영 일

임무수행 마치고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네 봄비가 내리네  
철갑모에 땀방울처럼 맺혀흐르는  
따사로운 봄비 봄비야  
너는 갑작스레 찾아든 내 기쁨

차락 차르락  
초소길 마른 땅을 함뿍 적시네  
홍장우에 잔디는 우썹우썹 소리치며 크네  
꽃잎 흐느러진 교통호의 나리꽃은  
이젠 너무 겨운가봐

전호가 비발속을 걸어감이 마냥 즐겁네  
한생 벌에 사는 살뜰한 어머니 손길인양  
봄비는 내려 이몸 쓸어주네  
나는 끝없이 끝없이 걷고만싶어  
걸어서 내 고향 나무리벌에 가고싶어

내 삶의 첫 자욱 새겨진 곳  
조잘조잘 물이 흘러들 앞내벌아  
그리웁구나 그리웁구나  
마음은 검붉은 찰흙이 매달린채로  
두렁길 걸어 뺑자모판으로 달려가네

하얀 비닐박막 아주 차던지고  
파란 애기모들이  
어리광치며 살래살래 머리젖겠지  
모내기준비로 바쁜 입대전 나의 분조장

포전 휴계실에 앉아 벼농사 장훈을 부를 속궁냥을  
깨알처럼 수첩에 박아쓰고있으리라

비뿌리는 눈에 쉬임없이 씨레통을 굴려갈  
동요적 나의 딱친구 프락포르운전수야  
장군님 보내주신 《금성》호 새 프락포르  
그대의 조종간을 나는 몹시도 잡고싶구나  
내 동생 분이가 싸다준 아침밥팩을 넘겨주고...

물보라 뽀얀 재령강은 그 얼마나 아름다울텐가  
동쪽아래 양수기의 동음은 또 얼마나 기세차라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찢로써 열여가는 내 고향  
정든 벌 정든 사람들 위해 총잡고 초소에 선 몸  
이 시각 내리는 봄비와 함께  
마음은 살처럼 약동의 벌판으로 달려가나니

아, 봄비 봄비  
내 사랑 내 고향 나무리벌이 있어  
너는 그렇듯 기쁘고 즐겁고  
병사의 가슴을 흠뻑이도 적서주는  
내 사랑의 비 행복의 비 추억의 비

내려라 봄비 봄비야  
전호가에 구르는 너의 방울방울들이  
영글어 맺힌 벼이삭들인양  
고향에 바쳐가는 병사의 사랑을 싣고  
이 땅을 지켜가는 수호자의 긍지를 안고  
끝없이 내려라 따사로운 봄비 봄비야

### 경구, 격언

- 신심은 천재보다 중요하다
- 검이 할수 없는 일을 붓이 한다
- 글자는 목소리의 그림이다
- 력사가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라면 소설은 오늘날의 력사이다
- 책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 벗이다
- 로동이 없는 생활은 도적이요, 예술이 없는 생활은 야만이다

- 작가가 되자면 재치 이상의것을 가져야 한다
- 글을 많이 써서 좋은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한다
- 읽었다고 말하지 말고 알았다고 말하라
- 기량은 사람을 속이지도 못하며 용서하지도 않는다
- 스승으로 우러러보는 사람은 천부모보다 더 존중하여야 한다



# 키 낮은 사과나무

유영하

그 이름 불러만 봐도  
가슴 뭉클  
장군님사랑이 젖어드는  
키낮은사과나무

세상에 제일 좋은 사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려  
우리 장군님  
몹소 끌라주신 사과품종

바쁘신 전선길에  
시험포도 돌아보시고  
세계발전추세도 알아보시며  
우리 나라 과수업전망을 밝혀주신  
아버이장군님

그윽한 사과향기속에  
더 밝아질  
아이들의 웃음도 그려보시고  
달디단 사과단즙맛에

더 커질 인민의 기쁨도 안아보셨거니

무심히 볼수 없으려  
야전차불빛이  
푸른 잎새에 어려있고  
최고사령부 시간이  
년륜속에 새겨진 키낮은사과나무

너의 붉은 열매 한알한알엔  
세상천지 다 뒤져서라도  
지구상에 제일 좋은 사과  
내 나라 과원에 주렁지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사랑이 뜨겁게 스며있나니

아 세상에서 으뜸인 사과나무  
너는 키가 낮아도  
이 땅 이 하늘아래  
사과향기 가득 채우며  
장군님 애국헌신의 그 사랑 길이 전하며  
후손만대 무성하리라 설레이리라

## 외국작가일화

### 로신의 리발값

1926년 가을 어느날.

아모이의 한 리발관에 허름하게 차린 중년사나이가 나타났다.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다부산자, 물날은 신발, 어느모로 보나 초췌해보이는 사나이는 리발석에 올라앉자마자 조는듯 깊은 상념에 잠겨버렸다.

그가 바로 군벌당국의 탄압을 피해 아모이에 이주하여 일시 아모이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중국의 로동계 급혁명문학작가 로신이였다. 이 순간에도 로신의 머리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군벌당국의 사환군노릇을 하는 어중이떠중이 반동문인들에게 맴뜩한 타격을 가할것인가 하는 한가지 생각만이 맴돌아치고있었다. 강철같은 론리와 칼날같은 표현들이 온몸의 신경들을 짜릿하게 자극하며 머리속에 떠올랐다.

이렇듯 사색에 묻혀버린 로신을 생활고에 부대껴 고민하는 소시민으로 단정한 리발사는 시답지 않게 여기며 대충 머리를 깎아주고는 어깨를 툭 쳤다.

《자, 이제 일어나오.》

로신은 더 생각할나위없이 주머니에서 지폐 한장을 뭉쳐 꺼내어 리발사에게 주어버리고는 사색

을 이으며 천천히 리발관을 나섰다.

그로부터 한달이 지났을무렵 리발관에 로신이 또 다시 나타났다. 전번에 생각지도 않게 엄청난 보수를 받았던지라 리발사는 없는 친절을 다 보이며 무려 두시간 가까이 로신을 리발석에 붙들어두었다. 그리고는 전보다 더 많은 보수를 기대하며 조심스레 리발이 끝났음을 여쭙었다. 그런데 로신이 내놓은 리발값은 정해진 액수 그대로가 아닌가.

눈이 휘둥그레진 리발사에게 로신은 쓴웃음을 지으며 천연스레 말했다.

《전번에는 당신이 나의 머리를 대충 깎아주었기에 나도 돈을 세지 않고 대충 주었됐소. 그런데 이번에는 당신이 하도 깎깐하게 깎아주기에 나도 돈을 깎깐히 세여 주는것이요.》

로신의 말에 리발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말도 못하고 머리를 떨구었다.

사실 이때 로신은 문학인들과의 긴급면담을 앞두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번에 머리를 빨리 깎아주던 이 리발사에게 들렀던것이였다. 리발사의 소시민적근성에 침을 뱉으며 로신은 늦어진 시간을 메꾸기 위해 다급히 리발관을 나섰다.

##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에 대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은 이성뿐아니라 감성에도 적극 작용하기때문에 사람의 사상문화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 시절에 영국작가가 쓴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와 서사시 《차일드 하롤드의 권력기》, 로씨야작가가 쓴 서사시 《동승》같은것도 유럽낭만주의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는 영국시인 퍼씨비쉴 웰리가 1819년에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고대그리스신화에 기초하여 이 세상에서 폭군이 타도되고 자유와 정의가 승리하게 될 훌륭한 미래에 대한 공상과 기대를 보여준 서정적인 시극이다.

작품의 소재는 고대그리스의 비극작가 아이스쿨로스의 비극 《결박된 프로메테우스》에서 취하였다. 고대그리스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에게 불을 훔쳐다준것으로 하여 최고신 주피터에 의하여 산정의 바위에 결박되어 고통을 당한다. 이 신화에 기초하여 아이스쿨로스는 몇편의 비극을 내놓았다. 이 비극들에서는 결국 최고신을 반대하는 프로메테우스의 봉기가 마지막에 주피터와의 타협으로 끝난다. 즉 프로메테우스가 주피터에게 그의 운명에 대한 비밀을 대주어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며 자신도 결박에서 풀려나오는것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웰리는 자기 작품에서 신화와는 완전히 다르게 문제를 설정하였다. 시극에서는 폭군 주피터에 의하여 끝없는 고통을 당하던 《인류의 옹호자》인 거인 프로메테우스가 드디어 해방되는 날이 오며 폭군은 타도되고 온 세계에 자유와 정의가 돌아오는것으로 그리고있다.

작품은 전 4막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등장인물들도 상징적형상들로 그려지고있다.

막이 열리면 프로메테우스의 형상이 어둠속에 나타난다. 하늘과 땅의 아들이며 거인족의 영웅인 프로메테우스는 하늘의 신들만이 쓰는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가져다준 탓으로 올림프스신들의 제왕 주피터(제우스)의 노여움을 사 벌써 3천년동안을 깎깎지의 험준한 바위벼랑에 결박당한채 모진 고통속에 모태기고있다. 그렇지만 인류의 복리를 념원하는 그는 여전히 폭군 주피터를 단죄하면서 그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있다.

포악한 압제자 주피터에 의하여 산들, 샘들, 공기, 바람 등 지상의 자연까지도 모진 고통과 수난을 겪는다. 산에서, 샘에서, 바람에서 정령들의 구슬픈 목소리가 대사로 울려나온다. 프로메테우스의 어머니인 대지도 눈물을 흘린다. 프로메테우스의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인 에이시아는 프로메테우스를 위로하고 그에게 희망과 신심을 북돋아준다. 영원한 정의를 상징하는 마왕 데모고곤은 인류의 미래를 예언한다.

마침내 프로메테우스는 아들 허쿨리스에 의하여 해방되고 지상에는 에이시아의 손길에 의하여 새로운 삶과 광명, 환희와 사랑이 넘치게 된다. (이 부분이 시극의 절정으로 되고있다.)

주피터는 끝내 심판당한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상징적형상들로서 시인자신의 복잡한 철학적표상들을 체현하고있다.

시극의 주인공 프로메테우스는 인류의 옹호자, 인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력량을 상징하고있다. 이로부터 그의 성격에서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몸을 바치리라는 지향, 폭군과 억압과 부정의에 대한 증오, 예속과 굴종을 싫어하고 타협보다 고통을 택하는 정신, 폭군이 넘어지고 자유와 정의가 승리할 때일에 대한 신념과 같은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잔인한 폭군이여, 이는 너의 패배, 승리가 아니라

너 나에게 펼쳐보이는 이 광경들은

오히려 새로운 인내력을 내게 주노니

그들 이윽고 쓰러지고 새로운 정경이 나타나리라

...

나는 고통받는 인류의 수호자로, 힘으로 되련다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혼돈의 심연으로 떨어지고말리라

주피터는 이 시극에서 프로메테우스에게 직접적으로 대치되고있는 전제폭군의 형상으로서 자본주의적압제와 억압, 부정의와 악의 세력을 상징하고있다. 주피터는 자기만을 전지전능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예속시키고 굴종시키려는 압제자로 등장하여 인민을 증오하고 인류를 영원히 몽매와 암흑속에 가두어두려는 반동적지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들의 형상과 함께 대지, 에이시아, 데모고

곤 등이 중요한 역할을 놓고있다.

시극 《해방된 프로메테우스》의 주제사상적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자본주의적압제를 반대하고 자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반항하다 죽는것이 낫다는 강한 투쟁정신을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이 사상은 주로 주인공 프로메테우스의 형상에 구현되고있다.

프로메테우스는 압제자 주피터에 의하여 벌써 3천년동안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왔으나 여전히 그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맞서며 주피터의 명을 받은 머큐리가 와서 주피터의 운명과 관련한 비밀을 대면 용서해주고 거절하면 더 가혹한 고통을 줄것이라고 위협할 때에도 이를 단호히 물리친다.

...

그 인류속박의 종식에 대한 선언외에  
무슨 굴종을 받을수 있으며 또 내 어찌 굴종할  
수 있으랴?

굴종이란 나와는 인연이 없노라

남들이야 저 하루살이같은 전제자에게 주렁  
주렁 매달린

범죄를 칭송하고 아침할지언정

나는 이렇게 기다리노라, 우리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저 보복의 시간은 닥쳐온다

작품에서는 또한 이 세상에서 자본주의적압제가 없어지고 자유와 정의가 승리할 미래, 폭군이 타도되고 인류가 해방될 훌륭한 미래에 대한 굳은 신념이 표현되고있다. 이것은 작품 전반에 프로메테우스해방의 때가 가까와온다는 예감이 넘치고 마감에 가서 드디어 프로메테우스가 해방되고 주피터가 넘어지는데서, 폭군이 파멸한 후 인류의

새생활에 대해 노래하고있는데서 볼수 있다.

...

사람들은 압제자가 없고 자유롭고 억압받지  
않게 되었으며

평등하고 계급없고 종족이나 국가 차별없이  
되어

정의롭고 선량하고 총명하게 되었도다

...

여기서 시인은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될 새 사회에 대한 자기의 공상과 그러한 사회가 오고야말리라는데 대한 믿음을 표시하고있다.

작품은 이러한 사상적내용을 심한 상징과 비유, 강한 서정성, 다종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시형식과 운률 등 낭만적인 수법으로 노래하고있다. 이 시극은 특히 섬세하고 미묘한 시어의 음악적요소로 하여 잘 알려지고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매우 추상적이며 《리상미》를 추구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이 시극은 실지 산 인간과 생활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반영한것이 아니라 리해하기 힘든 복잡한 상징과 비유를 통하여 자연스럽지 못하게 반영하고있으며 그것마저 고사를 리용하고있기때문에 내용이 명확치 못하고 리해하기 힘들게 되어있다. 또한 폭군이 타도된 미래사회에 대한 기대도 사회계급적으로 매우 애매하다.

시극은 이와 같은 제한성이 있으나 자본주의영국사회를 폭로비판하고 인민들을 압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열렬히 호소한것으로 하여 영국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애송하는 작품으로 되었다.

정 광 철

## 조선속담

### 기대, 소원

- 자라 알 바라보듯
- 삼살개도 하늘 볼 날이 있다
- 봉천답이 소나기를 싫다 하라
- 볍은(닭은) 콩에 싹이 날가(꽃이 피랴)
- 대가리를 잡다가 겨우 꼬리를 잡다
- 늙은 말이 콩 더 달란다
- 장마다 망둥이 날가

- 칠년대만에 단비가 온다
- 오뉴월 닭이 지붕을 후빈다
- 목구멍의 때를 씻는다
- 봉사 눈 뜬것 같다
- 소중나면 병아리만 쫓아도 낫다
- 절은 타도 빈대 죽은게 시원하다
- 앓던 이 빠진것 같다

## 김창흡과 시초 《갈역잡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에 이름있는 작가나 작곡가, 화가도 있고 인류문화의 보물고에 기여한 명작도 있다는 것을 세상사람들이 알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줄수 있고 민족문화예술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옹계 계승발전시킬수 있다.》

김창흡(1653-1722)은 17세기 후반기, 18세기 초엽에 활동한 진보적시인이다.

자를 자익, 호를 삼연이라고 부른 그는 당대의 이름난 문인이었던 리단상에게서 학문을 익히고 15살에 벌써 진사시에 합격하여 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아버지가 당쟁으로 피해를 입자 정계현실에 환멸을 느끼고 은거하여 국내 여행과 창작으로 생을 마쳤다.

김창흡은 17세기 후반기, 18세기초에 새로운 사회경제적변혁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던 리조봉건국가의 부패한 모습과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각을 비교적 폭넓게 반영한 시들을 많이 남기었는데 이가운데서도 제일 유명한것이 시초 《갈역잡영》이다.

현재 그의 문집인 《삼연집》 7권에 실려있는 작품은 7언절구형식으로 된 176수의 시로 이루어져있다. 시초는 대체로 김창흡이 갈담역일대에 은거해있던 생애의 말년에 창작한것으로서 당시 정치, 경제, 군사 등 각이한 분야의 실태와 자신의 곡절많은 인생체험을 소재로 하고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되는것은 17세기 이후 시기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던 량반사대부들의 공리공담과 나라의 봉건적후진성을 개탄한 작품들이다.

많은 시들에서 시인은 령락된 민생과 나라의 경제적락후성은 아랑곳없이 권력유지에만 급급하는 통치배들의 추태를 예리하게 발가내고있다.

지금의 유학이란 폐절만 론의할뿐  
고증에 능한걸로 저마끔 자랑하누나  
신통한 리치는 천지를 밝히는것  
어찌 구구하게 죽은 뱀만 회통할소나  
(48번째 시)

5경은 가뭇없고 사림파도 허울뿐  
갈래많은 파벌간에 류혈만 랑자해라  
비로소 알겠구나 현자들의 폐단이 많은줄  
나는야 자연을 즐길 리치만을 배우리  
(73번째 시)

임진조국전쟁과 병자전쟁을 계기로 리조봉건위정자들의 부패무능성은 여지없이 폭로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건통치배들은 전후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추악한 당쟁에 몰두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공리공담만을 일삼음으로써 사회적비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 보는것처럼 시인은 봉건통치배들이 극구 내세우고있는 유교학문을 나라의 정사는 고사하고 생산력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허황하고 쓸모없는 공리공담으로 타매하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시들은 당대 봉건사회의 질곡으로 되어있는 주자성리학의 폐단에 대한 예리한 비판적기백으로 차넘치고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밖의 다른 시들에서도 뚜렷이 폭로되고있다.

만대의 태평세월 개혁할이 누굴가  
전통을 모아놓고 옳은 법을 세워야 하리  
유리병과 호로박그림이란  
남은 못 속이고 저만 속는것일세  
(62번째 시)

도덕을 바로잡고 리용후생해야 하리  
성인들이 어찌 한쪽만을 살피었으랴  
문장과 리치, 폐의에 해박하여야  
선비의 좁은 속통 넓힐수 있으리라  
(100번째 시)

시구절을 통하여 느낄수 있듯이 작품에는 굳어질대로 굳어진 봉건사회의 악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정서와 함께 그를 극복할데 대한 지향이 세차게 맥박치고있다.

물론 작품들에는 아직 봉건국가의 리익을 옹호하는 립장이 다분히 반영되고 구체적인 사회개혁방도가 주어지지 못한 약점도 있으나 사회적진보와 문명발전에 대한 지향과 결부되어 노래한것으로 하여 긍정적의의를 가진다.

《갈역잡영》에서 다음으로 주목되는것은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할데 대한 반침략애국적지향을 담은 시들이다. 112번째 시에서는 천연요새인 조령과 강화도에 방어준비를 해놓지 않아 불의에 달려든 외적을 성과적으로 물리치지 못했던 력사적 교훈에 비추어 《오늘날 오랑캐 막음은 모두가 엉망이구나/나무를 지키며 토끼 잡으려는 철부지야 이갈도다》라고 하면서 허울뿐인 나라의 국방력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였고 113번째 시에서는 수비군사가 부족하다고 성수축을 포기해버린 조정의 처사에 심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145번째 시에서는 국방을 홀시하면서 사색당쟁만 일삼고 음풍월월만 즐기는 봉건통치배들

에 대한 울분을 강렬하게 터치었다.

조선의 근심은 군사가 없는것  
제갈래 사람 많아 세력은 나뉘었네  
진정으로 생각하니 눈물을 금할수 없어  
하필이면 문장가만 성인이라 하라

이처럼 시인은 시들에서 말로만 나라방비를 떠들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지내는 봉건조정의 부패한 처사에 대한 비판과 결부하여 하루바삐 국방강화를 위한 웅대한 대책을 세울것을 적극 제기하였다. 여기에 당시 급격히 높아지던 민족적자각에도대하여 조국방위의 애국적지향을 일반화한 사실주의특징이 있다고 할수 있다.

《갈역잡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봉건적수탈로 신음하는 인민들의 생활처지를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보인 시들이다.

이 시기 봉건위정자들은 전세, 군포, 환곡을 통한 《3정》착취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주고있었다.

많은 시들에서 시인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목격하는 농촌의 황폐한 모습과 결부하여 봉건적학정에 시달리는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모습을 사실주의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실례로 151번째 시에서는 소를 팔아 군포를 물어도 도저히 충당할수 없다고 하면서 군포수탈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처지를 깊은 동정속에 펼쳐보이는 한편 군영을 줄여 배를 줄이지 않는다면 종당에는 농민들의 거세찬 봉기를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150번째 시에서는

5되가 12되로 불어났으니  
쌀이 많아도 백성들 근심하지 않으랴  
생각컨대 옛 임금의 정사 같지 않다면

신비들 오히려 허술한 대책만 세우리

라고 하면서 아무리 빠빠지게 일해도 가렴주구로 만성적인 근심에 싸여있어야 하는 농민들의 가궁한 처지를 잘 보여주고있다.

그런가하면 118번째 시의 경우에는 환자곡을 강다짐으로 독촉하는 아전들의 강탈행위를 밤낮없이 날아드는 참새떼에 비유하여 폭로하기도 하였다. 13, 121, 143번째 시에서는 수확물을 죄다 관가에 빼앗긴채 통곡하는 농민들, 류량결식하다가 얼어죽은 이름모를 녀인과 어머니를 애라게 찾는 어린아이의 가궁한 처지 등을 통하여 고통 겪는 인민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일신의 향락에만 치중하는 봉건관료배들의 죄악을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이밖에도 시초에는 17세기 이후시기 금속화폐류통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전하는 새로운 사회적변동을 반영한 시들도 이채로운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시들에서 시인은 량반도 농사짓고 장사하는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팔다리를 놀려 일해야 한다는것, 아무 쓸모 없는 과거시문을 외우느라 정력을 소모할것이 아니라 후대육성과 나라에 이바지할 참된 학문을 해야 한다는것 등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진보적사조로 대두하던 실학자들의 견해와 어느 정도 일치한 점을 보여주고있다.

《갈역잡영》은 비록 시인자신이 봉건문인이었던 사정으로 일련의 제한성을 가지고있으나 조국애의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적안목에 립각하여 당대의 사회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뿐만아니라 현재까지 남아 전하는 우리 나라 중세 시초들가운데서 그 규모가 제일 큰것이라는 점에서도 귀중한 유산적가치를 가진다.

장 혁